

활기찬 교과토의를 위한 ■

토의식 교과의 열쇠

The 8 Keys for Interactive Bible Study

| 윤재성 저 |



| 한국연합회 안교·선교부 |

■ 활기찬 교과토의를 위한 ■

토의식 교과의 열쇠

- 윤재성 -

The 8 Keys for Interactive Bible Study

- Jae Sung Yoon -

2011

Korean Union Conference

Sabbath School & Personal Ministry Department

■ 활기찬 교과토의를 위한 ■

토의식 교과의 열쇠

- 윤재성 -



| 한국연합회 안교·선교부 |



안 식일학교는 좋은 학교입니다. 안식일학교는 약 150년간 전 세계에서 명맥을 유지해 온 재림교회의 전통입니다.

안식일학교를 통해 전 세계의 재림교인은 하나가 됩니다. 모든 재림교인들은 안식일학교를 통해 신앙을 배우고 안식일학교를 통해 성장해 갑니다. 우리는 이 학교가 하늘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가는 문”이라 별명까지 붙여 주었습니다. 이렇듯 안식일학교는 우리에게 좋은 학교입니다.

그런데 최근 안식일학교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신자들의 출석률은 나날이 감소하고, 새 신자를 초청하는 경우도 드물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안식일학교를 흥미롭게 만들고자 애를 쓰고 있지만 오히려 안식일학교 교유의 기능만 잃어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안식일학교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성경 중심의 안식일학교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교인들이 안식일학교를 통해 성경을 배우고, 받은 교훈과 감동을 이웃에게 전하는 일 외에는 안식일학교가 다시 부흥할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매일 성경을 읽고, 예언의 신을 살펴보며, 교과공부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교과공부’는 안식

일학교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이며 '교과토의'는 안식일학교의 모든 순서 가운데 클라이맥스에 해당합니다. 안식일학교가 살아야 교회가 사는 것처럼, 교과공부와 교과토의가 살아야 안식일학교가 살아납니다.

따라서 이번에 출판되는 「토의식 교과의 열쇠」는 성경 중심의 안식일학교를 재확립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요긴한 책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자인 윤재성 목사님은 약 10년간 한국연합회 안식일학교를 섬기면서 이 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고, 특히 교과공부 운동과 토의식 교과 정착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셨습니다. 다년간 안식일학교에 대하여 연구하고, 교회들을 지도하면서 얻은 모든 지식과 경험들이 이 책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부디 전국의 안식일학교 교사들이 이 책을 통해서 영감을 얻고, 더 훌륭한 방식으로 교과토의를 지도함으로써 성경을 연구하려는 분위기를 촉진시키고, 안식일학교와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는 촉매 역할을 감당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추천합니다.

한국연합회장 김 대 성



교회 성장의 초석이 되는 안식일학교

안식일학교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재림교회의 영적 훈련 학교이다. 잘 운영되기만 한다면 교회 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다. 재림교회는 초창기부터 안식일학교를 통해 어린이와 청년과 장년 등 모든 연령층을 망라하는 성경연구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이는 성도들의 영적 성장에 참으로 요긴하고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최근에 윈 안(Win Arm)과 같은 세계적인 개신교 교회성장 연구자들이 기독교 각 교파를 대상으로 안식일학교나 주일학교와 같은 매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를 비교하여 분석한 자료들이 발표되었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매주 제공되는 교육 프로그램이 교회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이 나왔다. 최근 20년 사이에 여러 개신교 교단들에서도 재림교회의 안식일학교와 같은 장년 성경연구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매주 신자들을 양육하는 일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 결과 교회의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에 큰 역할을 하였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장년 교육 프로그램에 신자들의 참여율이 높은 교회일수록 균형진 성장을 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북미지회만을 놓고 본다면, 재림교회의 안식일학교가 제공하는 장년 성경연구 프로그램은 99%인데 반해 타 교단들의 주일학교에서는 53%에 그쳐 재림교회가 거의 2배 가깝게 더 많은 장년 성경연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식일학교는 재림교회의 큰 강점이자 교회성장의

초석이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해 준다.

재림교회가 이처럼 좋은 전통과 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참석자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지 못한다면 오히려 성장에 장애가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직시해야 할 것이다.

안식일학교가 살아야 재림교회가 산다. 안식일학교도 하나의 학교이므로 다른 무엇보다도 공부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데, 학습의 시간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가 하는 것은 안식일학교의 성패가 달린 문제라 할 수 있다.

본서는 가장 효과적인 안식일학교 교과 학습을 위해 필수적인 네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토의식 교과의 열쇠를 찾아보았다. 이 네 가지 요소란 학교를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와 동일한 것으로서 학생, 교사, 교실, 교과를 가리킨다. 이 넷 중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학교가 되기 어렵듯이, 이 넷 중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토의식 교과도 어렵게 된다.



첫째, 교과 토의에 있어서 교사의 역할은 중요하다. 학생들을 이끌어 토의에 동참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안내자이며, 교과 토의의 가장 중요한 열쇠를 가진 장본인이다.

둘째, 학생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교과토의의 주체는 학생이며, 무엇보다도 예습을 해 온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토의에 참여할 때 토의는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다.

셋째, 학습 환경 또한 간과할 수 없다. 가장 이상적인 환경은 '방해 받지 않는 오붓한 공간에서 원형으로 둘러앉아 토의하는 것이다. 학습 환경에는 단지 공간적 여건뿐 아니라 반의 크기, 반 구성원들의 개인차 등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 학습을 위한 교재와 강목이 필요한데, 토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질문이 포함된 교과와 잘 짜인 강목을 갖는 것은 필수이다. 활기찬 교과를 위한 이 네 가지 중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토의식 교과의 8가지 열쇠를 함께 찾아보자.

성공적인 교과토의의 4가지 요소

1. 교사

학생들을 토의의 장으로 끌어들이고 그들이 최대한 많이 말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교사의 능력이다.

2. 학생

예습을 충실히 해 온 학생일수록 토의에 참여하기를 갈망한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

3. 교과

토의를 유발하는 질문이 포함된 잘 짜여진 강목은 교과토의의 설계도 역할을 한다.

4. 교실

다른 반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오붓한 공간에서 원형으로 둘러앉아 토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환경이다.



추천의 글· 4

프롤로그 교회성장의 초석이 되는 안식일학교· 6

|제1부| 토의식 교과 교수법에 대한 이해· 13

다양한 교과 교수 방법들· 13

교과토의와 설교· 15

|제2부| 토의식 교과를 위한 환경의 조성· 16

■ 열쇠 1. 동질그룹으로 반을 편성하라· 16

“우리는 합반을 원해요!”· 16

동질그룹과 응집력· 17

안교활동반과 선교 소그룹· 19

반의 크기· 22

반의 재편성과 교사 수급의 문제· 25

■ 열쇠 2.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라· 26

교과토의 시간의 확보· 26

시간 확보를 위한 새로운 시도· 30

토의를 위한 환경 조성· 32





| 제3부 | 토의식 교과를 위한 교사의 역할 · 35

■ **열쇠 3. 가르치려 하지 말고 이끌어라 · 35**

교사들의 선입견 · 36

경청의 기술 · 37

교과토의에서 교사의 역할 · 43

크신 교사이신 예수님의 모본 · 45

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들 · 49

교과교수 능력을 향상시키는 법 · 53

교사의 의견 조율 능력 · 55

교사의 자기 계발 · 60

교사 양성의 시급성 · 63

교사회 운영 · 68

■ **열쇠 4. 질문을 최대한 활용하라 · 71**

크신 교사 예수님 · 72

질문의 위력 · 73

어떤 질문이 좋은 질문인가? · 75

질문의 3가지 유형 · 81

마음을 여는 질문의 3단계 · 86

각 단계의 질문을 만드는 요령 · 91

|제4부| 토의식 교과를 위한 학생의 역할 · 107

■ **열쇠 5. 교과 예습률을 높이라 · 107**

학생들이 침묵하는 이유 · 108

교과토의와 예습의 관계 · 108

교과를 예습하는 방법 · 110

교과 예습률을 높이는 법 · 112

■ **열쇠 6. 학생들의 참여를 허용하라 · 117**

교과토의의 초보와 고수 · 117

최대의 학습 효과 · 118

학생들을 토의에 참여시키는 방안들 · 120

토의 시 직면하는 문제들과 해결법 · 123





| 제5부 | 토의식 교과를 위한 교수법의 개발 · 127

- 열쇠 7. 교과의 중심 주제를 파악하라 · 127
 - 총알인가, 산탄인가? · 127
 - 학습 목표의 설정 · 128
 - 교수강목 작성 요령 · 132

- 열쇠 8. 학생들의 영적 상태를 파악하라 · 138
 - 표적을 보고 활시위를 당기라 · 138
 - 목자가 양을 알듯이 · 139
 - 학생들을 관리하는 법 · 141

| 에필로그 | · 144

안식일학교의 부흥을 꿈꾸며 · 144

교사를 위한 33가지 조언 · 145

Sabbath School



제1부 | 토의식 교과 교수법에 대한 이해



♣ 다양한 교과 교수 방법들

같은 교과라도 어떻게 가르치고 배우느냐에 따라 학습 효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학습 효과가 교과 시간을 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배운 내용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뿐 아니라 생활 속에서 실천되는 경우도 있다. 많은 교사들이 특별한 교육과 훈련의 과정이 없이 교사로 임명되어 선배 교사들이 가르치던 방식을 어깨너머로 배워 답습하고 있다. 이 책은 더 향상된 교수 방법을 추구하는 모든 교사들을 위해 쓰여졌다. 이제 시작하면서 우선 교과를 가르치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1. 강의식(또는 설교식) 교수법

강의식 교수법은 한 사람의 교사가 여러 학생들을 향해 일방적으로 강의하는(Oral presentation) 방식인데, 주입식 교수 방법이라고도 한다. 이 교수법의 장점은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법의 단점은 계속 이 방법을 사용할 경우 학생들이 학습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적어 지루함을 느끼기 쉽고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될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다.

2. 단답식(또는 퀴즈식) 교수법

단답식 교수법은 강의식 교수법에 비해 학생의 참여를 다소 높일 수 있

기 때문에 학습 효과 면에서 좀 더 유리하다.

그러나 이 교수법에서는 정해진 하나의 객관적인 정답을 말해야 하기 때문에 열띤 토의로 발전하기까지는 어려움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마치 학교에서 교사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의 문제를 출제할 때처럼 정해진 단 하나의 정답을 요구하는 퀴즈 형태의 질문이 주로 사용된다.

단답식 교수법에서 사용되는 몇 가지 유형의 질문을 예로 들어보자.

예1) 잠언을 기록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였으며 지혜의 왕으로 알려진 다윗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 답 : 솔로몬

예2) 요한계시록은 모두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 답 : 22장

이런 형태의 질문들은 단편적인 지식을 쌓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교과 내용을 깊이 있게 토의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3. 토의식(혹은 귀납식) 교수법

토의식 교수법은 학생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깊이 있는 사색을 이끌어 내게 하는 방법이다.

귀납식 교수법(inductive teaching method)이라고도 하는 이 방법은 학생들로 하여금 주의를 집중하게 하고 깨어있게 만들며, 학생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면서 학습에 동참하게 함으로 흥미를 느끼게 해 준다.

그뿐 아니라 교사와 학생이 서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자신에게 적용함으로써 교육의 궁극적 목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

이렇게 교사와 학생이 '팀웍(teamwork)'을 이루어 진리의 광맥을 찾아가는 학습 방법이 토의식 교수법이다.

● 토의식 교과 교수의 이점들

1. 자기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면서 **친밀한 분위기**가 조성된다.
2. 학생들의 참여로 **지루함 대신 흥미진진한 교과**를 경험하게 된다.
3. 더 깊은 말씀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서로의 생각을 자극**해 준다.
4. **다른 반원의 관점을 이해함**으로 **균형진 성장**을 도모하게 된다.
5. 교사는 **학생들의 관심과 필요**를 **깨닫고**, 넉넉히 채워 줄 수 있다.
6. 교과에서 배운 **진리를 생활 속에 적용**하기가 쉬워진다.
7. 학생들은 토의 참여를 위해 **더 열심히 교과를 연습**하게 된다.

♣ 교과토의와 설교

교과 공부 시간은 또 하나의 설교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재림교회의 안식일 오전 시간표를 보면, 크게 안식일학교와 안식일예배가 있는데, 꽤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혼동하고 있다.

하지만 이 둘은 엄연히 구분되어야 하고, 같은 것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룬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점이 있지만, 반별로 나누어 상호작용을 통해 자유롭게 말씀을 탐구하는 교과 시간은 온 회중이 함께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설교자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설교 시간과는 성격 자체가 다르다. 만일 안식일학교 교과 공부 시간이 설교의 형태를 띠게 되면, 바로 이어지는 진짜 설교 시간과 겹쳐짐으로 자칫 회중에게 지루한 감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교과 공부 시간은 학생(또는 회중)이 일방적으로 들어야 하는 또 하나의 설교 시간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상호작용으로 즐겁고 유익한 교과토의의 시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제 2부 | 토의식 교과를 위한 환경의 조성



☑ 열쇠 1. 동질그룹으로 반을 편성하라

♣ “우리는 합반을 원해요!”

안식일 아침이면 의례히 펼쳐지는 광경이 있다. 학생들은 긴 의자에 앉아 있고 두세 줄 건너 한 명씩 교사가 일어나서 설교하듯이 교과를 가르친다. 학생들은 입을 굳게 다문 채 자기 반 교사나 다른 반 교사의 강의를 듣는다.

이러한 광경이 처음 교회를 찾은 사람들의 눈에는 어떤 모습으로 비칠까? 우리가 조금만 더 손님의 입장에서 바라보아도 교과시간이 얼마나 산만하고 소란한지를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왈카스같은 분위기 속에서 교과 내용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고 다른 데 주의를 빼앗기게 되면 자연스럽게 교과 시간에 대한 흥미는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소란한 분위기 때문에 학생들 중에는 분반보다 합반을 원하는 이들이 많은데, 그들의 심정을 이해할 만도 하다. 어차피 토의에 참여하지 못하고 듣기만 할 바엔 좀 더 조용한 가운데 더 잘 준비된 내용을 듣고 싶다는 바람이 생길 만도 한 것이다. 그러면 합반이 최상의 방법일까?

합반을 했을 때의 문제점 중 하나는 교사가 일방적으로 교과를 가르침으

로 인해 설교 시간의 연장으로 인식되어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적자원 활용과 교사의 양성이라는 면에서도 적지 않은 손실을 보게 된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교과서의 내용을 수동적으로 듣기만 함으로 생활 속에 실천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할 위험이 크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

♣ 동질그룹과 응집력

그렇다면 합반보다 분반의 장점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가? 반은 어떻게 구성해야 하며 어떤 방식으로 토의를 이끌어가야 하는가? 활발한 교과 토의를 위해서는 반을 어떻게 편성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관건이다. 물론 반의 크기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어떤 사람들로 반을 구성하느냐하는 문제는 더욱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반의 크기는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우선 어떤 사람들로 반을 구성하는 것이 좋은지 생각해 보자. 재림교회의 전형적인 반 편성 방법은 지역을 기준으로 나누는 소위 구역 반 형태의 반편성이다. 즉 같은 동리에 사는 사람이 한 반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반을 편성할 때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반을 구역별로 나눌 때의 장점은, 행정구역에 따라 나누기 때문에 대체로 편성하기가 쉽고, 주중의 활동을 위해서 비교적 짧은 거리만 이동하면 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런 반면에 몇 가지 단점이 있는데, 첫째는 개인차가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같은 동리에는 나이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젊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학식이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젊은 엄마도 있고 자녀들을 다 출가시킨 할머니도 있을 것이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단지 한 동리에 산다는 이유로 한 반에 모일 경우 개인차가 고려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구역을 기준으로 반을 나눌 때의 두 번째 단점은 응집력이 약하다는 것

이다. 특히 반원들 사이에 개인차가 심할 경우에 공통 관심사를 찾기가 쉽지 않아 응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저 한 동리에 산다는 이유 외에는 별다른 공통점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모이는 것에 흥미가 없어질 수 있다. 한국연합회에서 가끔씩 '구역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고 '소그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구역반'은 지나치게 지역적 개념이 강조되는 용어이기 때문이다.

반을 편성하는 기준을 오로지 구역에만 한정할 경우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한 반이 되어도 어쩔 수 없다. 처음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젊은 여성이 주로 노인들로 구성된 반에 편성되어도 할 말이 없다. 왜냐하면 같은 동리에 살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반을 구역 중심으로 편성하는 까닭은 전통이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와 같은 단점을 보완해 주는 것이 동질그룹(homogeneous group)으로 반을 편성하는 방법이다. 동질그룹이란 공통분모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모임을 말한다. 물론 같은 동리에 사는 사람들의 모임인 구역반도 동질그룹들 중 하나이지만 응집력이 약하다. 혹시 옛날 씨족 사회에서는 응집력이 강했을지 모르겠으나 현대 사회에서는 지역 중심의 동질 그룹은 응집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떤 동질그룹으로 반을 나누는 것이 좋을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연령별 구분이다. 사람들은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또래 집단이 모이면 공통 관심사가 생기게 마련이다.

성별로 나누는 방법도 있다. 남성 혹은 여성끼리 반을 편성하면 나름대로 강한 응집력을 갖게 되고 때때로 강력한 활동력을 나타낼 수도 있다. 성별로 나누는 방법을 연령별 구분과 병행할 경우 더욱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 가령 44세에서 55세까지의 여성반의 경우 그들은 많은 공통 관심사를 갖게 되고 자녀교육, 가정경제, 폐경기와 같은 건강문제, 취미 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공통 관심사를 나누며 응집력을 갖게 될 것이다.

취미나 적성별로 반을 나눌 수도 있다. 가령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

디지털 카메라에 관심 있는 사람들, 여행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독서 모임, 클래식 음악 동호인 등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수많은 동질그룹들이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취미 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주고받고 활동하면서 전도도 하고 교회 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은사별로 반을 편성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 얻게 되는 영적 유익은 말할 수 없이 크다 하겠다. 새벽기도 그룹, 개인전도 그룹, 찬양 사역팀, 예언의 신 통독반, 성경 연구반, 집집 방문팀, 공중전도단, 환우 방문반 등 셀 수 없이 많은 동질그룹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 이들은 매우 직접적으로 은사를 활용하는 활동을 펼침으로 자신들과 교회에 유익을 가져올 것이다.

그 외에도 특별한 관심사에 따라 반을 구성할 수 있는데, 해외 선교사를 꿈꾸는 청년들의 영어 교과반, 초등학교 자녀를 둔 엄마들만의 자모반 등 필요와 여건에 따라 얼마든지 반을 나눌 수 있다.

♣ 안교활동반과 선교 소그룹

1. 안교활동반을 통한 선교활동

교과반을 동질그룹으로 나누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교과반(안교활동반)이 곧 선교 소그룹과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안식일에 만나는 교과반은 공부만 하고 헤어지는 모임이 아니라 안교활동반(Sabbath School Action Unit)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 간의 친교를 도모하고 선교 계획을 수립할 뿐 아니라, 그 동일한 반원들이 주중에는 계획된 선교활동을 실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안식일에 만나는 안교활동반의 선교 계획과 주중에 만나는 소그룹에서의 선교활동이 연계가 되어야 한다.

안교활동반은 대총회 안식일학교부에서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활동인데, 아직까지 그 중요성이 충분히 인식되고 있지 못한 듯하다. 2008년 1

월에 개최된 전국 안식일학교 대회에서 실시한 설문에서도 보여주듯이, 안교활동반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 교회는 일곱 교회 중 한 교회도 채 되지 않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미 안교활동반을 실행하고 있는 반들 중에 그 놀라운 효과에 매우 만족해하는 반들도 적지 않다.

안교활동반의 두 가지 목적은 '친교'와 '선교'이다. 안식일학교 4대 목적 중 하나는 '성도의 교제'인데,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안교활동반이다. 비록 구성원은 같지만 교과반이 시작되기 전에 그 반은 안교활동반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다.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개인의 신앙적 고민과 갈등을 나누고, 신앙으로 승리한 경험과 간증을 주고받으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일이나 특별한 기도요청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학생들은 뜨거운 공동체 의식을 느끼게 된다. 안교활동반이 아니면 도저히 느껴볼 수 없는 성도의 교제가 이 시간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안교활동반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역설하기도 한다. "교과토의 시간은 머리를 채워 주는 시간이지만, 안교활동반 시간은 가슴을 채워 주는 시간이다." 이 표현은 안교활동반의 가치와 역할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교회 생활에 정을 붙이고 서로 간에 끈끈한 교우애를 느낄 수 있는 곳은 바로 안교활동반인 것이다.

안교활동반의 또 하나의 목적은 선교이다. 안식일학교 4대 목적 중에 '지역사회 선교'가 있다. 안식일학교는 양육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하늘가는 문'이 되어야 한다. 안교활동반에 속한 소수의 반원들이 자체적으로 선교활동을 계획한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다. 물론 교회 전체가 선교활동을 위한 계획을 짜고 실행할 수도 있겠지만, 작은 반 단위로 선교 계획을 세울 때 많은 유의점이 있다. 반원들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고, 규모가 작기 때문에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다.

안교활동반은 교회의 실질적인 활동 단위이다. 성도는 이 반을 통해 자신의 은사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잃은양과 (장기)결석자는

반 단위의 활동을 통해 확인하고 찾을 수 있다. 개인의 구도자는 반 단위로 관리되고 양육된다. 교회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는 일도 안교활동반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년 소녀 가장을 찾아가 빨래나 청소를 해 주고 밑반찬을 해 주는 일은 안교활동반과 같은 작은 단위별로 실행하는 것이 교회 전체가 할 때보다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안교활동반 운영에 관한 지침은 안식일학교 핸드북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반별로 주어지는 50분의 시간 중에 안교활동반에서 쓸 수 있는 시간은 최소 10분에서 최대 25분까지이다. 반의 특성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교과토의 시간은 50분 중에 안교활동반을 실시하고 남는 시간이 되는데, 최소 25분에서 최대 40분까지 할 수 있다.

안교활동반 시간 중 친교와 선교를 위해 할애할 수 있는 시간 비율은 보통 5대 5이 좋다. 하지만 반의 형편에 따라 신축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령 20분간 안교활동반을 운영할 경우, 구도자들로 이루어진 반은 교과 공부보다 친교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친교를 위해 15분 정도를 할애하고 선교를 위해서는 5분 정도만 할애할 수도 있다.

● 안교활동반 진행 요령

1. 친교 : 반장은 따뜻한 환영인사를 한 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을 번갈아 던지면서 진행한다.(주의할 점은 기도 요청과 기도는 간결하게 요점적으로 하며, 기도가 끝나면 다시 (1), (2)번 질문을 반복하면 된다.)

- (1) “지난 한 주일 동안 생활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나 기도 요청이 있으시면 한 분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2) “자, 그러면 이분(기도 요청한 사람)을 위해 어느 분이 자원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2. 선교 : 반장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실시한 선교활동을 점검하고 다음 주에는 어떤 활동을 실시할 것인지 함께 계획을 세운다. 시간과 장소 그리고 구체적인 역할을 분담하고 기도하면서 마친다.

2. 안교활동반과 선교 소그룹의 일원화

앞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안식일에 이루어지는 안교활동반과 주중에 이루어지는 선교 소그룹이 연계성을 갖는 것이 이상적이다. 다시 말하면, 안교활동반의 구성원과 선교 소그룹의 구성원이 같을 때, 가장 효율적인 친교와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미 많은 교회들이 이 둘을 일원화시키는데 성공하였으나, 어떤 교회에서는 아직도 이 두 반이 이원화되어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가령 새로운 구도자가 선교 소그룹에 들어왔을 때 그가 주중에 만난 반원들의 얼굴과 안식일에 만나 공부하는 반원들의 얼굴이 같을 때에 더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 선교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양육과 선교가 일원화되는 것이 좋다. 안교활동반 시간에서 세운 선교활동 계획이 선교 소그룹에서 실행되려면 반드시 이 두 반이 일원화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안교활동반과 선교 소그룹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반원들의 은사를 십분 활용할 때 일어나는 시너지 효과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 반의 크기

지금까지 우리는 합반보다는 분반이 좋고, 분반을 할 때는 반편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반을 편성할 때는 반드시 동질 그룹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사실도 배웠다. 그리고 안식일에 모이는 안교활동반(교과반)과 주중에 활동하는 선교 소그룹이 일원화되어야 한다는 것도 이해했다.

이제는 토의식 교과와 반편성에 있어서 중요한 관건인 반의 크기에 대해 생각해 보자. 토의하기에 가장 적합한 반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 한 반을 몇 명으로 편성할 때 가장 원활한 교과 토의가 이루어지는가? 이 문제

는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이다. 반의 크기를 결정하는 데는 네 가지 요인이 작용하는데, 그것은 심리적, 물리적, 시간적, 공간적 요인이다. 이 네 가지를 차례로 살펴보자.

1. 심리적 요인

어떤 그룹에 속하여 자신이 말을 해야 할 때 심리적으로 적지 않은 부담을 느꼈던 적이 있을 것이다. 기령 적은 수의 사람들 앞에서는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심리적인 압박을 느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속 이야기를 부담 없이 털어 놓을 수 있는 그룹의 크기는 6명 이내의 작은 그룹이다. 교과반이 너무 커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반원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선뜻 마음속의 이야기를 꺼내 놓기를 주저하게 된다.

2. 물리적 요인

물리적인 요인도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60명이 본당에서 교과토의를 해야 한다면, 15명씩 4반으로 나누는 것이 조용할까, 아니면 6명씩 10반으로 하는 것이 조용할까?

얼핏 보면 15명씩 4반으로 할 때 말하는 사람이 네 명뿐이므로 10반으로 나누어 10명이 동시에 말하는 것보다 조용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다. 15명씩 4반으로 나눌 경우, 비록 4명이 말하지만 15명의 학생에게 다 들리도록 큰 소리로 말해야 하기 때문에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6명씩 10반으로 나눌 경우, 각 반의 학생수가 적고 서로 가까이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소곤소곤 이야기하고 크게 말할 필요가 없으며, 대화의 흐름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옆 반의 방해받지 않는다. 작게 속삭이는 소리는 20명이 동시에 말해도 조용하지만, 크게 떠드는 소리는 2명만 말해도 시끄럽다.

3. 시간적 요인

교과토의 시간은 대개 한정되어 있다. 안교활동반을 위해 얼마의 시간을 할애하느냐에 따라 교과토의를 위해 주어지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겠으나 대체로 교과토의 시간은 30분 내외이다. 한정된 시간 안에 모든 반원들이 만족할 만한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반의 크기를 고려해야만 한다. 즉 반원들의 수가 많을수록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적을 수밖에 없다.

대화의 전문가들은 ‘대화의 통로(Communication Line)’를 조절하라고 조언한다. 대화의 통로란 그룹의 구성원들 간에 대화가 오고갈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말한다. 가령 A와 B가 대화한다면 A가 B에게 말하는 것이 하나의 통로(line)이고, B가 A에게 말하는 것도 또 하나의 통로이다. 대화의 통로가 몇 개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수학 공식은 $N \times N - N$ 이다(여기서 ‘N’은 그룹을 구성하는 학생의 수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반원의 숫자가 6명이라면, 위의 공식에 그대로 대입하면 $6 \times 6 - 6 = 30$. 즉 30개의 대화의 통로가 형성된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정해진 시간 안에서 활발한 그룹토의를 이끌려면 ‘대화의 통로’를 제한하되, 일반적으로 원활한 그룹토의를 위한 적정 통로 수는 매 분당 1개의 라인을 가동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예를 들어 교과토의 시간이 30분이라면, 30개의 ‘대화의 통로’를 가동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30분간의 토의를 위한 적정 라인 수인 30개를 형성하기 위한 반원의 숫자는 몇 명인가? 정답은 6명이다.

요약하면,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반원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골고루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반원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각 사람에게 할당되는 시간은 짧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말하기를 좋아하는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토의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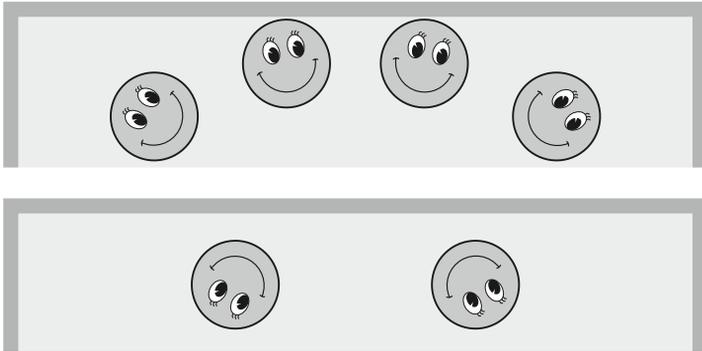
그러므로 한정된 교과토의 시간에 각자에게 좀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려

면 결국 적정 인원수로 반원수를 조절하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4. 공간적 요인

토의하기에 적당한 좌석 배치는 원형에 가까울수록 좋다. 그러나 교회의 장의자에 어떻게 원형으로 앉을 수 있단 말인가?

긴 의자를 둥그렇게 휠 수도 없고 바닥으로 내려가 앉는 것도 마땅치 않다. 하지만 방법은 있다. 두 개의 의자에 아래 그림과 같이 앉으면 거의 원형에 가깝게 앉을 수 있다. 그림에서 반원들의 얼굴 방향을 주목해 보라. 그런데 한 반의 인원이 6명을 초과하면 장의자에서 원형으로 앉기가 곤란해지기 시작한다.



♣ 반의 재편성과 교사 수급의 문제

지금까지 살펴본 바대로 한 반의 인원이 6명(또는 4~8명)일 때 토의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이런 규모로 반을 재편성할 경우에 무슨 문제가 따르는가?

현재 대부분의 안식일학교는 반의 크기가 6명을 훨씬 넘는다. 심지어 어떤 반은 20명이 넘는 경우도 적지 않는데, 반을 작게 나누었을 때 당장 해

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가? 그렇다. 교사의 수급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토의하기에 적절한 규모로 교과반을 재편성할 때에 반의 개수가 늘어나는 만큼 교사의 수도 확보되어야 한다. 토의를 위한 환경 설정의 문제는 교사 양성의 문제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각 안식일학교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는 다름 아닌 충분한 숫자의 유능한 교사를 양성하는 것이다. 교사를 양성하는 것이 선결 조건이고, 반을 재편성하는 것은 그 다음의 일이다. 이 순서가 뒤바뀌면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 열쇠 2.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라

♣ 교과토의 시간의 확보

교과토의를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요구된다. 한 주일의 교과 분량을 충분히 토의하려면 최소한 30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때때로 안식일학교 순서가 너무 길어짐으로 인해 교과 시간이 줄어드는 경우도 적지 않다. 안식일학교 임원들은 교과토의 시간이 침해받지 않도록 시간安排에 신경을 써야 한다. 안식일학교는 어디까지나 학교이므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토의식으로 교과를 진행하다보면 시간이 언제 흘러갔는지 모를 정도로 토의에 몰두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시간이 너무 짧으면 토의의 깊이가 없어지고 '수박 겉핥기 식'으로 넘어가게 되므로 큰 유익을 얻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 반원들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심도 있는 토의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리고 교사들은 주어진 시간에 최대한 깊이 있는 토의를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반원들의 삶에 역사하도록

돕는 통로가 되고자 결심해야 한다.

1. 최소 30분의 토의 시간을 확보하라

충분한 교과토의를 위해서는 적어도 30분 이상의 시간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 시간을 확보할 책임은 순서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안식일학교 교장과 임원들에게 있다. 물론 선교지 소식이나 안식일학교 사업을 장려하는 순서도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안식일학교는 어디까지나 학교이므로 공부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교과 시간을 침해할 만큼 순서를 길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각자가 집에서 예배를 해 왔을 경우에도 심도 있는 토의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0분 이상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안식일학교 임원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만약 교과토의 시간이 부족한 사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면 안식일학교 위원회에서는 교과토의 시간 확보를 위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2. 안식일학교를 10시에 시작하는 교회

근년에 안식일학교 시작 시간을 9시 반에서 10시로 옮긴 교회들이 간혹 있는데, 이런 경우에 예배가 마치는 시간을 12시로 정해 놓으면 결국 안식일학교 시간이 쫓기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교과토의 시간을 잘라먹는 일이 흔히 발생한다.

교과 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시간을 줄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어떻게 하면 주어진 시간을 유익하고 흥미롭게 가꾸어 나가는가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최근에 개신교 여러 교파들에서도 일요일에 드리는 주일예배 이외에 성인들을 위한 성경연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대체로 큰 호응을 얻지는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신자들의 영적인 성숙을 위한다는 좋은 의도

로 제공된 순서임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미미한 까닭은 아마도 2부 내지 7부 예배 중 아무 때나 편리한 시간을 택하여 예배만 드리던 이들에게는 새로운 성경연구 프로그램이 쉽게 적응하기 어려운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재림교회는 이미 150년 이상이나 되는 성인 성경연구 프로그램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이미 신자들에게 익숙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좋은 전통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편의만을 생각하여 축소하거나 없애버린다면 엄청난 실수를 범하게 될 것이다. 다른 개신 교회들은 할 수 있으면 성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자 애를 쓰고 있는 이때에 소중한 신앙적 유산을 소홀히 여긴다면 실로 막대한 손실이 아닐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

시간을 줄이는 것만이 최선의 해결책은 아니다. 진정으로 반원들의 지루함을 최소화하고 기대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흥미롭고 유익하며 감동적인 방법들을 고안하고 프로그램의 질을 높여야 한다. 순서 자체에 참신한 변화를 주는 것이 단지 시간을 줄이는 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개선책이 될 것이다. 어차피 30분의 시간을 줄인다 하더라도 10시에서 12시까지 장장 2시간 동안을 지루한 순서로 이어간다면 그것을 견딜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안식일학교의 순서를 기획하고, 교과토의 시간을 토의식으로 전환할 때 비로소 안식일학교는 사랑받는 시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혹 봄비는 출근 시간을 피하기 위해 안식일학교를 10시에 시작하는 교회가 있다면 마치는 시간을 12시 30분으로 늦추어 안식일학교 교과토의 시간을 잘라먹는 일이 없게 해야 할 것이다.

3. 대총회 안식일학교에서 제시하는 시간표

지난 2007년에 한국연합회 안교·선교부에서 발행한 '안식일학교 핸드북'에는 다음과 같이 안식일학교 표준 시간표가 제시되어 있다.

9:15	찬양의 시간
9:30	환영인사, 기도
9:35	이어지는 순서(택일) * 안식일학교 서기 보고 * 영혼구원 장려 * 투자헌금 장려 * 개선 * 특별일의 특별 순서
9:40	특창
9:45	세계 선교 소식
9:55	반별 시간 * 안교활동반(10~25분) * 교과토의(25~40분)
10:45	마치는 인사, 다음 주 순서 소개

이 시간표에 따르면 반별 시간이 50분 주어져 있다. 이 중에 교과토의 시간은 25~40분으로 할당되어 있는데, 안식일학교 순서를 위해 할당된 25분에 비해 꽤 긴 시간이다. 그 25분 속에는 환영인사, 사업장려, 특창, 세계 선교 소식이 다 포함된다. 우리는 가급적 이 시간표를 따르도록 힘쓰되, 부득이하게 시간을 정확히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도 최소 25분의 시간을 교과토의를 위해 확보해야 한다.

4. ‘풀-타임’ 학습 체제(Full-Time Learning Format)

교과내용을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풀-타임’ 학습 체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풀-타임’ 학습 체제란 대총회 안식일학교가 권장하는 안식일학교 진행 방식으로서, 안식일학교 순서와 안교활동반 및 교과토의를 그 주 교과의 주제에 맞추어 진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 교과의 주제를 안식일학교 전체 시간 내내 다루게 되므로 교과토의 시간 부족의 문제가 크게 해소된다. 실제로 어떤 교회는 목회자가 안식일에 배 설교를 안식일학교 교과와 동일한 주제로 설교함으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풀-타임 학습 체제를 따르는 경우도 간혹 있다. 이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법인데 그 이유는 모든 성도가 한 주제에 집중할 수 있고 그것을 폭넓고도 깊이 있게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에 무대 배경을 주제에 맞

게 설치함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도 있겠다.

5. 교과 시간 부족 시의 대처 방법

교과토의 시간이 부족할 때뿐 아니라 넉넉한 경우에도 다음의 방법은 효과적일 것이다. 교과를 가르칠 때 요일별로 진행하는 소위 ‘슬라이스(slice)’ 식 진행 방식보다는 중심 주제를 가르치는 ‘로우프(loaf)’ 식 진행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교과 교수 강목을 짤 때 중심 주제가 잘 드러나도록 교과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에 더 많은 시간을 안배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교과토의를 위해 주어진 시간이 얼마이든지 중심 주제를 잘 전달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요일에 얽매이지 않고 중심 주제를 가르친다면 주어진 시간이 10분이든 30분이든 주어진 시간에 맞게 주제를 커버할 수 있다. 이것은 강목 작성법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 시간 확보를 위한 새로운 시도

충분한 교과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안식일학교와 예배시간의 순서에 변화를 주는 것이다. 이 새로운 시도는 교회 직원회가 충분히 검토한 후에 상부 기관의 안식일학교부와의 협의 하에 일정 기간 시험적으로 실시해 보고 그 시험 기간이 끝난 후에 평가한 다음 계속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전통적인 진행 순서는 **안식일학교-교과토의-예배-점심**이다. 이 경우에 교과토의 시간은 이어지는 예배 시간으로 인해 제한되거나 중단되며, 특히 찬양대는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교과토의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다음에 제안되는 방식은 교과 시간 다음에 예배 시간이 아닌 점심시간이 이어지기 때문에 시간적 제약에 있어서 비교적 자유로워진다.

1. 예배-안식일학교-교과 공부-점심

서울의 C교회 등이 시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이 방법은 교과토의 시간 확보에 좋은 아이디어를 준다. 이 방법의 장점은 안식일학교 지각생의 현격한 감소와 맑은 정신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 등을 꼽을 수 있다. 찬양대원들이 교과토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하지만 이 방법의 단점은 예배 후 설교자와 악수하며 인사하는 시간이 없이 곧바로 안식일학교로 이어지기 때문에 연결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평을 듣는다.

2. 안식일학교-예배-교과토의-점심

서울의 D교회 등이 시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이 방법은 교과토의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안식일학교 순서는 활기찬 찬양과 간증 중심으로 진행됨으로 이어지는 예배 시간을 위한 마음의 준비를 갖추게 하고, 이 모든 순서의 절정에 예배가 이어지게 함으로 설교에 대한 집중력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안식일학교에서 안식일예배로의 전환이 자연스러운 특징이 있다. 위의 1번과 마찬가지로 찬양대원들도 교과토의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예배 후에 각 반으로 흩어지는 시간에 설교자와 인사도 나눌 수 있다.

예배 후에 시작되는 교과토의 시간은 설교 말씀을 주제로 반원들 간에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점심시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반원들로 하여금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여유롭게 교과토의 시간을 연장할 수 있어서 좋다. 아직 연구해야 할 부분이 없지 않지만 교과토의 시간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이 방법은 매우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라고 여겨진다.

3. 그 외의 방법들

서울의 K교회가 시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방법인데, **안식일학교-예**

배-점심-교과공부의 패턴이다. 이와 같은 형태는 충분한 교과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과 찬양대도 교과토의 시간을 보장받는다는 점 그리고 안식일 오후 시간의 활용이라는 점 등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의 가장 큰 취약점은 점심식사 후에 대부분의 교인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설령 몇 사람이 남아 있다 할지라도 식곤증으로 인해 교과토의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식당 봉사자들은 설거지 때문에 교과토의에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또 서울의 T교회의 경우처럼 금요일 저녁에만 교과공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금요일 예배 출석률이 안식일 출석률과 같을 경우에만 시도할 만하다고 본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금요일 저녁 예배 출석률이 안식일 예배 출석률의 60%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결석하는 나머지 40%는 1년 내내 교과토의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 권장할 만한 방법은 못된다.

연합회 안교·선교부에서는 더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해 먼저 몇몇 시범교회를 선정하여 그 성공여부를 지켜보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과감하게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 볼만 하다. 시범교회들은 먼저 상부 기관과 긴밀한 협의 하에 안식일학교 위원회와 예배 위원회의 충실한 기획을 바탕으로, 직원회 또는 교인 전체의 결의를 거쳐 합의된 상태에서 일정기간 동안 시험적으로 시행해 보고, 그 기간이 끝난 후에 반드시 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상부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에 본격적인 시행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이다.

♣ 토의를 위한 환경 조성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상적인 토의 공간은 방해받지 않는 반원들만의

오붓한 장소이다. 별개의 교실이 주어진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지만, 대부분의 안식일학교는 여러 반들이 본당의 긴 의자에 함께 모여 교과토의를 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런 형편에서 어떻게 옆 반에 방해 받지 않는 토의를 진행할 수 있을까? 이런 경우라 할지라도 반과 반 사이의 거리를 최대한 떼어 놓음으로써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면 본당 이외의 장소를 찾는 일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식당, 자모실, 회의실, 야외 벤치, 그 외의 조용한 공간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 아마도 친교실이나 조금만 손질하면 사용할 수 있는 다락방 혹은 지하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다시 말해, 활용 가능한 모든 공간을 다 활용하자는 것이다.

학생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토의하기에 더없이 좋은 공간은 바로 식당이다. 이 좋은 장소를 점심식사 시간까지 그대로 비워 두는 교회들이 허다하다. 또한 날씨가 좋은 여름날이면 교회 마당의 등나무 아래로 장소를 옮겨 보는 것은 어떨까? 교사들은 장소를 옮기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자리를 옮기는 것이 귀찮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사실은 학생들에게 정신적인 휴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리고 일단 자리를 옮겨 오붓한 공간에 앉게 되면 학습 효과는 몇 배로 높아질 수 있음을 기억하자.

앞에서 자세히 다루었지만 강조하는 의미에서 다시 언급하자면, 여러 반들이 본당의 긴 의자에 앉아 교과토의를 할 경우에 옆 반의 방해를 받지 않고 원형으로 둘러앉아 오붓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원을 4~8명(평균 6명)으로 반원 수를 조절해야 한다. 학생수가 8명이 넘으면 긴 의자에 원형으로 앉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앞 사람 혹은 옆 사람의 뒤통수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인원 조정이 필수적이다. 효율적인 교과토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볼 수 있고, 다른 반의 소음으로부터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일이 필요하다.

● 교과토의를 위한 최적 환경 만들기

1.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라.
2. 원형에 가깝게 좌석을 배치하라.
3. 너무 어둡거나 밝지 않도록 조명을 적절히 유지하라.
4. 실내 공기를 신선하게 유지하라.
5. 적절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라.
6.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을 제거하라.

물론 교과토의를 위한 시간과 공간의 확보가 중요하지만, 아무리 시간과 공간이 확보되고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할지라도 교사와 학생이 교과토의를 위해 의지를 갖지 아니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이러한 환경의 조성은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토의식 교과를 하려면 적지 않은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교사와 학생들은 교과토의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유익하고 즐거운 방법이 있다면 과감하게 도전해 볼 만하지 않은가? 지금까지 사용해온 방식보다 더 발전적인 방법이 있다면 시도해 볼 만하지 않은가?

교과를 토의식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의 정교한 기술이기 때문에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교사들은 자신의 교수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환경적인 준비를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는 토의식 교과를 위한 실질적인 테크닉을 다루고자 한다. 교사가 교과토의를 효과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을 배울 것이다. 어색한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면서 화기애애한 가운데 모든 반원들로 하여금 교과토의에 몰입하게 하는 기술들을 터득하게 될 것이다.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지 말고 향상을 위한 노력에 집중하자.

제3부 | 토의식 교과를 위한 교사의 역할



“나는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데도 유용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본 일이 없다. 사람이 성경연구를 태만히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사업에 사용하시도록 기도할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를 사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역사 하실 일이 별반 없기 때문이다.”(D. L. 무디)

☑ 열쇠 3. 가르치려 하지 말고 이끌어라

교사의 손에 토의식 교과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쥐어져 있다. 비록 환경적인 여건이 열악하고 학생들이 토의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교사가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끌어 간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가령 학생들이 아무리 토의식 교과를 원하고 다른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 있다 할지라도 교사가 일방적으로 강의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직 토의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어려서부터 자기를 표현하기보다는 자제하도록 요구받아 왔고, 특히 연장자 앞에서는 나의 생각을 말하기보다는 조용히 들어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이 지배하는 유교적 문화 속에서 살아 왔다. 그러므로 토의식 교과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제처럼 보인다. 이렇게 수백 년 동안 굳어져 내려온 문화에서 반원들을 토의의 장으로 끌어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문화혁명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교사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앞으로 공부하게 될 중요한 기술들이 결합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향상된 토의문화가 형성되리라 확신한다.

사실 요즘 젊은 세대들과는 달리, 기성세대는 토의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고, 건전한 토의의 모습을 접할 기회조차도 갖지 못했다. 심지어 지성인으로 여겨지는 국회의원들조차도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진지하게 토의함으로써 결론을 얻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고함치고 멱살 잡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던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나마 우리 안식일학교부터 성숙한 토의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노력해 나간다면 한국 사회의 토의 문화를 선도해 가는 역할까지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건전한 토의문화의 정착은 안식일학교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서도 배울 수 있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의 의견에서도 교훈을 찾을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할 때 비로소 토의문화는 싹트기 시작한다. 건전한 토의문화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용기(勇氣)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수용할 수 있는 관용(寬容)의 정신에서 시작된다. 토의는 자기주장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의논하여 최선의 결론을 도출해 내는 과정이다. 여기에는 남을 배려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토의문화는 흑백 논리나 남을 설복시키려는 태도보다는 배우려는 자세와 상호존중의 미덕을 발휘함으로 발전해 가는 것이다.

♣ 교사들의 선입견

토의식 교과를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많은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선입견은 “말하는 것은 가르치는 것이고, 듣는 것은 배우는 것이다.”라는 생각이다. 물론 교사의 입장에서 볼 때 말하는 것이 가르

치는 행위이지만, 말을 멈추고 학생의 말을 들어 주는 것도 가르침의 행위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학생의 입장에서 볼 때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것보다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때때로 더 훌륭한 배움의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사는 말하는 것뿐 아니라 듣는 것 또한 가르침의 행위임을 명심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것을 장려하고 그들의 말을 경청해 줄 필요가 있다. 교사는 학생들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할 수만 있으면 그들로 하여금 더 많이 토의에 동참하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말하는 것은 가르치는 것이고, 듣는 것은 배우는 것이다.”라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학생이) 말하게 하는 것, 즉 (교사가) 들어 주는 것도 역시 훌륭한 교육의 과정”임을 기억하자.

사람은 누구나 들은 것은 잊어버리고, 본 것은 기억하며, 말한 것은 실천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잘 가르치는 교사일수록 가급적 자신이 말을 적게 하고 학생들의 말을 많이 들어 줌으로써 학습 효과를 높이려고 노력할 것이다. 토의식 교과는 무엇보다도 학생 중심의 학습법이다. 그러므로 학생의 입장에서 접근함으로써, 그들이 듣고 잊어버리게 하기보다는 보고 기억하게 하고, 자신들이 직접 말하게 함으로 그것을 실천하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최고의 교수법이 될 것이다.

♣ 경청의 기술

듣는 것도 말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기술이다. 일반적인 대화에서와 마찬가지로, 교과토의도 말하기와 듣기로 이루어진다.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듣는 사람이 있다. 그러므로 토의의 절반은 말하기이며 절반은 듣기이다. 이처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그 중요성이 잘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듣기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1. 경청의 중요성

그냥 듣는 것과 경청(敬聽)은 다르다. 경청이란 말하는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을 뿐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자세로 집중하여 듣는 것을 말한다. 그리할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하여 학생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교사들은 반드시 경청의 기술을 익혀야 한다.

상대편이 말하는 요점을 정확히 파악해야만 정확한 대답을 줄 수 있듯이 토의에 있어서도 경청하지 않으면 핵심에서 빗나가기 쉽다. 다시 말해서, 잘 듣는 것이 잘 말하는 것의 기본이 되는 셈이다. 학창시절에 시험문제를 대충 읽고 문제를 풀다가 엉뚱한 답을 적었던 경험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서는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없다. 교과토의에 있어서 경청의 자세는 기본 중의 기본이며, 교사와 학생 모두가 반드시 터득해야 할 중요한 원리를 명심해야 한다.

많은 교사들이 경청하는 것을 불편하게 느끼는 이유는 앞에서 말한 고정관념 때문이다. 즉 ‘말하는 것은 가르치는 것이고, 듣는 것은 배우는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가르치는 교사는 반드시 계속 말을 해야 잘 가르치는 것이 되므로 학생들의 질문이나 의견을 듣는 시간을 낭비하는 시간으로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들의 견해를 말하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 것이다.

2. 경청의 요소들

경청은 하나의 기술이라기보다는 예술에 가깝다. 경청하는 자세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준다. 만일 교사들이 경청하는 법을 잘 익힌다면 학생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그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성숙해 가도록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경청의 요소들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자.

(1) 이해하려는 마음 자세

상대방의 말을 듣는 태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상대방의 말에 대해 반박하거나 답변하기 위해 선별적으로 청취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경청하는 것이다. 선별적 청취의 위험은 상대방의 말에 대응하려는 목적이 깔려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감시하는 경향이 있고, 때때로 반박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힐 수도 있다.

그러나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경청하는 자세는 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하고 대화를 진솔한 방향으로 이끌어 준다. 교과토의는 영적인 대화이며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 생애에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경건한 담화이다. 그러므로 선별적 청취의 태도를 버리고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경청하는 법을 익혀야겠다.

(2) 인내심

경청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인내심이다. 많은 경우에 교사들은 학생이 말하는 동안 느긋한 마음으로 듣는 대신 안절부절못하는 태도를 보인다. 하지만 그렇게 초조해할 필요가 없다. 학생들의 입을 열 수 있는 교사가 가장 능력 있는 교사임을 명심하고, 학생이 말하고 있는 동안에 최고의 학습 효과를 얻고 있음을 잊지 말자.

또한 교사가 훌륭한 질문을 던지고 나서 서둘러 자신이 대답해버리기도 한다. 필자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교사가 질문을 던진 다음 기다리는 시간은 평균 2초에 불과하다. 아무리 준비된 학생이라 할지라도 이 짧은 시간 안에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을 하기란 쉽지 않다. 학생들로 하여금 생각을 정리할 넉넉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경청(敬聽)에는 침묵의 어색함을 견디는 것까지도 포함된다. 질문을 던졌는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으면 물론 서먹서먹한 분위기가 연출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교사는 자신이 스스로 대답을 해버리거나 마음의 여유를 잃어서는 안 된다.

교육심리학에는 14초 법칙(14 second rule)이라는 것이 있다. 가령 어느 학급에서 한 학생이 돈을 잃어버렸다고 하자. 담임선생님은 종례시간에 학생들에게 이 사실을 말한 다음 학생들에게 눈을 감게 한 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조용히 손을 들면 그 사람을 용서해 주겠지만, 끝까지 숨기면 아무도 집에 가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한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진 다음 교사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14초 동안 팽팽한 침묵의 긴장감을 유지하면 누군가 손을 들거나 말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원리를 우리의 교과토의에 적용해 보자. 교사가 질문을 던지면 약간 어색한 침묵이 흐를 수 있다. 그러나 14초 동안 기다릴 수 있다면 누군가 반드시 대답을 하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교사가 질문을 던지고 무조건 침묵 가운데 14초의 시간을 재면서 기다릴 필요는 없다. 그 대신 같은 내용의 질문을 다르게 표현해 줌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더 쉽게 대답할 수 있도록 생각을 자극해 줄 필요가 있다.

3. 대화의 독점자를 다루는 법

경청하는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수다스런 사람이 교과토의 시간을 거의 독점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도 안 된다. 한두 사람이 대화를 독점해 버리는 것은 교사가 혼자서 강의하는 것보다 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1) 적절한 때에 끊어 주라.

경청의 기본 원리는 상대방을 존경하는 마음이다. 여기에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도중에 가로채지 않는 태도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지나칠 정도로 한 사람이 대화를 독점한다면 이것은 토의가 아니라 또 하나의 강의가 되어버릴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를 막아야 한다. 그런데 청산유수(靑山流水)처럼 실 새 없이 말을 쏟아 붓는 이들은 도무지 끊을 틈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교사는 토의를 진행해야 하는 임무를 띠고 있으므로 적절한 때

에 끊어 주어야 하는데, 여기서 ‘적절한 때’를 판단하는 것이 교사의 재량이다. 물론 말을 끊을 때에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김 집사님,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우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아직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신 조 집사님의 의견도 들어보면 어떨까요?”

(2) 반원들 간에 규칙을 정하라.

한두 사람이 대화를 독점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원들 간에 규칙을 정하는 것이 좋다. 매번 토의가 시작할 때마다 상기시킬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새로운 기가 시작될 때에는 다음의 규칙을 상기시키면서 토의를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1) 교과토의 시간에 모든 반원들이 한 번 이상 발언해야 한다. 2) 누구든지 세 번 이상 말해서는 안 된다. 3) 한 번 말할 때는 1분(혹은 2분)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런 규칙에 반원들이 동의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문자 그대로 지켜질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한두 사람이 독점하는 것을 방지할 수는 있을 것이다.

(3) 필요하면 개인 면담을 하라.

대화를 독점하는 한두 사람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 어려움을 줄 때에는 교사가 교과토의 시간 외에 별도의 시간을 내서 그 독점자를 만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최 집사님, 우리 교과반에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반원들도 집사님의 말씀에 즐겁게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분들도 좀 더 토의에 동참하는 축복을 누렸으면 합니다. 우리 반원들을 토의로 이끄는 일에 저를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 실질적인 경청의 기술들

경청의 기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중요한 두 가지만 살펴보기로 하자.

(1) 부드러운 눈 맞춤(eye-contact)

누군가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했다. 부드러운 시선을 통해 마음의 창을 열고 대화하노라면 모든 오해가 걷히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예로부터 연장자의 눈을 바로 쳐다보는 것은 버릇없는 행위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오히려 눈을 쳐다보지 않고 말을 하면 뭔가 숨기고 있다고 오해를 한다. 말하는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고 부드러운 눈빛으로 응시하며 경청하는 것은 서양의 앞선 문화라서가 아니라 말하는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존경의 표현이므로 우리도 채택하는 것이 좋겠다.

(2) 적극적인 신체 언어(body language)

내가 말하고 있을 때 상대방이 긍정해 주고, 고개를 끄덕여 주면 힘이 절로 나는 것을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경청에 있어서 '지지적인 피드백'(supportive feedback)은 대단히 중요하다. 사실 언어를 통해 전달되는 것보다 몸짓과 표정을 통해 전달되는 것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우리가 전하려는 전체의 의사를 100%로 했을 때, 언어가 차지하는 비율은 7%, 목소리가 38%인 반면에 '신체 언어'(body language)는 무려 55%를 차지할 만큼 매우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따라서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은 '바디 랭귀지'의 계발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

교과토의 시 모든 반원들이 말하는 사람을 주목해 주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맞장구를 쳐 주면 훨씬 더 생기 넘치는 토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아, 네 그렇군요."

예수께서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마 7:12)고 하셨다. 다른 사람이 나의 말을 경청하고 존중해 주기를 바라는 만큼 나도 다른 사람의 말에 경청할 수 있다면 우리의 토의 문화는 한층 더 높은 경지를 향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 교과토의에서 교사의 역할

실제 교과토의에 있어서 교사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가? 교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교사가 엉뚱한 역할을 맡게 됨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1. 교사는 교과토의의 인도자이다.

교사는 교과를 통해 학생들을 이끌어 가는 인도자(guide)이다. 목자가 양 떼를 인도하듯이 교사는 학생들을 풍성한 풀과 잔잔한 물이 있는 곳으로 이끌어야 한다. 목자는 양 떼를 내몰지 않는다. 교사는 일방적으로 가르치려 하지 말고 학생들이 즐겁게 따라올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 무조건 양들이 가는 길로 따라가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목자가 분명한 목적지를 알고 양 떼를 그곳으로 인도하듯이 교사도 분명한 목표 지점을 향해 학생들을 이끌어가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질질 끌려가는 것을 싫어한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따라가기를 원한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동기를 유발해 주어야 한다. 진정한 리더는 사람들을 강제로 이끌지 않고, 자발적으로 따라올 수 있도록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교사는 학생들이 즐겁게 따를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며,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늘 유리바닷가임을 늘 기억해야 한다.

2. 교사는 교과토의의 촉진자이다.

강의식 교과 교수법에서는 교사가 전체 시간의 99% 이상 말을 하고 학생들은 대체로 듣기만 하는 형식으로 교과가 진행된다. 이와 반대로 토의식 교과 교수법에서는 학생들이 대부분 말하고 서로를 이끌어 주기 때문에 '동참하는 교과 교수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

토의식 교과 교수법에서는 교사가 전체 시간의 1/3 이상을 말해서는 안

되며 학생들이 2/3 이상을 말하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교사는 촉진자(facilitator)의 역할을 한다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한다. 토의 진행자는 출연자가 편안하게 말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격려해 주어야 한다.

3. 교사는 교과토의의 조정자이다.

교과토의에서 수많은 의견들이 교환될 때에 그 의견들 간에 심한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토의가 토론으로 발전하여 마침내 논쟁으로 비화될 때 교사는 조정자(mediator)로서 분위기를 누그러뜨릴 수 있어야 한다. 교사는 평소에도 학생들이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아량을 가질 것을 호소해야겠지만, 특히 서로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에는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고 학생들 간에 감정적인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지혜롭게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조정자인 교사는 철저히 중립을 지켜야 하며, 교과와 결론을 맺을 때에도 결코 어느 한쪽 편을 들지 말고, 교과 말미에 나오는 '요약'을 읽는다는 지침으로 각자가 자신의 결론을 얻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대화의 독점자로 하여금 자제하게 하고, 말을 잘 하지 않는 사람을 독려하여 토의에 동참하게 하는 역할도 조정자인 교사의 몫이다.

4. 교사는 교과토의의 조력자이다.

비록 학생들이 토의에 참여하는 기회가 늘어난다 할지라도 학생들은 여전히 교사에게 의존한다. 교사는 학생들을 위해 그때그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준비를 갖추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토의식으로 교과를 가르치면 준비를 적게 해도 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교사가 교과와 흐름과 방향을 알지 못하면 중심 주제에서 벗어나 방향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는 교과와 내용을 꿰뚫고 있어야 한다.

교사는 학생들을 돕는 조력자(helper)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

기 위해 충분한 준비를 갖추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 크신 교사이신 예수님의 모본

여기서 잠시 크신 교사이신 예수님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참으로 유익하리라 본다. 크신 교사이신 그분에게서 배워보자.

1. 크신 교사이신 예수님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을 ‘랍비’ 또는 ‘선생’으로 호칭한 곳이 60군데 이상이나 나온다. 랍비란 ‘나의 선생’이라는 뜻으로(참조, 요 1:38),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란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그렇게 부르기를 좋아했다. 예수님의 교수방식을 연구한 오늘날의 학자들도 그분의 교수법에 대해 감탄을 금치 못한다. 교육 심리학자인 칼 로저스는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알려진 가장 위대한 교사로서, 교수법에 있어서도 탁월한 분이셨다”(칼 로저스, Educational Psychology, 256)고 하였다. 그분은 진실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사이다.

2. 온유하고 겸손하신 교사

안식일학교 교사들이 크신 교사이신 예수님께 배워야 할 첫 번째 특성은 그분의 온유와 겸손이다. 주님께서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마 11:29)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셨다. 교사들은 학생들을 가르치기에 앞서 그분의 발아래 머물러 온유와 겸손의 공과를 배워야 한다.

3. 영혼을 애타게 사랑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신 것은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다.

그분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잃어버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의 눈높이까지 내려오셨다. 인류를 향한 그분의 애타는 사랑이 그분을 삼켜버렸다. 만일 교사가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아 자신에게 맡겨진 학생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자 하는 애타는 심정을 갖는다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구원의 진리를 학생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언어로 가르친다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원동력은 영혼에 대한 불타는 사랑이었다. 그분은 한 영혼의 가치가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아셨다.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 중 하나인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단 한 명의 청중에게 하신 말씀이었다. 그분은 어두운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향해 위대한 진리를 선언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시게 한 것은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었다. 그러므로 교사가 한 영혼의 가치를 충분히 깨닫지 못한다면 결코 주님을 닮은 교사가 될 수 없다.

4. 예수님의 교수법의 특징

(1) 학습자 중심의 교수법

예수님의 교수법은 학습자 중심의 교수법이었다. 학습자 중심의 교수란 학생들 편에서 그들이 이해하고 기억하고 적용하기 쉽도록 가르치는 방법을 말한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보다 사람의 심리를 더 잘 아는 이가 있겠는가? 그분은 사람의 마음을 열고 그들의 심령에 접근하는 통로를 알고 계셨다. 그리고 죄로 인해 인간의 이해력이 얼마나 둔해져 있는지도 아셨다. 그분은 구속의 고차원적인 지식을 죄인들의 어두운 마음이 깨달을 수 있도록 쉽게 진리를 설명해 주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요 1:14)라는 구절은 예수께서 얼마나 철저히 학

습자 중심의 교사가 되셨는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눈높이에서가 아닌, 이 땅에 육신으로 존재하는 죄인들의 눈높이에서 구원의 귀한 진리를 가르치셨다.

(2) 창의적인 교수법

예수께서 무리를 가르치셨을 때에 사람들은 빛나는 진리의 보화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진리가 그분을 통해 선명하게 와 닿는 것을 느꼈다. “못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이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막 1:22, 27)

예수께서는 참신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가르치셨다. 그분이 사용하신 비유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끌어낸 것이었으나 하늘의 영적인 사물을 깨닫게 하는 놀라운 매개체가 되었다. 그분이 던지신 질문은 단순하였으나 청중으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자아내게 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놀랐으며, 감격하였고, 더 많은 진리를 얻기를 갈망하였다.

엘렌 G. 화잇은 예수님의 창의적인 교수법에 대해 잘 묘사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진리를 모호하게 만드는 것들을 제거하려고 노력하셨다. … 그분의 말씀은 성경의 가르침과 천연계의 교훈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했고 그 교훈들이 새로운 계시가 되게 하였다”(실물교훈, 18). 평범한 것일 지라도 그분께서는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하셨으며, 거기서 놀라운 통찰을 이끌어 내셨다.

(3) 단순하면서도 흥미로운 교수법

예수님은 어린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고 배우지 못한 자들도 깨달을 수 있도록 단순하게 가르치셨다. 그러나 그분의 가르침은 심오하여 아무리 많은 학식을 가진 자들도 다 이해할 수는 없었다. “예수님은 세상에 지금껏

알려진 가장 위대한 교육자였다. 그분의 지식과 비교해 보면 가장 높은 인간의 지식도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분의 교훈은 너무도 단순했기 때문에 배운 자나 배우지 않은 자를 막론하고 모두가 그분을 이해했다”(교회증언, 5권, 588).

한편 그분의 가르침은 흥미로웠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막 6:34~36). 사람들은 날이 저무는 줄도 모르고 그분의 교훈에 심취해 있었다.

그분의 가르침이 그토록 흥미로웠던 이유는, 청중의 필요에 적중했기 때문이었다. 그분께서는 사람들의 육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를 만족시키셨다. “그분은 항상 인간의 영적, 육체적 및 정서적인 필요에 민감하셨다. 그분은 사람을 동정하시고, 그들의 비애를 들어주시며, 그들의 질병을 고치시고, 그들을 먹이셨다. 청중들이 낮을 잃은 채 예수님의 말씀에 열중했던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찰스 베츠, 장년 안식일학교를 위한 토의식 교과 교수법, 26)

(4) 일상의 삶과 연결시키는 교수법

예수님은 청중이 익히 아는 사실에서 출발하셨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일이나, 목자가 양을 치는 일이나, 어부가 그물을 낚는 일은 청중들이 익숙히 아는 삶의 일부였다. 들의 백합화나, 공중의 새나, 작은 씨앗을 가진 겨자나무는 청중들이 친숙하게 아는 그들의 삶의 환경이었다. 반죽을 부풀게 하는 누룩이나, 부대에 담긴 술이나, 가이사의 화상이 새겨진 동전은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 접하던 사물들이었다. 곡식 틈에 자라는 무성한 가라지나,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나,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이

야기는 그들이 평소에 안타깝게 생각하던 삶의 정황이었다.

예수님은 청중이 잘 아는 사실에서 출발하여 영원한 진리의 세계로 이끄셨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던 청중들은 천연계의 사물들과 자신들의 생활 경험을 성경에 기록된 진리와 연결시켰다”(실물교훈, 17).

♣ 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들

우리는 크신 교사이신 예수님을 본받는 교사가 되어야겠다. 그리고 반원들을 그분께로 인도하는 교사가 되어야겠다. 교사는 가르치는 교과를 통해 반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작은 목자가 되어야 한다. 훌륭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질들이 필요한가? 교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10가지 기본 자질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자.

1. 확신

교사는 확신에 찬 사람이어야 한다. 확신이 없는 사람은 능력 있는 가르침을 줄 수 없다. 말의 권위는 확신과 비례한다. 마음속에 있는 확신은 은연중에 표정과 언행에 묻어난다. 그러므로 안식일학교 교사는 기본적으로 진리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 단 한 번도 우리 교사들의 입에서는 의심이나 불확실한 소리가 새어나오지 않게 하자. 교사들이 매순간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교사가 불신과 의심의 말을 내비칠 때 학생들의 영혼은 즉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사단의 음모에 걸리게 된다. 교사들은 자신이 가르칠 내용에 대해 확신을 얻기까지 다른 사람 앞에 서지 않겠다는 결심을 해야 한다.

2. 열정

가장 중요한 교수 테크닉 중 하나는 열정이다. 이 열정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자기 반원들을 향한 사랑에서 우리나라다. 교사는 교과를 가르치기 위해 준비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야 하고, 그 사랑을 자기 반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애타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반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야 말겠다는 결단과 의지가 교사들의 눈빛 속에 타올라야 한다.

3. 지적인 능력

또한 교사에게 필요한 자질은 지적인 능력이다. 교사가 알아야 할 세 가지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가르칠 교과에 대한 지식,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지식이다. 특히 가르칠 교과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종종 교사가 교과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한 채 주변을 맴도는 강의를 계속할 때 학생들은 답답함을 느낀다. 그러므로 교사는 가르칠 교과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을 소유해야 한다.

4. 의사소통의 능력

교과를 가르치는 것도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이다. 교사들은 의사소통의 전문가들이 되어야 한다. 종종 교사들은 일방적으로 설교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상대방이 한번 듣고 잊어버리는 식의 비효율적인 의사소통 방법 대신 오래 기억할 뿐 아니라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하는 방법을 택하면 얼마나 효과적이겠는가? 사실상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동안 스스로 배우고 있으며, 다른 반원들의 말을 듣는 동안 효과적인 학습을 하고 있는 것이다.

5. 겸손

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 가운데 겸손을 빼트릴 수 없다. 학생들은 권위주의적인 교사를 좋아하지 않는다. 가르치려는 자세보다는 함께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학생들을 존중해 주는 교사를 좋아한다. 교사들은 자신의

신분에 대해 너무 지나친 부담을 갖지 말아야 한다. 교사는 자신도 하나님
의 말씀을 배우는 학도라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신의 실수에 대
해 인정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학생들은 겸손한 교사를 바라보
며 그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자 마음 문을 열게 될 것이다.

6. 목적의식

뚜렷한 목적의식은 매주 교과를 토의하는 시간뿐 아니라 학생들을 대하
는 교사의 태도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교사는 우선적으로 이번 주 교과
의 학습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목적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학생
들로 하여금 주님을 닮은 품성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더 넓은 의미에서
의 목적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쏟
아 보는데 반드시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사가 목적의식을 갖지
못하고 방향 감각을 잃는다면 배가 산으로 가도 막을 사람이 없다.

7. 공정성

교사는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해야 하며, 모든 반원들에게 동등한 기
회를 주어야 한다. 때때로 토의가 논쟁으로 발전하여 의견이 팽팽하게 대
립되는 경우가 생길 때에 교사는 분명히 중립을 지켜야 한다. 만일 그렇
지 않으면 어느 한편이 상처를 입게 되어 더 이상의 교과토의가 어렵게 되
거나 반 자체가 와해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교사는 토의의 조정자
역할을 하되 치우침이 없어야 하고, 반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언제나 중
심에 서 있어야 한다.

8. 사교성

교과토의 초반에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고 함께 토의할 수 있
는 화기애애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할 때에 교사의 유머감각이 유용한 경
우가 많다. 또한 토의가 논쟁으로 발전하려 할 때 교사의 쾌활한 말 한 마

다가 상황을 반전시킬 수도 있다. 교사는 교과반의 분위기를 편안하고 유쾌하게 이끌어갈 책임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 자신이 사교성을 배양하며 낙천적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9. 친절

다른 사람이 나에게 비난하는 말을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먼저 흥분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쉽지 않은 일이지만 자신에게 비평하는 말에 대해 좋게 대응하도록 노력하라. 친절하고 온유한 태도는 모든 비평을 물어버린다. 친절은 표정과 어조에 나타난다. 어느 날 젊은 부자 법관이 예수님을 찾아 왔을 때, 그분이 나타내신 태도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시”(막 10:21)라고 성경은 기록한다. 예수님의 표정에 분명히 따뜻함이 묻어났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과 교제하실 때에 최고의 재치와 사려와 친절한 관심을 활용하셨다. 예수께서는 무례하시거나 쓸데없이 가혹한 말씀을 하시거나 민감한 자에게 공연한 고통을 주신 일이 전혀 없으셨다. 그는 인간의 약점을 비난하지 않으셨다.”(시대의 소망, 352)

10. 시간관념

교사는 시간 관리의 달인이 되어야 한다. 우선 주어진 교과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생각 속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교과의 각 부분에 대해 각각 얼마의 시간을 사용할지 미리 계획을 세우고 시간을 분배해 두어야 한다. 대개 서론과 결론은 각각 2~3분이면 족하다. 그리고 본문에서 각 질문에 소요될 시간도 그 중요도에 따라 미리 안배(按配)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토의가 결길로 나가려 할 때에 바로 잡을 수 있는 센스가 교사에게 필요하다.

교과의 내용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 대체로 교과토의 시간을 생산성 있게 활용하기 위해 교사는 전체 시간의 약 1/3만 말하고 나머지 시

간은 학생들이 말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지금까지 교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10가지 자질에 대해 살펴보았다. 안식일학교 교사는 직분이라기보다는 소명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려는 신실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학생들은 교사의 가르침에서 절반을 배우고, 교사의 삶의 모습에서 나머지 절반을 배운다. 나는 어떤 자질을 더 보완해야 될지 자신을 성찰해 보자.

● 성공적인 안식일학교 교사의 10가지 자질

1. 학생들 앞에 설 때는 확신에 찬 모습을 보이라.
2. 학생들의 구원에 책임감을 느끼고 열정적으로 가르치라.
3. 학생들을 개인적으로 알고, 가르치는 교과 내용에 정통하라.
4. 학생들이 교과토의에 참여하도록 질문하고 동기를 유발하라.
5. 모든 답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지 말라.
6. 학습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방향성을 가지고 이끌어라.
7. 모든 반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고 중립성을 잃지 말라.
8. 유머감각을 계발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어라.
9. 분쟁이나 비난에 대해 관용하고 친절로써 일관하라.
10. 토의시간을 잘 안배하고 교과의 핵심을 전달하라.

♣ 교과교수 능력을 향상시키는 법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지 말고 더 향상하기 위해 항상 배우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한다. 교과를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으면 분명히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것을 믿으라. 토의식 교과에 관한 책을 읽고 강습회에 참석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방

법을 시도해 봄으로써 기능을 연마해 나가라.

1.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라.

교사가 가르칠 내용 자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어떤 고차원적인 교수 테크닉도 소용이 없게 된다. 교과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연구 방법이나 개인의 인지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최소한 3시간 이상을 투자해야만 한 주일의 교과를 넉넉히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안식일학교 교사들이 매주 교과를 가르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은 이 제안하는 최소 시간인 3시간의 1/4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참으로 큰 각성이 요구된다. 교사는 5분을 가르치기 위해 1시간을 준비한다는 각오로 철저히 교과 준비를 해야 한다. 이와 같은 비율로 30분을 가르치기 위해 6시간을 준비한다면 누구나 탁월한 교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2. 학습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힘쓰라.

교사가 교과를 잘 가르쳤는지 그렇지 못했는지는 학습 후에 학생들이 얼마나 교과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기억하며, 또 얼마나 철저히 그들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지의 여부로 판단할 수 있다. 학습목표란 교과를 통해 학생들에게서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변화의 모습이라 정의할 수 있다. 그 변화는 가치관의 변화일 수도 있고, 행동의 변화일 수도 있다. 교사가 정한 목표가 구체적일수록 학생들에게서 더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교사가 명확한 목표도 없이 교과를 가르치는 것은 마치 목적지 없이 여행을 떠나는 것과 같고 과녁을 보지 않고 허공을 향해 활시위를 당기는 것과도 같다.

3. 다양한 교수방법을 시도해 보라.

교과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예를 든다면 시청각 교재의 활용, 브레인스토밍, 질의응답, 연구 및 보고, 옆 사람과 의논하기, 역할극, 찬반 토론, 테스트 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강의식 방법만 고집하는 것은 좋지 않다. 새로운 교수 방법을 시도할 때 가르치는 교사 자신도 보람을 느끼지만 배우는 학생들도 큰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게 된다.

4. 학생들의 참여를 권장하라.

토의식 교과와 핵심 단어는 ‘참여’이다. 학생들의 참여가 높을수록 교과 토의는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의견을 피력하고 느낌을 나눔으로써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학습의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적극적인 토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 보아야 한다.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다음 장에서 다룰 것이다.

5. 강목을 작성하라.

교수강목을 작성하는 것은 교수법 향상에 큰 도움을 준다. 교수강목에는 가르칠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고 진행할 방향과 중요한 질문 그리고 강조점이 뚜렷이 나타나 있어야 한다. 잘 정리된 교수강목을 갖는 것은 이미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이나 다름없다. 교수강목에 대해서는 다음에 별도로 다룰 것이다.

♣ 교사의 의견 조율 능력

어떤 면에서 토의란 의견 조율의 과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사물을 똑같이 볼 수 없고, 성정 말씀을 하나같이 해석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견 차이가 생겼을 때, 그것을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교사의 능력이다. 이러한 의견 차

이를 성공적으로 아우르지 못할 때에는 교과토의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리더는 상황에 맞게 의견을 조율하는 능력을 발휘함으로 성숙한 토의를 이끌고 긍정적인 변화의 기회로 만들어야겠다.

| 토의의 과정 |

질문 → 답변 → 이견제시 → ‘의견 조율’ → 만족할 만한 결론

의견의 불일치는 토의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조율하는 것이 토의의 묘미이며 교사의 역량이다. 토의가 논쟁으로 발전하여 불편한 관계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이 교사이다.

‘예방이 최선의 치료’라는 말도 있듯이, 의견의 불일치가 논쟁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모든 반원들은 수용적인 태도(receptive manner), 경청하는 자세(responsive listening), 존중하는 정신(respectful attitude)을 가져야 한다. 엘렌 G. 화잇은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다. “인간이 서로 사귀며 살아가는 데는 자제와 인내와 동정을 행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성질, 습관, 교육 등에서 각자 너무나도 큰 차이를 가졌기 때문에 사물을 보는 방법도 각각 다른 것이다. 우리는 각기 다르게 판단한다. 진리에 대한 이해, 생활 태도에 관한 생각도 모든 점에서 다 일치될 수가 없다. 모든 일에 일일이 그 경험이 같은 두 사람이란 있을 수 없다. 한 사람이 당하는 시련이 다른 한 사람에게는 시련이 아닐 수도 있고, 한 사람에게는 쉬운 의무가 다른 한 사람에게는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일 수도 있다”(안식일학교 사업에 관한 권면, 102).

1. 의견 차이의 유형들

의견 차이가 생기는 것은 교리적인 해석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경우와 일반적인 문제에 대한 견해의 차이에서 생기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이든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조율하는 것이 교사의 임무이다.

(1) 교리적인 해석의 차이

교과토의에서 교리적인 해석의 문제로 의견차가 생길 소지는 언제나 있다. 그러한 의견의 차이는 반원들 간에, 혹은 교사와 어떤 반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다. 교사는 적절한 시점에 개입하여 조율을 시도해야 하며, 의견의 통합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더 이상 논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토의를 종결지은 다음 분위기를 가라앉힐 필요가 있다. 의견의 불일치를 반드시 불쾌한 것으로만 여길 필요는 없다. 오히려 교사는 여유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확일적으로 되지 않고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로 연합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교리적인 문제로 의견의 차이가 생겼을 경우에 교사는 권위주의적으로 선언하듯이 말하지 말아야 한다. 교사는 먼저 반원들이 그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 모든 반원들이 진지하게 고민할 기회를 허용해야 한다.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의 신의 증언에 있으므로 반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거기서 해답을 찾도록 격려해야 한다.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말고 다양한 면들을 면밀히 살피게 한 후에 모든 반원이 만족할 만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 좋다. “이 문제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함께 찾아봅시다.” 반원들이 스스로 더 깊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숙제를 내주거나, 권위 있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조언을 듣기로 하고 마무리 지을 수도 있다.

(2) 일반적인 견해의 차이

성경 교리가 아닌 일반적인 문제로 견해의 차이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것 역시 각자의 배경과 지식과 삶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이다. 생각의 차이는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으며 논쟁으로 격화되지 않을 수 있다.

“안식일학교를 논쟁의 장소로 삼아서는 안 된다. ... 이런 종류의 일은 모두 안식일학교에서 쫓아 버리고 조화를 유지해야 한다. 어떤 사상이 새로운 것이어서 안식일학교 학생들에게 의문시되더라도, 투쟁적인 정신이 일어나게 한다거나 논쟁이 따르게 해서 안 된다.”(안식일학교 사업에 관한 권면, 117)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해는 말하는 사람에게 원인이 있거나 듣는 사람에게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사람은 언제나 자기 입장에서 말하고 듣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것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말하고 들을 수 있다면 문제는 쉽게 풀릴 것이다.

2. 리더의 의견 조율 능력

(1)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라

교사는 각 사람의 의견마다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명백히 잘못 된 것처럼 보이는 주장에 대해서도 부드럽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민감하고 감정적인 요소가 개입된 사안에 대해서는 중립을 지키면서 발언의 기회를 균등하게 주고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때때로 현재의 상황을 말로 적절히 표현해 주면 의견 대립으로 인한 긴장감 해소에 도움이 된다. 교사가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꾸밈 없이 지금의 상황을 묘사하면 반원들은 상황을 조절할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된다. 예를 들어, “박 집사님의 의견은 김 집사님의 의견과 반대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두 분이 우리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른 분들 가운데 더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라고 말할 수 있다. 혹은 교사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것은 저에게 상당히 부담을 주는 개념인데요, 어쨌든 그렇게 말씀해 주

신 정 자매님의 솔직함에 감사드립니다.”

감정을 표현할 때에는 ‘당신’이라는 표현(You-message)을 삼가는 것이 좋다. “당신처럼 고집이 센 사람은 처음 봅니다.” 혹은 “당신은 선입견이 강한 사람이군요.” 등 상대방의 인격을 논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 대신 “제 생각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만 …” 혹은 “저의 소견에는 …” 등과 같이 ‘나’라는 표현(I-message)을 쓰는 것이 좋다. 그리고 얼굴 표정을 비롯한 ‘바디 랭귀지(body language)’가 말로 전달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 주제를 전환하라

논쟁이 격해져서 견잡을 수 없이 과열되려 할 때, 적절한 시점에서 주제를 전환하는 것은 급한 불을 끄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비록 소극적인 방법이지만 효과는 탁월하다. 그러나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남을 경우에는 점심식사 이후라든지 별도의 시간을 약속하고, 그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3) 유머감각

때때로 작은 유머가 분위기를 편안하게 하고 위기를 모면하게 해 준다. 논쟁의 순간에 교사가 사려 깊고 재치 있는 유머를 말함으로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다. 자신들의 모습을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 주는 유머는 반원들로 하여금 좀 더 객관적인 태도를 갖게 해 준다.

(4) 구원하려는 자세

교사가 온화한 태도를 견지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비록 반원들 중에 도전적인 태도로 나오는 이들이 있다 할지라도 교사는 끝까지 차분함을 잃지 말고 더욱 밝은 미소를 얼굴에 머금어야 한다. 교리적으로 그

릇된 주장을 고집하는 반원들이 있다 해도 그를 정죄하지 말고, 구원하고자 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어떤 경우여라도 교사(리더)가 독선적인 태도를 버리고 참고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 준다면 그 사람뿐 아니라 다른 반원들에게도 감동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교과토의 시간은 영적으로 살리는 시간이므로 어떤 고통이 따를지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자세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 **교과토의 시 기억해야 할 5가지**

1. **침묵을 두려워하지 말라.**

교사는 성급하게 말하지 말고 학생들의 대답을 기다려라.

2.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라.**

말하는 사람을 주목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주라.

3. **한 두 사람이 독점하지 말라.**

모든 학생들이 골고루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라.

4. **논쟁을 피하라.**

상대편의 의견을 존중하라. 교사는 중립을 지키라.

5. **토의시간을 안배하라.**

토의 내용에 우선순위를 정하라. 서론과 결론을 짧게 하라.

♣ **교사의 자기 계발**

몇 년 전, 연합회의 위원회 중 하나인 ‘창의적인 안식일학교 운영 위원회’가 개최되었을 때, 분과별 그룹토의 시간에 지방 교회에 출석하는 한 위원이 이런 제안을 했다. 한 기에 한 번씩 교사들이 반을 돌아가면서 가르치는, 일명 ‘교사 로테이션(rotation)제’를 도입하자는 것이었다. 교과반의 학생들은 가만히 있고, 교사들이 매기마다 바뀌는 이 제도를 한시적으로나마

도입하면,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교과 교수 형태를 체험하게 해 주고, 교사들에게는 선의의 경쟁심을 일으켜 질적인 향상을 도모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취지에서였다. 그뿐 아니라 ‘교사 로테이션제’와 함께 교사들이 학생들로부터 평가를 받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많은 논의 끝에, 취지는 좋지만 자칫 불필요한 긴장과 분열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하여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었다. 그러나 교사들은 이러한 제안이 나오게 된 배경을 이해해야만 한다.

현실적으로 교사와 학생간의 수준 차이가 극심한 경우도 종종 있는데, 시골 교회에서 한글을 읽지 못하는 연만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고군분투하는 교사가 있는가 하면, 도시 교회에서 자신보다 훨씬 더 학력이 높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르쳐야 하는 교사도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 교사가 교과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을 때에는 사태가 더욱 심각하여 학생들은 좀 더 유능한 교사에게서 배우고자 하는 갈망을 갖게 된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준비와 자기 계발에 박차를 가해야겠다.

1. 교사로의 부르심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교회에 여러 가지 은사들을 허락하셨다(롬 12:4~8, 고전 12:8~10, 28, 엡 4:11~16, 벧전 4:8~11).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사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자 하심이다(엡 4:12). 이러한 은사들은 효과적인 사역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 봉사 그리고 세상을 향한 선교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성령께서 각 성도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들이다.

성경에 언급된 다양한 은사들 가운데 ‘가르침의 은사’(gift of teaching)가 있다.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자들은 정확한 지식의 전달을 중시하고, 청중의 수준에 맞게 진리를 전달하는 의사소통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들은 성경의 어떤 주제를 다루든지 성령의 교훈을 쉽게 적용하여 전

달한다. 그리고 이들이 영적인 주제를 말할 때에 청중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교사로 임명된 이들은 이와 같은 시금석을 바탕으로 자신이 이와 같은 가르침의 은사를 받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은사에 따라 교회를 섬기면 성장의 기쁨을 맛보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열정보다는 책임감 때문에 일하게 되므로 그 결과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적 삶에 손해를 입힐 수 있다.

2. 훈련과 재교육

아무리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만 훌륭한 교사로 성장할 수 있다. 끊임없이 자신의 은사를 계발하고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교사들은 도전정신을 가지고, 다양한 교수 방법들을 시도해 봄으로써 자신이 가장 잘 응용할 수 있고 가장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이미 입증된 대로, 다양한 교수방법들 중에 토의식 교과 교수법은 가장 탁월한 교수방법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토의식 교수 방법은 끊임없는 훈련과 재교육을 통해 익힐 수 있는데, 이 교수법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질문하는 법, 강목 작성하는 법 등을 익히는 것이 필수적인 조건이다. 교사들은 지역별로 시행되는 교사 강습회에 참석하여 소정의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3. 독서와 연구

교사는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학생들을 이끌기 위해 폭넓고 깊이 있는 지식을 소유해야 한다. 교사는 이를 위해 평소에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독서는 물론이고 사물을 관찰하고 그것을 교과토의에 적용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어느 설교학 교수가 주장했듯이,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 들고 살필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상황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현장에 적용시킬 수 있게 된다.

교사는 깊이 있는 지식을 소유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교과를 가르치기 위해 준비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과 예언의 신의 증언을 살피고 깊이 묵상함으로써 심오한 진리의 금맥을 찾아내야 한다.

4. 영성 계발

안식일학교 교과를 가르친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의 전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교사의 인품과 그의 삶 속에서 풍겨 나오는 그리스도인 향기가 학생들의 가슴에 전달되어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품성에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 교사의 사명은 이처럼 숭고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교사는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아무리 멋진 말로써 교과를 가르쳐도 생활 속에서 언행의 일치를 보이지 않으면 아무런 감화를 끼칠 수 없다. 영성계발을 위해 교사는 말씀과 기도로써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정해 놓아야 한다. 형식이나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주님과 단둘이만 함께 거니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한다. 때로는 고요한 새벽 호숫가에서, 때로는 석양이 물드는 한적한 들판에서, 때로는 햇살이 스며드는 조용한 숲속에서, 때로는 별빛이 쏟아지는 적막한 언덕에서 주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가져야 한다.

♣ 교사 양성의 시급성

안식일학교 교사는 교회의 주요 인적 자산이다. 더 많은 유능한 교사들을 발굴하여 훈련함으로써 미래를 대비하는 일이 시급하다.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자유자재로 토의식 교과를 진행할 수 있는 유능한 교사를 더 많이 확보해야 한다.

안식일학교의 발전은 교사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능한 교사는 학생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그들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끼치는 감화는 참으로 지대하다. 그러므로 교사들은 자신의 감화가 누군가에게 어떤 모양으로든 미치고 있음을 깨닫고, 학생들의 영원한 운명이 자신에 손에 달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고 가르쳐야 한다. “안식일학교 교사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즉 그들은 영혼들을 보살피며 학생들에게 끼치는 감화에 대하여 하나님께 답변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 위치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남녀들이 되어야 한다”(안식일학교 사업에 관한 권면, 61). 참으로 이런 교사들이 절실히 요구된다.

1. 시급한 교사양성의 문제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한국재림교회는 전국적으로 약 4,300개의 안교활동반을 가지고 있다. 안식일 아침마다 전국 각처에서 4,300여 명의 교사들이 일제히 똑같은 교과를 가르친다. 그리고 교과반의 크기나 교사의 가르치는 방식도 천차만별이다. 대체적으로 교과반의 크기는 4~20명으로 다양하며, 최근 들어서는 8명 이내의 반들로 재구성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데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학생의 숫자가 8명이 넘어가면 그룹토의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현재 12명 내외인 반들은 둘로, 20명 내외인 반들은 셋 이상으로 나누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두세 배나 더 많은 교사들이 필요하게 되므로 교사의 양성은 참으로 시급한 문제로 떠오른다. 다시 말해서 반을 쪼개는 일에 앞서 그 반들을 맡아 이끌 수 있는 교사의 양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2. ‘안식일학교 교사 양성과정’

세계 각 지역에서는 안식일학교 교사들의 자질과 능력 향상을 위해 양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연합회 안교·선교부에서는 대총회 산하

‘국제 안식일학교 교사 협의회(International Sabbath School Teacher’s Association)가 승인한 ‘안식일학교 교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교사로 임명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2009년 말 현재 약 3,500명의 교사들이 이미 이 과정을 이수하여 수료증을 받았으며 아직 이수하지 못한 교사들을 위해 이 과정이 계속 개설되고 있다.

다음은 단기 교사양성 과정의 커리큘럼이다. 총 7시간 과정으로, 교육(5시간) 및 독서보고(2시간 이상)로 구성되며, 교육은 주로 강습과 실습으로 이루어진다. 독서과정은 ‘안식일학교 요람,’ ‘안식일학교 사업에 관한 권면,’ ‘토의식 교과교수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선택과목은 각 지역의 필요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과 목	시 간	분 류	과 목	시 간	분 류
토의식교과교수법/실습	2	필수	시청각 교재 활용법	1	선택
교수 강독 작성법	1	필수	창의적인 안교 운영법	1	선택
안교학생 관리법1	1	선택	교사의 영성 개발법	1	선택
예수님의 교수법	1	선택	독서보고(100쪽당 1시간)	2	필수

3. 부교사의 양육과 활용

교사 양성문제는 일차적으로는 정교사뿐 아니라 부교사에게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부교사는 잠재적인 리더로서, 곧 교과반이 반으로 나뉘었을 때 새로운 반을 맡아 이끌어 갈 사람이기 때문이다.

(1) 부교사의 역할

실제 일선교회에서 부교사의 역할은 거의 유명무실한 형편이다. 부교사로 임명된 사람은 1년 내내 실제로 교과를 가르칠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부교사를 두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교과반이 커져서 분반

을 해야 할 때를 대비하는 것이며, 또한 교사가 질병이나 출타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결석할 때에 그 반을 지도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철저하게 훈련받지 않은 부교사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부교사 양육에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부교사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교과반을 가르칠 기회를 갖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리고 손님의 방문 등으로 인해 출석한 교과반원의 수가 10명이 넘을 때에는 ‘반드시’ 반을 둘로 나누어 부교사가 그 중의 한 반을 맡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즉석에서 반을 나누어, 토의할 수 있는 적정 인원으로 만드는 일은 교사의 책임이며, 안식일학교 서기가 모든 반들을 총괄하여 전체를 조정할 책임을 맡고 있다. 그러므로 교사뿐 아니라 부교사도 언제나 가르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잠재적인 리더로서의 부교사

처음에 4~8명으로 구성된 동질그룹의 교과반은 언젠가는 분반을 통해 분기할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빠르게 성장하는 반은 6개월이면 분반할 수 있을 정도로 자라난다. 반을 나누는 적당한 시점은 반원의 숫자가 8~12명으로 늘어났을 때인데, 이때를 위해 이미 새로운 ‘리더’가 양육되어 있어야 한다.

아무리 반원의 숫자가 충분히 늘어났다 할지라도 새로운 반을 이끌어갈 리더가 양육되어 있지 않다면 그 반은 아직 분반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리더를 키우는 일은 반원의 수를 늘여가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이다. 그렇다면 리더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새로운 리더를 키우는 책임은 일차적으로 현재의 리더인 교사에게 있다. 잠재적인 리더인 부교사는 남자여도 좋고 여자여도 상관없다. 나이가 지긋한 사람도 좋고 젊고 박력이 넘치는 사람이어도 괜찮다. 다만 그에게 리더로서의 자질이 있는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교사는 이러한 자질을 갖춘 사람을 발굴하여 잠재적인 리더로 삼는 일

을 가급적 일찍 시작해야 한다. 때때로 안식일학교 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부교사를 임명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부교사가 정해지면 그에게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가르치는 기술을 익힐 기회를 줌으로써 자신의 반이 충분히 커졌을 때, 부교사가 새로운 반을 맡을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한다. 안식일학교 교과반은 번식과 확산이라는 세포분열을 통해 교회성장의 기본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포핵에 해당하는 리더의 양육은 가장 우선되어야 할 필수조건이다. 교회의 실질적인 성장은 이처럼 소그룹과 안교 활동반을 통한 '선교'와 '양육'을 통해 일어날 수 있다.

(3) 예비 교사의 발굴

교회는 은사를 발견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공동체이다. 은사에 따라 봉사할 때 신앙생활은 즐겁고, 교회는 큰 유익을 얻게 된다. 교회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은사 테스트'를 실시하는 것이 좋다. 특히 초신자들에게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게 하고 적재적소에서 봉사하도록 배치해 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은사를 발견하는 방법으로는 '영적 은사를 발견하라'와 같은 설문지를 통한 방법도 있고, 성도들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일해 보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도 있다. 만일 교회에서 어떤 특정한 분야의 일을 맡아 수행할 때 자신이 즐거움을 느끼고, 교회에 실질적인 유익을 끼치며, 또한 다른 교인들도 그의 봉사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거의 확실히 그 분야에 은사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이들이 더 많이 발굴되고 그들에게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능력 있는 교사로 자라나게 하는 것은 참으로 필요하다. 더 많은 예비 교사들이 발굴되고 그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비록 그들의 가르치는 모습이 처음에는 서툴어 보여도 시간이 흐를수록 발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사실상 이들에게 안식일학교의 미래가 달려 있으므로 예비 교사의 발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

♣ 교사회 운영

교사회는 안식일학교 사업의 발전에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사회를 이끄는 안식일학교 교장은 교사회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매주 교사회를 열어야 한다. 교장 자신이 사정상 교사회에 참석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부교장에게 그 임무를 위임하여 반드시 교사회가 개최되도록 주선해야 한다. 교회요람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모든 안식일학교는 매주 교사회를 열어야 한다. 비록 다른 사람이 다음 안식일학교 교과를 가르치도록 위임되어 있을지라도, 교장은 교사회를 책임져야 한다.”(교회요람, 120)

1. 교사회의 참석 대상과 시간

교사회에 참석해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모든 교사와 부교사들이다. 안식일학교 교장은 자신이 교사회를 이끌거나, 교과 내용을 점검하고 토의하는 일을 담임 목회자나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 대체로 담임 목회자가 인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교사회를 언제 개최하며, 얼마의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좋은가? 어떤 안식일학교에서는 안식일 아침 8:30분까지 교사들이 교회에 와서 교사회를 갖고 이어서 안식일학교를 시작하기도 한다. 또 어떤 안식일학교에서는 금요일 저녁 예배 전이나 후에 교사회를 개최한다. 또 어떤 안식일학교에서는 화요 기도회가 끝난 후에 교사회를 개최하기도 한다. 또 어떤 안식일학교에서는 안식일 오후에 모여서 그 다음 주에 있을 교과토의를 위해 교사회를 개최하기도 한다.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어느 것일까? 물론 빠를수록 좋다. 그러면 교사들이 자신의 교수 강목을 여유 있게 미리 준비할 수 있고 묵상하면서 적절한 예화와 질문들을 첨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회마다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특수한 여건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교회요람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교사회를 안식일 이전에 갖게 되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교사들로 하여금 교사회 전후에 개인적으로 연구할 기회를 갖게 함으로 안식일 아침에 갖는 것보다 덜 서두르게 할 것이다”(교회요람, 2009년 개정판, 158). 이 제안에 따르면 교사회를 미리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교사회를 안식일 아침에 갖는 것은 다른 모든 시간이 불가능할 때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다. 아예 교사회를 갖지 않는 것보다는 금요일 저녁이나 안식일 아침이라도 모이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교사회를 위해 얼마의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45분 이상이 적절하나 교회 형편에 따라 조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교사회에서 다루어야 할 일들

교사회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과 토의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하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며, 안식일학교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 의견을 모으는 시간이다. 교회요람은 교사회 시간에 다루어야 할 필수적인 세 가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교사회 시간에 적어도 다음의 세 가지 일을 해야 한다. 그 다음 안식일 교과 연구와, 한두 가지 안식일학교 표준을 살펴보는 일과, 그 외의 주의를 기울여야 할 다른 문제들을 고려해 보는 일이다”(교회요람, 158).

(1) 교과 내용 점검 및 토의

교사회에서 다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다가오는 안식일에 가르칠 교과의 내용을 점검하고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방안들을 의논하는 일이다. 교사들은 교사회에 참석하기 전에 반드시 교과의 내용을 예습해 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사회에서 얻는 유익이 감소될 수밖에 없다. 교사들은 적어도 학생들보다 한 주 정도 교과공부를 앞서 가야 한다.

교사회를 이끄는 인도자는 약 10분에 걸쳐서 이번 주 교과의 핵심 주제

가 무엇인지 짚어 주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해 주어야 한다. 전체 요약 시간이 마치면 참석한 교사들과 부교사들은 그룹으로 나누어 실질적인 토의에 들어가야 한다. 교사회 시간에 실질적인 토의가 이루어지면, 교사들은 학생의 입장에서 교과에 흐름을 파악하게 되고 좀 더 효과적으로 질문들을 작성할 수 있게 되며 효율적인 토의를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얻게 된다. 교사들은 자신이 가르칠 교수 계획안을 서로 나눔으로써 좋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전체적으로 통일해야 할 부분에 대해 조율할 수 있게 된다.

교사회에서부터 토의식으로 진행되는 까닭은 교사가 실제 교과반에서 토의식으로 이끌기 쉽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만일 교사회 참석자의 수가 10명이라면 두 그룹으로 나누는 것이 좋고, 만일 15명이라면 3반 정도로 나누는 것이 좋다. 그룹을 나누어 원형으로 앉은 다음 토의를 이끌 리더를 택하여 진행하도록 하면 된다. 모두가 다 교사이므로 누구나 그룹을 이끌 수 있다.

다음의 권면에 유의하자. “교사 혼자서만 전부 이야기하는 것은 제일 좋은 방법이 못 된다. 교사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교사는 몇 마디 간단하고 요령 있는 이야기나 실례를 들어 교과를 학생들의 마음 깊이 새겨 주어야만 한다.”(안식일 학교 사업에 관한 권면, 115)

교사회는 더 나은 교수 방법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교사회 시간에 교사들의 교수법 향상을 위해 자체적으로 교육하고 훈련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서로의 경험을 발표하고 문제점과 해결책을 함께 논의하면서 향상을 꾀할 수 있다. ‘장년 안식일학교를 위한 토의식 교과 교수법’(찰스 베츠 저)이라는 책은 교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교재로 구성되어 있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2) 안식일학교 표준 검토

각 반별로 할당된 안식일학교 표준들을 검토한다. 반별 출석생 수, 침례

자 현황, 잃은양 찾기, 헌금 등의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표준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안식일학교 활성화를 위한 개선점 검토

안교활동반(Sabbath School Action Unit)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 다가오는 교회 특별 행사는 무엇인지, 잃은양 찾기 운동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총동원 안식일이나 손님의 날 행사는 어떻게 준비되어 가는지 등을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성공적인 교과토의 요리사

- 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배우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시작하라.
- 나) 간절한 기도의 생수를 한 컵 준비하라.
- 다) 하나님의 말씀의 밀가루를 부으라.
- 라) 유머라는 향료를 한 방울 떨어뜨리라.
- 마) 용납과 사랑의 감미료를 뿌리라.
- 바) 성령의 기름을 넣으라.
- 사) 상식이라는 테이블스푼으로 잘 저어 주라.
- 아) 토론의 오븐에 올려놓으라.
- 자) 기억에 남는 적절한 예화나 보조 재료로 장식하라.

☑ 열쇠 4. 질문을 최대한 활용하라

교과를 토의식으로 이끄는 능력은 타고난 재능일 수도 있지만 대체로 배워서 습득하는 기술이다. 피아노나 자전거를 배우듯이 이론 교육과 실습을 통해 익혀나아가는 하나의 기술이다. 교사가 익혀야 할 기술들 중에 가장 유용한 기술은 바로 '질문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을 잘 익혀두면 교

과토의에서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질문의 기술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자.

♣ 크신 교사 예수님

우리의 크신 교사이신 예수께서 사용하신 교수법을 배울 수 있다면 우리에게 유익할 것이다. 그분께서는 다양한 교수방법을 동원하여 사람들을 가르치셨으나, 그분의 대표적인 두 가지 교수 방법은 “비유”와 “질문”이었다.

1. 비유를 통해 가르치심

예수님은 비유를 즐겨 사용하셨다. 복음서의 기자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 하셨”다(마 13:34)고 기록할 정도였다. 비유란 하나의 표상이나 상징 혹은 예화를 말한다. 문자적으로 말하면, 비교를 위해 옆에 나란히 놓은 어떤 것을 의미한다. “비유로 가르치는 일은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 사람들 사이에도 널리 유행되었고 호평을 받고 관심을 끌었다”(실물교훈, 21). 예수께서는 비유를 통해 사람들의 관심을 진리로 돌리시고 그 진리를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 넣으셨다.

2. 질문을 통해 가르치심

예수께서는 비유뿐 아니라 또 하나의 강력한 교수방법을 사용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질문이다. 그분께서는 수많은 질문의 화살을 받기도 하셨지만 사람들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지기도 하셨다. 사복음서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마 16:13)와 같은 표현을 자주 접하게 된다. 크신 교사이신 예수께서는 최선의 교수 방법을 채택하셨는데, 그분은 사려 깊은 질문들을 사용하심으로써 청중을 더욱 높은 차원으로 끌어

올리셨다. 그분은 종종 진리를 발견하도록 질문을 던지심으로 당신의 제자들이 함께 토의하도록 격려했다. 예수께서는 종종, “너희 생각에는 어떠한가?”라고 물으셨다. 그분께서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가르치고자 하셨다. 그분은 이렇게 물으셨다.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마 5:13). 사복음서에는 그분께서 던지신 질문이 무려 200여 개나 나온다. 그분은 질문을 통한 교수법의 효력을 알고 계셨던 것이 분명하다.

“질문은 생각을 자극하고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 현대 교육학의 연구 결과는 학습자의 참여와 행동을 유도한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 매우 바람직한 학습 방법임을 증명한다.”(찰스 베츠, 장년 안식일학교를 위한 토의식 교과 교수법, 132)

훌륭한 교사는 좋은 질문을 던질 줄 아는 사람이다. 좋은 토의가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좋은 질문이 선행되어야 한다. 토의의 중요한 열쇠 중 하나는 바로 질문이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도 즐겨 사용하신 질문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질문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가? 질문을 활용하여 상대방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를 거치게 되는가? 어떤 질문이 효과적인 질문인가? 교사는 질문의 가치를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적어도 질문의 세 가지 유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상황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질문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면서 학생들의 마음을 열 수 있어야 한다.

♣ 질문의 위력

동기부여 세미나의 강사인 도로시 리즈(Dorothy Leeds)는 ‘질문의 7가지 힘’(노혜숙 역, 더난출판, 2002년)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질문을 통해 조직을 변화시킨 자신의 경험을 소개했다. 그녀는 커뮤니케이션 컨설턴트로서 IBM을 포함한 수많은 대기업 간부들을 교육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질

문의 7가지 힘을 소개하였는데, 그녀가 말하는 질문의 힘이란 무엇인가?

- 첫째, 질문을 하면 답이 나온다.
- 둘째, 질문을 하면 생각을 자극한다.
- 셋째, 질문을 하면 정보를 얻는다.
- 넷째, 질문을 하면 주도권을 갖는다.
- 다섯째, 질문을 하면 마음을 열게 한다.
- 여섯째, 질문을 하면 귀를 기울인다.
- 일곱째, 질문에 답하면 스스로 설득이 된다.

일찍이 베이컨(Sir Frances Bacon)은 말하기를, “요령 있게 던진 질문은 이미 절반의 지식을 얻은 것과 같다.”고 하였다.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것은 성경 교수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 토의의 중요한 열쇠이다. 질문이 없이는 토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좋은 질문이 좋은 토의를 이끈다. 학생들로 하여금 더 높은 개념에 도달하게 하고, 진리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질문보다 힘 있는 방법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교사는 학생들이 어떤 ‘사실’(fact)을 넘어서 ‘진리’(truth)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요령 있게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우리는 질문의 가치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질문은 학생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흥미를 일으킨다. 질문을 받은 학생은 침묵을 깨고 토의에 동참하게 된다. 교사가 질문을 잘 던지면 쉽게 학생들의 토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질문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이유는, 질문은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그것을 표현하게 하기 때문이다. 질문을 던진다는 자체가 학습자인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질문을 통해 교사와 학생 사이의 관계가 증진되며 함께 협력하는 학습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교사는 좋은 질문을 던지는 법을 익히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필요가 있다.

♣ 어떤 질문이 좋은 질문인가?

질문에도 무슨 ‘좋은 질문’이 있고 ‘나쁜 질문’이 있겠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질문을 활용해 보면 그 질문의 품격에 따라 학생들의 반응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질문은 학생들의 생각을 자극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학습을 이끌어 가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 그 효과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안식일학교 교사들은 좋은 질문의 특징들을 잘 익혀둬서 질문의 대가들이 되어야겠다.

1. 좋은 질문의 특징들

(1) 단순하고 명료한 질문

묻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이 분명한 질문이 좋은 질문이다. 그래야 학생들이 정확한 대답을 할 수가 있다. 질문 자체가 애매모호하면 결코 좋은 답을 기대할 수 없고, 좋은 토의를 이끌어낼 수 없다.

(2) 학생들이 진지하게 생각하도록 하는 질문

성경과 안식일학교 교과에 근거하여 학생들이 진지하게 답을 찾도록 유도하는 질문은 좋은 질문이다. 차분한 분위기에서 성경의 진리를 탐구하는 교과 시간은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가? 학생들로 하여금 기계적인 대답을 하게 하는 대신 스스로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더 높은 수준에 이르도록 생각을 자극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면 교과토의는 이미 성공을 예약한 것이나 다름없다. 다음과 같은 두 형태의 질문을 서로 비교해 보자.

① 기계적인 질문과 기계적인 답변의 예

질문 :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답 :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② 더 깊은 차원으로 이끄는 깊이 있는 질문과 답변의 예

질문 : “에녹의 생애에 나타난 어떤 특성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 재림성도들에게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답 : “우리가 사는 시대는 너무 분주하고 피상적인 믿음을 갖기 쉬운 시대이므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이미 알고 있는 지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질문

좋은 질문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복습할 뿐 아니라, 새로운 지식의 세계로 이끌어 주는 질문이다. 새로운 통찰력을 발견하고 더 심오하고 광대한 진리에 눈을 뜨게 해 주는 질문이 좋은 질문이다.

(4) 개인적인 간증이 나오게 하는 질문

좋은 질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성경의 진리를 생활 속으로 가져가게 한다. 교사가 좋은 질문을 던지면 학생들은 자신의 삶에서 경험한 간증을 나누게 된다.

(5) 학습 목표로 이끌어 주는 질문

교과토의 시간을 30분으로 본다면, 대략 5~8개의 질문이 필요할 것이다. 단순히 질문을 위한 질문은 의미가 없다. 질문은 학습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인데, 교사는 주어진 주제를 통해 어떤 부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정확히 간파하고 있어야 한다. 학습 목표를 염두에 두고, 본문의 핵심을 심도 있게 토의하게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자.

(6)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한 질문

학습자의 수준은 개인과 그룹에 따라 아주 다양하다. 효과적인 토의 학습이 이루어지려면 가급적 그룹의 구성원들 사이의 수준 차이를 좁히는 것이 중요한데, 이 문제는 반을 편성할 때 이미 고려되어야 한다.

교사는 반원들의 수준을 감지하고 있어야 하며, 특히 질문을 던질 때에는 반원들이 이해할 수 있고 대답할 수 있는 수준의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런데 반원들의 생각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반원들의 평균 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질문을 던져서는 안 된다. 너무나 시시한 것을 묻는 질문은 반원들의 생각을 자극하지 못하고 대답하고자 하는 욕구가 사라지게 만든다. 반대로 질문이 너무 난해하면 답변을 하지 못한다. 반원들의 평균 수준에서 중상(中上) 정도의 질문을 던지는 것이 모두의 생각을 자극하게 할 것이다.

2. 피해야 할 질문의 특징

(1) 단순히 '예' '아니오'로 대답하게 하는 질문

'예' 혹은 '아니오'로 대답하게 하는 그런 형태의 질문은 피해야 한다.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런 형태의 질문은 대답하기가 쉬운 반면에 토의로 진전시키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활발한 토의를 위해서는 가급적 이런 형태의 질문을 피해야 한다.

(2) 단 하나의 답을 기대하면서 하는 질문

이런 형태의 질문은 때때로 학습자를 칸막이 속에 가두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할 수 있다. 가령 “왜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까?” 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질문을 던진 사람은 나름대로 하나의 답을 가지고 있겠지만, 듣는 사람들에게는 애매모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혹시 학습자의 입에서 교사가 원하는 대답이 나온다 할지라도 학습자는 차원 높은 사색을 하지 못한다.

이처럼 학생들로 하여금 교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추측하게 하는 질문을 피하라.

그러므로 교사는 학생들이 점점 더 깊이 개념을 정리할 수 있도록 질문 하여야 하며, 모든 반원들이 함께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예를 들면, “이 사건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품성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까?”라든가, “우리의 아들이었던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변화된 사실을 통해 우리의 삶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어떤 비결을 배울 수 있을까요?”라고 질문하는 것이 좋다.

(3) 진리에 사사로운 의견을 첨가하는 질문

본문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내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견해가 첨가되지 않게 해야 한다.

교사는 반원들 모두가 진지하게 진리의 핵심을 찾으려는 자세를 갖도록 격려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사견을 강요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교과 토의는 설문을 조사하는 작업이 아니고, 진리를 발굴해 내는 과정이다.

(4) 즉흥적인 질문

아무런 계획도 없이 불쑥 내던지는 질문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가끔 즉흥적인 질문 중에도 좋은 질문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다. 좋은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5) 답이 뻔하거나 사소한 질문

학생들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받으면 대답을 못하고, 너무 수준이 낮은 유치한 질문을 받으면 시시해서 대답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비록 쉽고 단순한 질문이라도 대답할 가치가 있는 의미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하고 싶어 한다.

(6) 주제에서 벗어난 질문

교과 토의시간은 매우 짧다. 분위기를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도입 질문(ice-breaking question)을 간단히 던진 다음 곧바로 핵심에 접근할 수 있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주변을 맴돌지 말라.

(7)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묻는 질문

질문의 내용이 너무 복잡하거나 방대한 것은 단순하고 간결한 몇 개의 질문으로 나누어서 한 번에 한 가지씩 대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

(8) 불명확하고 애매한 질문

질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명료성(明瞭性)이다. 무엇을 묻는 말인지 종잡을 수 없는 애매한 질문을 피하고 요점이 명확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9) 결론이 나기 어려운 질문

논쟁의 소지가 많은 주제를 꺼내 놓으면 교과토의 시간은 서로 간에 유익을 얻지 못하고 피차 상처만 입게 될 수도 있다. 교사는 질문할 내용을 지혜롭게 선택하여 함께 풍성한 은혜와 감격을 나누게 해야 한다.

3. 질문 시 권장할 만한 사항

(1) 교사는 스스로 답하지 말고 학생들의 답을 기다리라.

좋은 질문을 던졌으면 교사는 대답을 기다려야 한다. 침묵을 두려워하지 말고,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의 생각을 모을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한다. 침묵은 의사소통의 가장 효과적인 도구 중 하나이다. 그런데 종종 교사들은 생각을 자극하는 좋은 질문을 던지고 나서 서둘러 자신의 생각을 말해버리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좋은 태도가 아니다. 질문을 던진 후에는 학생들의 눈을 바라보며 기다릴 줄 아는 여유가 교사에게 필요하다. 학생

들이 어색해 하며 우물쭈물하는 것을 용납하라. 만약 교사가 침묵을 깨지 않고 기다리면 누군가 곧 대답을 시작할 것이다. 교사가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그 질문에 대답할 만한 반응을 향해 “김 집사님, 뭔가 말씀하실 것이 있는 것 같은데 한 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하고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가급적 개인을 지목하지 말고 모두에게 문을 열어 두는 것이 더 좋다.

(2) 학생으로부터 질문을 받을 때에는 질문의 의도를 생각하라.

때때로 학생들이 교사에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미 자신의 마음 속에 대답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경우도 있다. 통찰력이 있는 교사라면 다음과 같이 물을 수 있다. “지금 하신 질문에 대해 본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사는 종종 ‘이 질문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인가?’ 혹은 ‘더 깊은 문제가 있는가?’ ‘숨겨져 있는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를 자문해 보아야 한다. 교사는 사랑과 관용을 나타냄으로써 학생이 자신의 진정한 문제를 거리낌 없이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한다.

(3) 너무 명백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보다 서술이 더 낫다.

귀납식 학습 방법에 있어서 질문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오로지 질문으로만 구성할 필요는 없다. 교사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 가운데 하나는 너무 명백한 사실을 질문으로 던지는 것이다. 그러면 학생들은 대답하기를 꺼려할 수 있다. 그러므로 너무나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는 질문으로 묻기 보다는 기억에 남을 만한 경구(警句)로 서술해 주는 편이 낫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라고 묻기 보다는 “하나님의 용서의 품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낫다.

(4) 질문의 요지를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때로는 질문의 요지가 명확하지 않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파악하기 어

려운 경우가 있다. 질문이 길어질수록 모호함이 가중되기 쉽다. 질문자는 자신의 머릿속에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를 명확히 정리하고 있어야 한다. 질문의 표현에 있어서도 “...은 무슨 뜻입니까?” “...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혹은 “...에 관한 예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와 같이 명확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한꺼번에 여러 개의 질문을 복합적으로 던지지 말라. 여러 개의 질문을 복합적으로 다루는 하나의 긴 질문보다는 묻고자 하는 요점이 명확한 짧은 몇 개의 질문이 더 낫다. 질문을 짧게 쪼개면 더욱 명료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5) 학생들로 하여금 성경 진리를 생활에 적용하게 하라.

좋은 질문은 학습자로 하여금 스스로 성경을 펼쳐게 만든다. 성경에서 삶의 원리와 기준을 찾고자 하는 열망을 불러일으킨다. “오늘 연구한 본문에서 이번 한 주 동안 실행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입니까?” 혹은 “이 비유와 유사한 현대판 이야기를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까?” 혹은 “오늘날 같으면 예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까?” 이와 같은 질문은 성경에 기초한 사색을 독려할 것이다.

♣ 질문의 3가지 유형

질문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는 ‘예’ 혹은 ‘아니오’로 대답하게 하는 ‘폐쇄형 질문’이고, 둘째는 객관적이고 유일한 정답을 말하게 하는 ‘반개방형 질문’이며, 셋째는 주관적인 다양한 대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개방형 질문’이다. 그러면 질문의 3가지 유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1. 폐쇄형(진위형) 질문

폐쇄형 질문은 “예” 또는 “아니오”로 짧게 끝나는 질문으로서 사실을 확

인하는 형태의 질문이다. 이런 형태의 질문을 폐쇄형 질문이라 한 까닭은 던져진 질문에 대하여 “예” 또는 “아니오”로만 대답하도록 단혀 있기 때문이다. 폐쇄형 질문의 한 가지 장점은 답변자가 깊은 사색 없이도 쉽게 대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질문에 동의하면 “예”, 그렇지 않으면 “아니오”라고 대답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토의식 교과라는 면에서 볼 때 폐쇄형 질문은 학생들의 생각을 자극하지 못하고 대화가 단절되어 버리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쇄형 질문을 토의에서 활용하는 것은 토의 초반부에 던져진 의미 있는 폐쇄형 질문을 통해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고 반원들로 하여금 쉽게 입을 열게 할 수 있다는 유용성 때문이다.

비록 폐쇄형 질문은 “예” 또는 “아니오”로 밖에 대답할 수 없지만 가끔씩 “예”보다는 “아니오”로 대답하게 하는 것이 토의로 전환하는 데 유리하다. 예를 들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유명한 질문을 살펴보면 폐쇄형 질문이 어떻게 토의로 발전해 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 준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은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나?”(창 3:1). 이 질문은 분명히 폐쇄형 질문이다. “예” 혹은 “아니오”로 대답하게 하는 질문이다. 그런데 간교한 뱀은 “예”보다는 “아니오”라는 답을 유도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의 토의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뱀은 알고 있었을까? 뱀의 질문을 받은 여자는 단지 “아니오”로만 대답하고 말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실을 설명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갖게 되었다. 그래서 마침내 뱀이 의도했던 대로 대화에 말려들게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질문의 힘이다. 이것이 바로 상대방을 토의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는 질문의 신비한 능력이다.

우리 교사들도 질문의 위력을 알고 있어야 한다. 질문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생각을 자극하고 더 높은 차원의 진리를 탐구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비록 폐쇄형 질문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토의에 활용할 수 있다.

크신 교사이신 예수께서도 수많은 폐쇄형 질문들을 던지셨는데, 그 중

에 몇 가지를 살펴보자.

예1)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요 5:6)

예2)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요 21:15)

예3)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마 6:25)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와 열망을 자각하게 되고 진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하는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 만일 예수께서 질문을 사용하는 대신 일반적인 서술의 형태로 말씀하셨다면 어땠을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한다.**” 라든가,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라고 하셨다면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질문을 던졌을 때만큼 생각을 자극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2. 반개방형(단답형) 질문

반개방형 질문이란 짧게 정답을 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질문을 말한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시험문제를 출제할 때처럼 단 하나의 정답이 있는 질문이 반개방형 질문이다. 두 개 이상의 정답이 나오면 그것은 반개방형 질문이 아니다. 정확한 단 하나의 정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반개방형 질문이다.

반개방형 질문이 되게 하려면 될 수 있는 대로 범위를 한정해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다윗의 유명한 아들은 누구입니까?**”하면 답이 여러 개 나올 수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지혜로운 아들로서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를 기록한 지혜의 왕은 누구입니까?**”하고 물으면 틀림없이 “**솔로몬**”이라는

유일한 답이 나온다. 반개방형 질문의 장점은 흥미를 끌면서 단편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롭고 활발한 토의로 나아가게 하는 데는 미흡한 점이 있다. 하지만 토의를 위한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개방형 질문도 토의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그러면 예수께서 던지셨던 반개방형 질문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자.

예1) “네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막 5:9)

예2)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나이다”(마 15:34)

이 질문들과 대답에서 보듯이 반개방형 질문은 명백하고 객관적인 사실만을 말하게 하지만 생각을 자극하여 토의의 장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부족한 감이 있다.

3. 개방형 질문(서술형)

개방형 질문은 6하 원칙에 입각하여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말하게 하고 대화의 여지를 남기게 하는 형태의 질문이다. 하나의 정답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에 따라 여러 개의 답이 나올 수 있는 질문이다. 이 질문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이 아니고 견해를 묻는 질문이다. 개방형 질문이 교과토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교사들은 특히 이 유형의 질문을 잘 익혀둘 필요가 있다.

“예수께서는 최선의 교수 방법을 채택하셨다. 그분은 사려 깊은 질문들을 사용하셔서 좀 더 높은 사고를 가지도록 하셨다. 그분은 종종 진리를 발견하도록 인도하는 선택된 주제들에 관하여 당신의 제자들 사이에 토의하도록 격려했다”(찰스 베츠, 장년 안식일학교를 위한 토의식 교과 교수

법, 95). 예수께서 던지신 개방형 질문의 예를 몇 가지 살펴보자.

예1)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마 11:7)

예2)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눅 20:41)

예3)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눅 10:26)

이 질문들에서 보듯이 듣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열려 있는 질문이 개방형 질문이다. 어떤 대답도 하나의 유일한 정답이 될 수 없고, 어떤 대답도 틀린 답은 없다. 각자 자신의 입장에 견해를 말하면 그것이 답이 될 수 있다.

한국 사람들은 답이 딱딱 떨어지는 반개방형의 질문을 선호하는 편이 있어서 여러 개의 답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개방형 질문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개방형 질문이 던져지면 하나의 유일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개방형 질문에서 유일한 대답은 없으며, 또한 틀린 대답도 없다. 모든 대답을 수용할 수 있는 아량이 교사와 학생들에게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토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과정이 될 수 있다.

개방형 질문의 장점은 각자가 자신의 견해와 지식과 경험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을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유형의 질문보다 더 유용하다 할 수 있다. 개방형 질문의 단점은 다양한 대답이 공존하는 가운데 서로 상반되는 생각도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토의에 있어서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는 것은 단지 견해의 다양성을 의미할 뿐이다. 그러므로 나와 생각이 다른 의견을 누가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에게 대한 공격의

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의 의견으로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모두에게 필요하다.

♣ 마음을 여는 질문의 3단계

우리는 질문의 3가지 유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제는 이 세 가지 유형의 질문을 사용하여 학생들의 마음을 열고 입을 열어 토의의 장으로 초대하는 요령을 배워보자.

마음을 여는 질문에는 세 단계가 있다. 이 단계들은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단계들 중 어느 하나를 생략하거나 단계의 순서가 서로 바뀔 경우에는 마음이 열리지 않아 활발한 토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1. 마음을 여는 3단계 질문이란 무엇인가?

(1) 도입 질문(Ice-breaking questions)–서론부

학생들을 토의에 동참시키려면 처음부터 심도 있고 고차원적인 질문을 던져서는 안 된다. 토의의 시작 부분에서는 누구나 쉽게 대답할 수 있고, 자신의 생활이나 경험에서 쉽게 답을 떠올릴 수 있는 편안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한번은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셨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마 16:13).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마 16:14). 제자들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개방형 질문으로 물으셨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마 16:15). 그러자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하였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 16:16).

예수께서는 자신에 대한 제자들의 생각을 물으시기 전에 도입 질문으로서 자신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먼저 말하게 하셨다. 즉 예수께서 이 연속적인 질문들을 던지신 목적은 사람들의 여론을 수렴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제자들의 생각을 확인하고자 하신 것이다. 그 목적에 접근하는 과정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질문을 먼저 도입하신 것이다. 그분의 질문을 유심히 살펴보면 객관적인 사실에서 주관적인 사실로 옮겨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예수께서는 마음을 여는 질문의 단계들을 차근차근히 밟으신 것이다. 그분은 대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먼저 던지심으로 제자들로 하여금 좀 더 개인적인 질문을 받을 준비를 갖추게 하신 것이다.

도입 질문을 흔히 ‘아이스 브레이킹’(Ice-breaking, 얼음을 깨는) 질문이라고 하는데, 이는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고 토의하기에 적합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기 때문이다. 만약 이 단계를 생략해 버리면 마음이 얼어붙어 있는 채로 나아가기 때문에 좀처럼 활발한 토의를 일으키기가 어렵다.

(2) 토의 질문(Discussion questions)-본론부

도입 질문을 통해 마음을 열었으면 본론부에서는 본격적인 토의 질문들을 던져야 한다. 종종 교사들이 도입 질문을 던진 다음 그것으로서 전체 토의 시간을 장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마치 어느 집을 방문하여 거실로 들어가기 전에 현관에서 인사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아예 현관에 자리를 펴고 앉는 격이라 할 수 있다. 도입 질문은 어디까지나 도입을 위한 것이다. 도입 질문이 결코 토의 질문을 대신할 수는 없다. 도입 질문은 토의 질문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이다.

토의 질문은 교과 토의의 몸통이다. 몸통을 생략하고 머리와 꼬리만 두는 토의는 공허한 시간 낭비일 수 있다. 이때 다루어야 할 질문의 내용으

로는, 연구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를 관찰하게 하는 **관찰 질문**(Observation questions), 본문의 의미를 이해하게 하는 **해석 질문**(Interpretation questions), 본문과 성경의 다른 부분들과 연결하게 하는 **상관 질문**(Correlation questions) 등이 있다.

(3) 적용 질문(Application questions)-결론부

마지막 결론부에서는 반드시 생활 속에 적용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가능한 과제나 결심을 유발하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아무리 토의가 잘 이루어지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였다 할지라도 배운 바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많은 지식을 습득해 왔지만 실천이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았다. 그것은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배운 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주지 않으면 한낱 지식에 그치게 되어 좀처럼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실천하지 않는 지식은 죽은 지식이며, 자칫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아는 지식에 비해 실천이 없어 죄책감을 느끼기도 한다. 이제는 실천 없는 많은 지식으로 인해 머리만 크고 손발은 작은 기형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구체적인 적용을 강조할 때이다.

토의 질문에서는 왜(why)라는 질문이 많이 던져지는 반면에 적용 질문에서는 어떻게(how)라는 질문이 많이 던져진다. 새롭게 배우고 습득한 지식을 어떻게 생활 속으로 가져갈 것인가를 고민하게 하는 질문이다. 토의 질문을 통해서만 지적인 충족감을 줄 수 있지만 적용 질문은 의지를 강화시켜 준다. 지식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그리고 가슴에서 손과 발로 옮겨 가야 한다.

2. 예수께서 따르신 3단계 질문법

우리는 질문의 유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것과, 이 세 가지 유형의 질문들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마음을 열고 진리를 탐구하도록 동기를 유

발하게 하는 3단계의 질문법에 대해 배웠다. 즉 **도입** 질문(Ice-breaking questions), **토의** 질문(Discussion questions), **적용** 질문(Application questions)의 단계를 거치면 학생은 자연스럽게 토의에 참여하고 배운 바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 실천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성경에 보면 크신 교사이신 예수께서도 대체로 이러한 단계를 밟아 질문을 던지심으로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으신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마태복음 16장과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는 그 대표적인 예를 발견할 수 있다.

(1) 마태복음 16장의 예

예수께서는 먼저 도입 질문(Ice-breaking question)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셨다.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마 16:13). 이 질문에 대해 제자들은 여기저기서 들은 지식으로 대답을 했다.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마 16:14). 그들의 대답을 다 들으신 예수께서는 핵심적인 질문 즉 토의 질문(Discussion question)을 던지셨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마 16:15). 그분은 객관적인 사실에서 주관적인 사실로 옮겨 가셨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용감하게 대답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 16:16).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대답에 매우 만족해 하시면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삼 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다(마 16:21). 그분께서는 제자들에게 진정한 제자도(弟子道)를 가르치시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마 16:24~25)고 역설하셨다. 그런 다음에 적용 질문(Application question)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셨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

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마 16:26). 예수께서는 마음을 여는 3단계를 완벽하게 따르시면서 진리를 가르치셨던 것이다.

(2) 요한복음 14장의 예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요 14:8)라고 말했을 때 예수께서는 3단계 질문을 던지심으로 응답하셨다.

첫 번째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요 14:9)라는 질문이었다. 빌립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있었으므로, 그분의 진정한 신분에 대해 이제는 바른 이해를 가졌어야 했으나 그렇지 못했다. 이 질문을 던지심으로 예수께서는 빌립으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게 하였다.

예수께서는 그 다음 질문을 던지셨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요 14:9). 이 질문을 통해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자신의 신분에 관한 핵심적인 진리를 다루셨다. 아버지와 하나이신 사실을 중심적인 주제를 이끌어내신 것이다. 이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빌립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제 예수께서는 세 번째 단계인 적용 질문을 다음과 같이 던지셨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요 14:10). 빌립이 가진 문제는 불신의 문제였다. 예수께서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신 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은 신앙에 커다란 차이를 가져올 것이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이미 앞에서 던진 두 질문을 토대로 하여 빌립의 믿음을 촉구하는 질문을 던지신 것이다. 의심을 버리고 믿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적용점인 것이다.

♣ 각 단계의 질문을 만드는 요령

1. '도입 질문'을 만드는 실질적인 방법

이제 각 단계의 질문을 만드는 요령을 익혀보자. 토의를 위한 질문의 3 단계 중 도입 질문이 꼭 필요한 까닭은 이 질문을 통해 학생들의 마음이 열리고 서먹서먹한 분위기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바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토의 질문이 던져지기 전에 반드시 도입 질문이 있어야 한다. 이 질문이 생략되거나 순서가 바뀌면 토의는 활기를 띠기가 어렵다.

'도입 질문'은 토의 참여자들로 하여금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고 함께 그 주제에 집중하도록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한다. 도입 질문은 반드시 토의하고자 하는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상 소재나 경험을 말하게 해야 한다. 도입 질문에는 어떤 패턴이 있는지 살펴보자.

(1) 경험을 묻는 유형

도입 질문에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토의하고자 하는 주제와 모종의 연결점을 갖는 경험이나 지식을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도입 질문이 토의 주제와 연결점을 갖지 않는다면 토의로 전환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도입 질문은 집의 현관과 같아서 거실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지만 너무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현관에서는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신발을 벗은 다음 곧바로 거실로 들어가야 한다.

교사들이 도입 질문과 관련하여 자주 범하는 두 가지 실수는 도입 질문이 현관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도입 질문 자체에 몰두한 나머지 그것으로 토의 시간 대부분을 써버리는 경우와, 반대로 도입 질문을 생략하고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로 뛰어 들어가는 경우이다.

이 두 경우 다 잘못이다. 우리는 현관에 자리를 펴고 앉아서도 안 되며,

신발도 벗지 않고 거실로 돌진해서도 안 된다.

도입 질문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질문의 유형은 경험을 묻는 것이다.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경험을 물을 수 있다.

1) 과거에 그러한 경험을 가진 적이 있는지의 '유무'를 묻는 질문, 2) 특수한 경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묻는 질문, 3) 그와 같은 경험에 대한 자신의 '소감'을 묻는 질문 등이다.

예)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언약에 관하여 공부한다고 가정할 때 도입질문을 어떻게 던져야 할까?

① **경험의 유무를 묻는 질문** : 가령 “금년 여름에 무지개를 본 적이 있습니까?”라고 묻거나 “서울과 같이 공기가 오염된 하늘에도 무지개가 뜰까요?”라고 물으면 된다.

즉 ‘예’ 혹은 ‘아니오’와 같은 비교적 쉽게 대답할 수 있는 폐쇄형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대체로 ‘예’ 혹은 ‘아니오’로 끝나지 않고 좀 더 자세하게 언제 어디서 무지개를 볼 기회를 가졌는지 등 부가적인 설명이 따르게 된다.

② **경험의 내용을 묻는 질문** : “가장 최근에 무지개를 본 때는 언제였습니까?” 또는 “지금까지 본 무지개 가운데 가장 환상적인 무지개를 어디서 보았습니까?” 즉 구체적인 사건의 시간이나 장소 혹은 그 내용을 말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게 할 수 있다.

③ **경험의 소감을 묻는 질문** : “무지개를 보면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릅니까?” 혹은 “혹시 무지개와 관련된 특별한 추억이 없으신가요?” 즉 개방형 질문을 통해 자신의 견해와 사상을 말하도록 이끌어 주는 질문을 하면 된다. 무지개라는 모티브만으로 도입 질문을 만들어 보았으나 비, 홍수, 약

속 등을 모티브로 다양한 도입 질문을 만들 수 있다.

예2)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오는 부활의 소망에 대해 공부한다면 어떻게 도입 질문을 던져야 할까?

① **경험의 유무를 묻는 질문** : 가령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장례식에 참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혹은 “초상집에서 유족들에게 위로할 말을 찾지 못해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까?” 등 일상의 경험을 묻는 도입 질문을 던질 수 있다.

② **경험의 내용을 묻는 질문** :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장례식에서는 주로 무슨 말로 유족들을 위로합니까?” 또는 “지금까지 참석했던 장례식 가운데 가장 감격적인(혹은 가장 우울한) 장례식은 언제였습니까?”

③ **경험의 소감을 묻는 질문** :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장례식과 믿는 사람의 장례식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처럼 부활의 소망을 연구하는 공부를 위해 장례 혹은 죽음을 모티브로 도입 질문들을 만들어 보았다. 그 외에도 소망이나 부활을 소재로 도입 질문들을 만들 수 있다.

개인적인 경험과 관련된 주제로는 어린 시절의 경험,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에서 겪은 경험, 여러 인간관계를 통해 생긴 일들, 신앙생활을 통해 겪은 경험, 생활 속의 크고 작은 에피소드, 개인의 특수한 경험 등 실로 도입 질문의 소재는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시 강조하지만 도입 질문은 반드시 토의할 내용과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토의할 중심 주제와 동떨어진 도입 질문은 표적에서 빗나가는 화살과 같다.

(2) 지식이나 견해를 묻는 질문

도입 질문을 던질 때, 개인의 경험 외에도 지식이나 상식 혹은 견해를 묻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수준이 어떠한지 간에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에 관해 질문을 받으면 대답하고 싶은 의욕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도입 질문에서 지식이나 견해를 묻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지식이나 견해를 물을 때에도 경험을 물을 때와 마찬가지로 폐쇄형, 반개방형, 또는 개방형의 질문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예) 성경의 내용과 천문학적 발견이 서로 일치한다는 사실을 주제로 토의하는 과정에서 별의 개수나 지구에서 다른 별까지의 거리에 관한 논의를 하게 되었다면 도입 질문을 어떻게 던져야 할까?

① **특정 분야에 대한 관심의 유무를 물음** : “천문학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혹은 “밤하늘의 별을 세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반원들의 시선을 토의할 중심 주제로 이끌어 주는 도입 질문을 던지면 좋다.

② **특정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물음** : “허블 망원경으로 관측 가능한 별의 개수는 약 몇 개나 된다고 합니까?” 또는 “천문학에서 거리를 측정하는 단위로서, 빛의 속도로 1년간 달려간 거리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또는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는 몇 km나 됩니까? 소위 말하는 ‘빛의 속도’(光速)로는 얼마나 걸립니까?”

③ **특정 지식에 대한 개인적 소감을 물음** : “천문학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우주에 어림잡아 약 10의 22승(10²²) 개의 별이 있다는 사실에서 당신은 무엇을 느낍니까?” 또는 “최근 활기를 띠고 있는 화성 탐사 프로젝트가 성공하리라고 믿습니까?”

예2)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방문을 받고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세운 일과 관련하여 그리스도인 리더십에 관해 토의한다고 하면 도입 질문을 어떻게 던져야 할까?

① 특정 분야에 대한 관심의 유무를 물음 : “리더십에 관한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또는 “최근에 직장 상사(혹은 다른 리더십)에 대해 불만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② 특정 분야에 대한 세부적 지식을 물음 : “리더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3가지 자질을 말하라면 무엇을 들겠습니까?” 혹은 “조직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서 군대식 지휘체계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혹은 “사업(事業)의 성취와 직원들 간의 인화(人和), 이 둘 중에서 하나를 강조해야 한다면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③ 특정 지식에 대한 개인적 소감을 물음 : “만약 직원이 1,000명 정도 되는 큰 의류 제조회사의 사장으로 부임한다면 어떤 경영 철학을 가지고 회사를 이끌어 가겠습니까?” 또는 “목회자 한 사람이 성도 개개인과 가족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끌어 갈 수 있는 교회의 최대 규모는 몇 명까지라고 생각합니까?”

이상과 같이 개인적인 경험이나 지식을 물음으로써 도입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도입 질문은 토의 주제로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참여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다. 도입 질문은 누구나 쉽게 동참할 수 있는 소재들을 다루기 때문에 비록 교과를 예습해 오지 않은 사람이라 할 지라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 교사는 폐쇄형, 반개방형, 또는 개방형 질문을 자유자재로 활용하여 도입 질문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2. '토의 질문'을 만드는 실질적인 방법

이제는 '토의 질문'을 만드는 요령에 대해 살펴보자. '도입 질문'과 '토의 질문'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

도입 질문이 토의를 위한 기초와 토대라면, 토의 질문은 그 토대 위에 세워지는 건물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도입 질문은 반드시 토의 질문과 연결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알아야 할 한 가지 힌트는 도입 질문을 만들기 전에 먼저 토의 질문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을 토의할지를 먼저 정해야만이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일상의 경험과 지식을 묻는 도입 질문에서 벌써 토의할 주제를 선명하게 암시해 주어야 한다. 교사는 도입 질문을 통해 학습자로 하여금 토의할 내용에 대해 준비하게 해 주어야 한다.

'토의 질문'은 교과와 중심 주제에 대한 각자의 견해를 피력하게 하는 질문이므로 교사 자신이 교과와 중심 주제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간혹 교사들이 '중심 주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토의가 결길로 빗나가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중심 주제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교사가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여 교과와 내용을 소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토의할 내용을 질문으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교사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교사 자신이 설명해 주는 것보다 질문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답하는 것이 훨씬 더 학습 효과가 높기 때문이다. 가르치고 싶은 핵심 내용을 교사의 입으로 말하지 않고 학생들의 입을 통해 말하게 하는 것이 토의 질문을 던지는 포인트이다. 결국 좋은 질문이 좋은 토의를 이끈다.

토의 질문에는 3가지 패턴이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자. 쉬운 질문부터 어려운 질문까지, 얕은 질문부터 깊은 질문까지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예를 들면서 하나씩 차례대로 살펴보자.

(1) 본문에 관한 사실(fact) 혹은 지식을 확인하는 질문

연구하는 본문에 관한 사실(fact)들을 확인하는 질문은 학습자들의 지식 정도를 측정해볼 수 있는 질문이다. 이 유형의 질문에서는 육하원칙(5W1H)의 요소들 가운데 '누가(who), '언제(when), '어디서(when), '무엇(what)이 주로 사용된다.

그런데 이 유형의 질문은 자칫 단답식으로 끝나버림으로써 토의로 발전되지 못할 위험이 있다. 그래서 사실이나 지식을 확인하는 질문을 가지고 활발한 토의를 이끌려면 질문의 형태를 단답형(혹은 반개방형)에서 서술형(혹은 개방형)으로 변형시켜 주는 것이 좋다. 그러면 단답형 질문의 예와 함께 그것을 서술형(혹은 개방형) 질문으로 발전시킨 예를 살펴보자.

예1) Who : 다윗의 아내이며 솔로몬의 어머니인 사람은 누구(who)입니까?

→ 다윗과 솔로몬을 낳은 밋세바와의 부도덕한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이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는 사실(마 1:6)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무엇을 말해 줍니까?

예2) When : 70이레와 2,300주야의 기산점인 예루살렘 중건령은 언제(when) 내려졌습니까?

→ 70이레의 기산점으로 주어진 예루살렘 중건령(단 9:24~25)이 어떻게 2,300주야의 기산점도 됩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예3) Where : 요나가 하나님이 명하신 니느웨로 가지 않고 자기 뜻대로 갔던 도시는 어디(when)입니까?

→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선지자 요나가 왜 정반대편에 위치한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했을까요?

예4) What :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었던 특별한 하늘의 양식은 무엇(what)이었습니까?

→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가 해

뜨기 전 이른 새벽에 내렸다는 사실에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여기서 주목할 것은, ‘무엇’(what)을 묻는 질문이라 할지라도 어떤 ‘특정 대상’이 아니라 ‘이유,’ ‘목적,’ ‘원인,’ ‘결과,’ 혹은 ‘의미’ 등을 물으면 질문 자체가 개방형으로 변한다는 사실이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 1) **원인** :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눈이 빠지고 옥에 갇힌 근본 ‘원인’은 ‘무엇’입니까?
- 2) **결과** :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생긴 즉각적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 3) **이유** :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용하실 때에 피 채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 4) **목적** : 하나님께서 에덴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신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5) **의미** :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어린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던 것의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2) 토의하는 주제의 대한 견해(view)를 묻는 질문

토의하는 주제에 대해 단순한 사실(fact)을 묻는 차원을 넘어 견해(view)를 묻는 질문은 더 깊은 토의를 이끌어 낸다. 여기서는 육하원칙의 요소들 중 ‘왜’(why)와 ‘어떻게’(how)가 주로 사용된다. ‘왜’(why)와 ‘어떻게’(how)가 포함된 질문은 거의 대부분 개방형 질문이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예1) 하나님께서 왜 천지만물을 다 조성하신 후에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예2)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희생을 가납하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

하셨을까요?

예3) 높이 들린 구리뱀을 쳐다보라는 말에 뱀에 물린 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4) 하나님께서는 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지시하셨을까요?

예5) 침례자 요한은 자신과 예수님의 관계를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예6) 성령을 훼방하는 죄는 왜 용서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까?

예7)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께서는 왜 세 번이나 같은 질문을 베드로에게 던지셨을까요?

(3) 교과 내용의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질문

이 형태의 질문은 본문에 관한 사실(fact)과 주제에 대한 견해(view)에 기초하여 종합적으로 분석(analysis)을 하기 때문에 가장 복잡하면서도 심도 있는 토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 형태의 질문은 둘 이상의 여러 인물이나 사건 등을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관계성을 도출해 내고 그 이면의 영적 의미를 발굴해 내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하는 교과 내용의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질문은 가장 고차원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말씀을 깊이 연구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형태의 질문이 된다. 이 질문을 활용하여 토의를 진행하려면 학습자들은 우선 사실(fact)을 인지해야 하며 그 사실에 관한 나름대로의 견해(view)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기초 위에 더욱 깊이 있는 탐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예1) 사무엘하 11:1~5에 나오는 다윗이 타락에 빠진 과정을 3단계로 나누었다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는 죄에 빠지기 전에 어느 단계에서 멈추었어야 했습니까?

예2) 아합과 이세벨은 결국 어떻게 죽었습니까? 이들의 죽음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 예3) 솔로몬이 말한 대로 우매하고 악한 자의 죽음이나 지혜롭고 의로운 자의 죽음은 다 같은 죽음입니까?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예4)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동이 수반되는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면 믿음과 행함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 예5) 인간의 창조와 다른 생물들의 창조 사이에 어떤 특별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 예6) 우리는 구원 받기 위해 순종합니까, 아니면 구원 받았기 때문에 순종합니까? 다시 말해, 순종은 구원의 조건입니까, 결과입니까?
- 예7)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것과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한 것 사이에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토의는 거의 질문과 답변 그리고 답변에 대한 보충이나 반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좋은 토의를 위해서는 좋은 질문이 기본 조건이다. 이 상에서 살펴본 대로 단순히 사실과 지식을 확인하는 질문에서부터, 주제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뿐 아니라, 그 사실과 견해를 종합하여 비교, 분석하는 고차원적인 질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토의 질문은 매우 다양하다. 교사들은 가급적 사실(fact)를 확인하는 질문보다는 견해(view)를 묻는 질문을 하는 편이 낫고, 견해를 묻는 질문보다는 분석(analysis)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낫다. 그렇게 함으로 더욱 활기 있고 깊이 있는 토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다.

3. '적용 질문'을 만드는 실질적인 방법

마지막 적용 단계에서 던지는 '적용 질문'은 토의한 내용에 기초하여 각자의 삶 속에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질문이다. 교과 토의에서 적용이 빠져 버리면 그 공부는 하나의 지식으로만 남아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

지 못한다. 그러므로 적용 질문은 매우 구체적인 행동을 유발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추상적인 결론을 말하는 대신 생활 속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대답하게 해야 한다.

“교과 토의의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 교사 나름대로 할 말이 있겠지만 핵심적인 단어는 ‘변화’이다. 학생들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 이것이 교과 토의의 목적이며 목표점이 되어야 한다. 모든 교사는 교과토의가 단지 성경지식을 쌓거나 말씀 연구를 통한 정신적 만족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말씀 연구를 통해 품성을 성숙시키며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럼에도 많은 경우에 우리의 교과 토의가 교사와 학생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매주 반복되는 교과 공부왜 우리 삶에 확실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그 말씀이 삶 속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말씀이 머릿속의 지식으로 머물고 가슴으로 전해지고 손과 발로 전달되지 않는 한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말씀 연구는 궁극적으로 주님의 품성을 닮아가고자 하는 강력한 동기를 부여해 주어야 한다. 실천하고자 하는 강력한 욕구를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말씀 연구는 무의미한 것이다.

말씀을 적용한다는 것은 기록된 말씀을 ‘지금(now) ‘여기(‘here)에 있는 ‘나(I)와 연결시키는 것이다. 함께 토의한 내용은 과거 성경 시대에 일어났던 ‘그때(then)의 이야기이며, 나와 거리가 먼 팔레스틴 지역에서 일어난 ‘그곳(there)의 이야기이다. 그 옛날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어도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을 영접했는지, 로마로 호송되던 바울이 지중해의 파선 위험 가운데서도 어떻게 믿음을 발휘했는지를 함께 나누었다면 그 사건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알아내고 오늘의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한다.

토의 질문에서는 ‘그때(then)의 일을 다루었다면, 적용 질문에서는 ‘지금(now)의 형편을 다루어야 한다. 토의 질문에서는 ‘그곳(there)의 사건을 말

했다면, 적용 질문에서는 ‘이곳’(here)의 상황을 말해야 한다. 토의 질문에서는 ‘그들’(they)의 경험을 나누었다면, 적용 질문에서는 ‘우리’(we) 혹은 ‘나’(I)의 결심을 나누어야 한다. 이처럼 토의와 적용은 관계가 있으면서도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토의 질문에서는 주로 “왜?”라는 물음이 많이 던져지지만, 적용 질문에서는 “어떻게?”라는 질문이 많이 던져진다. 이제 ‘적용 질문’을 만드는 요령들을 하나씩 배워보자.

(1) 반성과 결심을 촉구하는 질문

행동이 유발되는 것은 마음의 결심에서부터 시작된다. 토의를 통해 인식되고 자각된 사실을 마음의 결심으로 이끄는 방법 중 하나는 반원들이 서로 자신의 결심을 나누는 것이다. 그러한 결심을 나눌 수 있도록 반성과 결심을 촉구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적용 질문의 목적 중 하나이다. 대체로 들은 것은 잊어버리고, 본 것은 기억하며, 말한 것은 실천하게 된다.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의 입으로 발설한 결심은 실천하고자 하는 의욕을 더 고취시킨다. 그러므로 적용 질문은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마음의 결심을 일으키게 하는 질문이어야 한다.

반성과 결심을 촉구하는 질문의 몇 가지 예를 들어 보자.

예1)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창 39:9)라고 말한 요셉의 태도는 오늘 나에게 어떤 결심을 하게 합니까?

예2) 사단은 우리의 감각을 자극함으로 유혹의 손길을 뻗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다음 중 내가 가장 경계해야 할 감각기관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1) 미각 2) 시각 3) 청각 4) 촉각 5) 후각

예3)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마 3:17)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마 4:3)고 말함으로써 예수님의 마음속에 말씀에 대한 의심을 일으키고 기적에 의존하도록 유혹하였습니다. 말씀과 기적이 상반될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택할 수 있을까요?

예4)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듯이 나에게 특별한 재능이나 은사를 주셨다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예5)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벧전 5:7)고 말씀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염려는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주님께 맡기기 원합니까?

예6) 친절할 말 한 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칭찬과 격려의 말을 잘 하는 편입니까, 책망과 비난의 말을 잘 하는 편입니까? 어떤 변화를 결심합니까?

예7) 아무도 영적 간음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자부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으로는 무엇이며, 사랑의 우선순위를 수정할 마음은 없습니까?

(2) 구체적인 실행을 촉구하는 질문

질문을 통해 실행을 촉구하는 것은 그냥 서술적으로 강조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다. 교사가 단지 “여러분도 무엇 무엇을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하면 학생들이 “아멘”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실제 행동으로 옮겨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지만 교사가 던진 적용 질문에 응답하여 학생 자신이 결심하고 실천할 계획을 말하게 한다면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구체적인 실행을 촉구하는 질문은 가장 강력한 형태의 ‘적용 질문’이다. 실행 계획이 구체적이면 구체적인수록 실천 가능성은 높아진다. 그러므로 적용 질문을 만들 때는 좀 더 구체적인 실행이 이루어지도록 질문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손에 잡히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터치해 주어야 한다. 다음은 구체적인 실행을 촉구하는 질문의 몇 가지 예이다.

- 예1) 품성변화는 필생의 사업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나의 품성 가운데서 제일 먼저 고쳐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예2) 나에게 가장 적합한 기도의 장소는 어디이며, 가장 적절한 기도의 시간은 하루 중 언제입니까?
- 예3) 교회에 신앙하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청년이 있다면, 오늘 교과의 내용을 기초로 어떤 조언을 주고 싶습니까?
- 예4)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롬 9:3) 그들을 구원하기 원했습니다. 꼭 전도하고 싶은 친척 세 사람은 누구입니까?
- 예5) 여호사밧은 모압과 암몬의 큰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여호와께 간구한 다음 찬양하는 자들을 앞세워 전쟁터로 나가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찬양의 제사를 드릴지 자신의 계획을 발표해 보겠습니까?

(3) 오랫동안 숙고하게 하는 질문

적용은 반드시 즉각적인 결심을 유도하고 즉시 실행에 옮겨지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되새기며 한동안 고민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 비록 당장의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이 경과한다 할지라도 그 반추의 과정에서 학습자 자신이 씨름하여 얻어낸 결론은 더욱 깊이 있고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결심이 쌓이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주부들이 쇼핑목록에도 없는 물건을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평소에 그 물건에 대한 필요를 느껴왔고 기회가 되면 구입해야겠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물건을 보는 순간 구매 욕구가 강하게 일어나 그것을 사게 되는 것이다. 회사마다 제품

광고에 엄청난 돈을 쏟아 붓는 것은 이러한 심리적 메커니즘 때문이다. 우리 교사들도 학생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도록 결심하게 도와주어야 한다. 때로는 교사가 결심을 강요하는 듯한 인상을 주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학생 스스로가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여운을 남기고 숙고하게 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다.

예1) 나에게 위탁된 영적 은사(혹은 달란트)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점수로 환산한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이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예2)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중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에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1) 배우자 2) 자녀 3) 자신 4) 재산 5) 취미 6) 기타

예3) 예수님의 방법으로 원수를 대하려고 노력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예4) 하나님의 명령 중에서 사소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간과하기 쉬운 것으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5)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여리고 성을 돌았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오늘 나의 앞에 닥친 여리고 성은 무엇이며 어떻게 무너뜨리기를 원합니까?

잘 던져진 적용 질문을 통해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자.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게 하자. 교과를 가르치는 “교사는 질문을 준비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질문을 기록하고 자신의 교수 계획안에 포함시켜야 한다”(찰스 베츠, 장년 안식일학교를 위한 토의식 교과 교수법, 128).

그러나 좋은 질문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많은 연습과 훈

련을 거쳐야 하고 영감과 통찰력을 얻기 위해 크신 교사이신 주님의 발아래 무릎을 꿇어야 한다. 올바른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는 교사 자신이 먼저 진리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올바른 형태의 질문은 학생들로 하여금 배운 사실들을 숙고하게 하고, 결국 어떤 개념에 도달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그런데 만일 교사 자신이 깊이 고민한 끝에 얻은 자신만의 해답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학생들에게 좀 더 의미 있는 질문을 잘 던질 수 있을 것이다”(찰스 베츠, 장년 안식일학교를 위한 토의식 교과 교수법, 18).

토의를 즐기는 10가지 방법

1.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을 품으라.
2. 배움에 대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라.
3. 토의 시에 서로를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라.
4. 교과를 충분히 예습하라.
5. 교과토의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6. 마음의 여유와 유머감각 잃지 말라.
7. 평소에 독서하는 습관을 기르라.
8.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법을 익히라.
9. 배운 바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라.
10. 실천하여 얻은 결과들을 반원들과 나누라.

제4부 | 토의식 교과를 위한 학생의 역할



“안식일학교 학생들은 매주 교과 속에 포함되어 있는 진리의 고귀한 보석들을 열심히 파내고 더할 나위 없는 주의를 기울여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엘렌 G. 화잇, 안식일학교 사업에 관한 권면, 18)

☑ 열쇠 5. 교과 예습률을 높이라

지금까지 활기찬 교과토의를 위한 교사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다. 교사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분량을 할애했다. 학생들이 아무리 교과토의에 참여하고 싶어도 교사가 일방적으로 강의를 해버리면 활기찬 토의는 결코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교과토의 시간은 각자가 집에서 예습해 온 것을 기초로 하여 서로 나누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나눔을 통해 우리의 신앙은 실제로 자라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교사들은 학생들이 교과토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원인이 예습의 부족에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것은 올바른 판단이다. 교사가 아무리 질문을 던지고 학생들의 입을 열려고 해도 토의의 주체인 학생들이 사전 지식의 부족으로 입을 열지 않는다면 활발한 교과토의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 학생들이 침묵하는 이유

어떤 이들은 아직 한국 사람들은 토의 문화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토의식으로 교과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문화의 차이로만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학생들이 토의에 잘 참여하지 못하는 데는 두 가지 주요한 원인이 있다. 첫째는 교사가 일방적으로 강의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참여할 기회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교사의 책임이 크다. 설사 학생들이 토의에 동참할 의사가 있다하더라도 교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혼자서 다 강의해 버리면 학생들은 입을 굳게 다물 수밖에 없다. 특히 이런 경우에 교과 예습을 충실히 해온 학생들은 동참하고 싶은 의욕을 가지고 있으나 참여할 기회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실망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그 학생은 점차 교과시간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되고 급기야는 매우 피동적인 자세로 돌아가 버린다. 그러나 교사가 질문을 던지면서 학생들의 생각을 자극하고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도록 격려한다면 학습 효과는 극대화되고 교과토의 시간은 즐거운 시간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원인은 학생이 교과를 예습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토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다. 사전 지식이 없이 토의에 참여하는 것은 학생에게 불안감을 주기 때문에, 괜히 나서지 말고 조용히 듣기만을 원할 것이다. 예습해 오지 않은 학생들은 질문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토의식으로 교과가 진행되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심지어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다. 이것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중대한 문제이다.

♣ 교과토의와 예습의 관계

예습하지 않은 학생은 토의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침묵으로 일관하려 한다. 괜히 엉뚱한 대답을 하여 창피를 당하기보다는 조용히 있음으로써 자신의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이들의 침묵을 겸양의 미덕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예습을 통해 사전 지식을 갖는 것은 교과토의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된다.

반면에 교과 예습을 해온 학생들은 교사가 던지는 질문에 즐겁게 대답하고 적극적으로 토의에 참여하고 싶어 한다. 교과토의 시간은 비로소 교과 공부를 하는 시간이 아니고, 이미 각자가 집에서 해온 예습을 바탕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임을 명심하자. 교사가 열린 마음으로 반원들과 나눔의 기회를 많이 갖는 것은 예습률을 높이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교사는 공부를 가르치겠다는 강박관념을 버리고, 학생들과 함께 배우겠다는 겸허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안식일학교 교과 예습률은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안식일학교 평균 출석생 가운데 60% 정도만 교과를 소지하고 있으며, 교과를 소지한 사람들 가운데 약 75%만 예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09년 3기말 기말보고 통계). 이것은 안식일학교 전체 출석생의 약 45%만이 교과를 예습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재림교회는 깊이 있는 말씀 연구의 결과로 탄생한 교회이다. 그리고 재림교인들은 스스로 '말씀의 백성'임을 자부해 왔다. 어떠한 핍박과 불이익 앞에서든 말씀대로 살겠다는 신념을 꺾지 않았다. 그런데 말씀 연구에 대한 재림교인들의 열기가 식어가고 있는 것인가? 재림교회의 부흥은 개인적인 말씀연구에서 시작된다. 늦은비 성령의 부으심을 위한 준비도 개인적인 말씀연구에서 시작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서 어떻게 경건의 부흥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많은 사람들은 너무 바빠서 도무지 말씀을 연구할 겨를이 없다고 하소연한다.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을 하고야 만다. 누군가를 만나거나, TV와 신문을 보거나, 운동을 하거나 쇼

핑을 한다.

오늘날은 초스피드 시대이기 때문에 보통의 각오로 시간을 관리해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영적으로 살아 있고 깨어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일 규칙적으로 말씀 연구의 시간을 구별해 놓아야 한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날들은 영생을 위해 준비하도록 주어진 단 한 번의 기회가 아닌가?

♣ 교과를 예습하는 방법

성경통독표의 진도에 따라 성경을 통독하는 것만으로 말씀연구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개인적인 말씀 연구가 실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장 확실하면서도 손쉬운 방법은 매일 교과를 공부하는 것이다. 각자가 스스로 말씀을 펴서 고민하면서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기울일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게 된다.

우리는 마치 광부가 땅 속의 금맥을 찾기 위해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것같이 수고하여야 한다. 등산객이 산의 경치를 구경하듯이 피상적으로 말씀을 연구해서는 유익이 적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교과를 예습할 수 있을까?

1. 말씀 연구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라.

먼저 매일 교과 연구를 위한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말씀연구를 위해 하루 중 특별한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참으로 필요하다. 하루의 시간 중 우리가 말씀 연구에 바치는 시간이 신문이나 TV를 보는 시간에도 못 미친다면 뭔가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최소 1시간 이상은 말씀 연구에 바치자. 그래야만 우리는 말씀에 기초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2. 먼저 숲을 보고, 그 다음에 나무를 보라.

교과 공부의 핵심을 잡기가 어렵다고 느끼는 이들은 먼저 한 과 전체를 훑어보고 중심 주제가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식일 이후에 안식일학교 교과를 펴고 밑줄을 그으면서 끝까지 한번 쪽 읽어 나가는 것은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밑줄을 그어두면, 내용을 다시 훑어볼 때에 쉽게 요지를 파악하게 해 준다. 이 단계에서는 세세한 나무를 보려고 하지 말고, 전체 숲을 보려고 노력해야 한다.

3. 각 요일별 핵심을 자신의 말로 적어보라.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중요한 일은, 각 질문에 답을 적으면서, 각 요일별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는 일이다. 학습도우미에 나오는 길잡이를 참조하거나 때로는 '교훈'에 나오는 내용을 참조하여 자신의 말로 정리해 보는 것이다. 매 요일 소제목 위나 아래의 여백에 각 요일의 핵심을 짧게나마 적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각 요일별 공부를 하기 위해 어떤 이들은 새벽 시간이 적합할 것이고, 어떤 가정에서는 저녁예배 시간을 교과토의로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가족들이 함께 둘러 앉아 함께 말씀을 연구하는 광경은 얼마나 행복한 모습인가!

4. '토의를 위한 질문'에 답하면서 토의를 준비하라.

'토의를 위한 질문'에 답을 달면서 자신의 경험도 적어보고,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메모하며, 난해한 내용이 나오면, 성경과 예언의 신의 증언들을 비롯한 여러 가지 참고 자료들을 활용해서 답을 찾아보고, 그래도 답을 찾지 못하면 교과 토의 시간에 질문할 내용으로 표시해 둔다.

5. 자신의 결심과 실천할 내용을 적어보라.

앞에서도 강조했지만,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삶의

변화이다. 성경 지식을 쌓는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한 주일에 한 가지라도 꼭 실천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백문(百聞)이 불여일견(不如一見)이요, 백견(百見)이 불여일천(不如一踐)이다.” 백 번 보고 듣는 것보다 한 번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 교과 예습률을 높이는 법

교과 예습이 없이는 활기찬 토의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사들은 자신이 맡은 반의 예습률을 높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1. 예습을 하지 않는 학생들

교과 공부를 해오지 않는 학생들을 보며 교사들은 답답함을 느낀다. 교사들이 아무리 예습을 강조해도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세속적 사물에 대한 관심이 그들의 영적 사물에 대한 갈망을 삼켜버린 듯이 보인다. 그들은 너무 바빠서 책을 들여다 볼 시간이 없다고 말한다. 화잇 선지자의 권면에 귀를 기울여 보자. “시간 부족을 핑계로 안식일학교 교과를 공부하지 않는 자녀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이 이 일에 흥미를 가졌다면 그들의 교과를 공부할 시간을 발견하지 못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오락과 관광으로 시간을 보낸다. 다른 이들은 과시하기 위해 불필요하게 그들의 옷을 장식하는 데 시간을 씀으로 교만과 허영을 키우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방탕하게 써 버린 소중한 시간들은 하나님의 시간이다. 이에 대해 그들은 하나님께 계산을 해야 한다. 불필요한 장식과 오락, 한담으로 허비한 시간들은 모든 일들과 더불어 심판대에 오를 것이다.”(교회증언, 3권, 189)

학생들로 하여금 교과 공부에 맛을 들이게 하는 비결은 없을까? 그들로

하여금 세속적인 것에서 돌이켜 영적인 사물에 열성을 내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오늘날 세속화의 거센 물줄기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관심을 말씀으로 되돌리는 일은 불가능한 것인가?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낚시를 가기 위해 이른 새벽에 일어나 어둠을 뚫고 낚시터로 향한다. 왜 그런가? 낚시하는 일이 그에게는 더할 수 없는 즐거움이기 때문이다. 만일 안식일학교 학생들이 교과를 통해 하나님 말씀의 달콤한 맛을 보게 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는가? 교과토의 시간에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답답해하던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 받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토의식 교과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만 하면 교과시간은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이다. 식사를 한 끼 거르고라도 교과 예습을 하고자 할 것이다.

2. 예습률을 향상시키는 법

어떻게 하면 학생들로 하여금 교과 공부에 대해 필요와 흥미를 일으킬 수 있을까?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교과토의 시간을 진행하는 방식을 바꾸고 모든 사람이 즐겁게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다면 예습률은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된다.

강의식 교수 방식은 학생들로 하여금 예습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게 한다. 교사가 주입식으로 강의를 할 경우, 학생들은 굳이 예습을 해오지 않아도 그냥 앉아서 듣는 데는 별 어려움을 느끼지 못한다.

예습을 통해 신앙의 간증과 새롭게 깨달은 지식을 나누기를 기대하는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실망감을 느끼게 하고 예습의 의지를 꺾어 놓을 수도 있다. 더욱 심한 경우는, 교사가 교과에의 내용과 상관없는 엉뚱한 내용으로 소중한 교과토의 시간을 낭비해 버릴 때, 교사에 대한 불만은 고조되고 교과 시간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면서 교과 공부에 대한 흥미를 점차 잃게 되고 마침내 신앙의 침체를 경험하게 된다. 이 책임을 누가 져야 하겠는가? 만약 이런 일이 수십 년 동안 반복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학생들

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타성에 젖게 되고 일방적인 강의를 통해 교사가 넣어 주는 대로 받아먹기만 하려는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게 된다.

이제는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학생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 그래서 학생들로 하여금 교과를 예습하고 싶도록 필요성을 느끼게 해 주어야 한다.

과거에 비해 학생들의 학력 수준과 토의 능력이 많이 향상되었다. 학생들은 참여를 원하고 있다. 학생들은 자신이 공부한 바를 나누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이제는 강의식 교수법 대신에 토의식 교과 교수법으로 전환해야 한다.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개념이 아니라 함께 배운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토의의 장(場)으로 불러들임으로 흥미롭고 보람 있는 배움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실제로 대전에 있는 모 교회는 모든 교과반들이 강의식에서 토의식으로 교수 방법을 전환하면서 모든 반원이 교과를 소지하고 예습률도 95%를 넘게 된 사례가 있다. 물론 처음에는 강의식 교과에 익숙해 있던 학생들이 교사들의 질문 공세와 계속 주어지는 발언의 기회에 당황스러워 하고 회피하는 경향도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학생들은 점차 적응해 갔고, 마침내는 질문의 화살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예습을 해와야겠다는 분위기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교과 예습률을 높이기 원한다면, 교사들은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교과 토의의 장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그러면 머지않아 예습률이 현저히 향상되면서 활발한 토의가 살아날 것이다. 꾸준히 노력한다면 한 달 내지 한 기 안에 예습률의 현저한 향상과 열띤 토의의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3. 예습률 향상을 위한 팁들

(1) 다음 주 교과를 예고해 주라.

교과 토의가 마칠 무렵에 교사는 다음 주 교과를 미리 예고해 주는 것

이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다음 주 교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 주고 예습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해 준다. 다음 주 교과를 예고해 주려면 교사는 그 다음 주 교과의 내용까지도 알고 있어야 하며, 적어도 중심 사상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교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다음 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 공부할 것인데, 교과에 소개되는 각 비유의 공통적인 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함께 토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2) 과제를 내주라.

반 전체나 팀별, 혹은 개인들에게 과제를 내줄 수 있다. 과제의 내용과 참고 자료를 알려주고, 투자할 시간의 양을 말해 줌으로 과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다음 주에는 베드로와 유다에 대해서 연구할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가졌던 공통적인 기회 3가지와 그 기회에 대한 이들의 반응에 있어서 중요한 차이점 3가지가 무엇인지 조사해 오시기 바랍니다. 참고할 자료는 마태복음 26장과 요한복음 12장과 13장 그리고 시대의 소망 712~722쪽입니다.”

학생들이 반가워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숙제다.

그러나 숙제를 내주는 일은 학습 효과에 크게 도움을 준다는 사실이 오랜 역사를 통해 입증되어왔다. 숙제를 통해 학생들은 안식일학교에서 습득한 지식을 실지로 적용할 수 있고, 다음 학습을 위해 준비를 갖추게 된다. 숙제를 내줄 때 교사들이 주의할 점은, 매우 구체적으로 과제를 부여해야 하고, 반드시 점검을 해야 한다. 좋은 숙제는 개인차를 고려한 개별적인 과제이다. 이 일이 쉽지는 않지만, 반원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만은 아닐 것이다.

과제의 형태도 여러 가지이다. 교과와 관련하여 내줄 수 있는 숙제의 몇 가지 견본들을 살펴보자.

(1) 이번 주 교과에서 배운 내용 실천하기(예: 가족들에게 매일 1번 이상

사랑한다고 말로 표현하기, 하루 3번 기도의 시간 갖기, 한 주일 동안 전도지 20장 이상 전하기 등), (2) 다음 주에 배울 내용 중 난해한 문제 찾아오기, (3) 특정한 낱말의 의미 연구해 오기, (4) 관련 성경절 조사해 오기, (5) 성경 인물 조사해 오기, (6) 성경절 암송하기, (7) 어떤 이슈에 대해 몇 명과 인터뷰하기, (8) 기도문 작성해 오기, (9) 어떤 논쟁점에 대한 자신의 의견 진술하기, (10) 사례 조사하기, (11) 교과와 관련된 어떤 사회적 이슈에 대해 인터넷에서 검색해 오기, (12) 어떤 문제점에 대한 원인 분석 및 해결책 찾아오기, (13) 어떤 방식에 대한 장점과 단점 분석하기, (14) 인물들이나 사건들의 공통점 또는 차이점 발견하기, (15) 교과와 관련된 어떤 물건 구입해 오기 등을 들 수 있다.

(3)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오게 하라.

과제를 내주는 것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학생들을 교과토의에 동참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토의할 질문들을 미리 주는 것이다. 교사는 다음 주에 토의할 질문들을 미리 뽑아서 학생들로 하여금 답을 생각해 오게 함으로 좀 더 쉽게 그들을 토의에 끌어들이 수 있다. 교과에 나오는 토의를 위한 질문 중에서 4~5개의 좋은 토의 질문을 선별하여 각 반원들에게 복사해서 나누어 주라. 그러면 분명한 차이점을 느끼게 될 것이다.

한 가지 예로 다음과 같은 토의 질문을 미리 준다면 매우 흥미로운 것이다. “다음 주에 우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교과 토의를 할 것입니다. 여기 제 손에는 꺾이 하나 들려 있습니다. 이렇게 꺾이의 껍질을 벗길 때 여러분은 잘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꺾이의 색깔, 구조, 배열, 영양소, 맛 등을 자세히 관찰하십시오. 다음 주 교과가 시작될 때 저는 도입 질문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교회는 꺾이와 어떤 면에서 흡사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자신만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나누도록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또는 어떤 문제에 대해 찬성하는지 혹은 반대하는지를 묻고 그 이유를

조사해 오게 한다. 어떤 견해나 신조를 지지하는 여부를 묻고 그 문제에 관한 답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오도록 하는 것은, 곧바로 토의로 이어지게 하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미덕 가운데 ‘정직’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선의의 거짓말(white lie)은 해도 괜찮은가?’라는 질문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 이유와 근거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역시 그 이유와 근거를 정리해 오십시오.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반드시 성경과 예언의 신에서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4) 테스트

한 주 전에 교과퀴즈를 미리 예고하고, 교과토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간단한 퀴즈를 볼 수 있다. 반원들에게 백지를 나눠 주고 답을 적게 하면 된다. 문제 유형은 진위형(O, X), 선다형, 단답형 등으로 낼 수 있으며, 다 맞힌 반원에게 시상할 수 있도록 상품(혹은 상품교환권)을 제시할 수도 있다. “다음 주에는 다니엘서 7장을 공부합니다. 교과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한 퀴즈를 보겠으니 각 짐승들이 상징하는 나라들과 연대들 그리고 특히 작은 뿔의 특징에 대해 예습해 오기 바랍니다. 만점을 맞는 모든 분들에게는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 열쇠 6. 학생들의 참여를 허용하라

♣ 교과토의의 초보와 고수

교과토의를 시도하는 단계에서는 주로 교사가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형태를 띠게 된다. 그러면 학생들은 교사의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토의가 진행된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교과토의는 초보 단계에 불과하다.

한 차원 높은 단계의 교과토의는 학생들의 입에서 질문이 나올 때 비로소 시작된다. 교사가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학생들이 던지는 질문이 토의의 화두가 될 때 교과토의는 향상의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학생이 연습하는 과정에서 생긴 궁금증을 교사에게 물을 수 있다는 것은 토의식 교과에 있어서 아주 좋은 신호인 것이다.

그러나 가장 높은 차원의 교과토의에는 질문자나 답변자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누구나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고 대답할 수 있다. 이것은 무질서함이 아니요 자연스러움이다. 교사이기 때문에, 혹은 학생이기 때문에 어떤 제약을 가져서는 안 된다. 모두가 참여하고 서로에게서 배우며 함께 자라가는 것이다. 이러한 토의의 과정에서 체계를 유지하고 빠진 부분을 보충하며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조정하는 사람이 교사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높은 수준의 교과토의를 꿈꾼다. 그것은 불가능한 꿈인가? 그렇지 않다. 교사가 토의를 위해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학생들이 충실한 연습을 바탕으로 토의에 적극 참여하기만 하면 그 꿈을 어렵지 않게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 최대의 학습 효과

토의식 교과 교수법은 가르치는 이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교수법’이라기 보다는, 배우는 이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학습법’이라 할 수 있다. 교사가 얼마나 잘 가르쳤느냐가 평가의 기준이 아니고 학생이 그것을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가 판단의 관건이다. 교사가 아무리 훌륭한 강의를 했다하더라도 학생들이 집중하지 못하고 딴 생각을 하게 되었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잘 가르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즉 학생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의 참여를 끌어내어 학습 효과를 높이는 것이 참으로 훌륭한 교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교사가 학생들보다 더 큰 지적, 영적 분량을 가지고 있겠지만 교사 한 사람의 지식과 경험에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같은 교사 밑에서 몇 년 동안 매주 교과를 배우다 보면 그 한계가 더욱 명확히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학생의 참여는 매우 요긴한데, 때때로 교사의 편중되기 쉬운 사상에 균형감을 갖게 해 주고, 다양하고 폭넓은 경험을 나눴으로써 함께 성장할 수 있게 해 준다.

인도에서 여러 장님들이 코끼리를 만져보고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쳤다는 이야기처럼, 비록 교사가 넓은 면을 발견하고 코끼리는 벽과 같다(옆구리)고 말할지라도, 반원들 중에 코끼리는 창과 같다(상아), 뱀과 같다(코), 나무와 같다(다리), 부채와 같다(귀), 밧줄과 같다(꼬리)고 하는 의견들이 종합될 때 비로소 완전한 개념이 정립될 수 있는 것이다. 토의식 교과 교수법은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의미를 부여하며, 흩어져 있는 생각의 구슬들을 한 데 꿰어서 보석을 만드는 과정이라 하겠다.

토의식 교과 교수법을 귀납식 교수법(inductive teaching)이라고 하는 까닭은 어떤 주어진 결론을 해석하는 방식(연역법)이 아닌 모든 학생과 교사의 참여로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결론을 함께 도출해 내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귀납식 교수법에서는 교사도 배우는 자가 될 수 있고, 학생도 가르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교수법이든지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학습 효과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안임을 기억해야 한다. 학습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수많은 교육학적 연구가 있어왔다. 그중에 한 가지 유명한 실험이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교에서 실시되었는데, 이 실험으로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을수록 학습의 효과가 증대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실험은 평균 수준의 학생들을 네 그룹으로 나눈 다음 각각의 그룹에게 서로 다른 교수법으로 가르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그룹에게는 오로지 말로 설명하는(oral presentation) 방식으로 가르쳤는데, 결과적으로 약 20%의 학습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두 번째 그룹은 들려줄

뿐만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 자료를 활용하였는데, 학습 효과는 약 50%로 나타났다. 세 번째 그룹은 앞의 두 가지 방식에 더하여 학생 본인이 필기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게 하였는데, 학습 효과는 약 70%로 나타났다. 마지막 그룹은 이상의 세 가지 방법뿐 아니라 그 내용으로 함께 토의하고 발표하게 하는 방식을 취하였는데, 놀랍게도 학습 효과는 90% 이상이나 되었다. 다시 말하면, 수동적으로 듣는 강의보다는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일수록 학습 효과는 높아진다는 것이다. 학생들로 하여금 삶 속에서 실천하고 싶도록 동기를 유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교수법이라 할 수 있다.

요즘 교육계에서도 ‘교수법’이라는 말 대신에 ‘학습법’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가르치는 교사 중심의 방식에서 배우는 학생 중심의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우리 안식일학교에서도 좀 더 효과적인 교수방법으로 신속히 전환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 학생들을 토의에 참여시키는 방안들

1. 토의할 수 있는 분위기의 조성

한국 사람들은 아직까지 토의에 익숙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토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일이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 분위기 조성이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환경적 분위기와 심리적 분위기이다.

첫째, 환경적 분위기 조성은 반원들이 원형으로 둘러앉아, 화기에애한 분위기 가운데서 누구나 입을 열고 의견을 말할 수 있는 형태를 말한다. 이때 인원이 너무 많으면 우선 산만하고, 분위기가 경직되기 쉬우며, 말을 꺼내기가 부담스러워지는 경우가 생긴다. 누구나 마음을 열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교사를 포함하여 6명 정도로 반을 편성하고 가급적 동그렇게 둘러앉아서 가족적인 오붓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 좋다.

둘째, 심리적 분위기 조성은 학생들로 하여금 토의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교사는 학생들이 서로 격려하는 마음을 갖도록 이끌어 주어야 하며,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독려해야 한다. 특히 도입부에서는 토의를 위한 심리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는 '도입 질문'(ice-breaking question)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도입 질문은 토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워밍업' 혹은 토의로 유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학생들의 마음을 여는 데 성공하면 토의의 성공 가능성은 훨씬 높아진다.

2. 적절한 질문을 통한 동기 유발

일상 대화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교과토의에서는 질문과 답변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토의는 고도의 심리적 양상을 띤 질문과 답변의 연속이라 할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이 알고 있는 어떤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으므로, 적절한 난이도를 가진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면 누구나 대답하는 일에 적극성을 띠게 된다. 그러므로 좋은 질문은 좋은 토의의 필수조건이다.

토의식 교과의 핵심은 교사 자신이 설명하고자 하는 바를 학생이 스스로 설명하도록 질문을 통해 유도하는 것이라고 앞에서 설명한 바 있다.

(1) 폐쇄형 질문보다는 개방형 질문이 낫다.

도입 질문을 통해 반원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 열리고 토의에 열기가 더해 가면, 본격적인 토의에 돌입해야 한다. 이때 단순히 '예,' '아니오'로 답하게 하는 폐쇄형 질문보다는 자신의 견해를 말하게 하는 개방형 질문이 더 효과적이다. 학생들은 참여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견해나 경험을 묻는 질문을 기다린다.

질문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질문을 던지려면 먼저 교사가 교과의 핵심을 파악하고, 토의할 수 있는 이슈를 발굴해내

고, 치밀하고도 정곡을 찌르는 질문을 만들어 토의를 유발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되려면 그 주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말씀과 더불어 씨름하는 가운데 철저한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교과에 실려 있는 ‘토의를 위한 질문’을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2) 삶의 경험과 직접 관련된 질문을 많이 던지라.

토의의 목적은 ‘말 잔치’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성경 지식을 쌓거나, 새로운 사실을 배우는 것 자체가 교과토의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 교과를 통해 삶의 의미와 목적에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태도가 바뀌며, 실천적인 결실을 맺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

본문을 토의하는 본론부에서는 지식적인 질문들이 주로 던져지겠지만, 적용하는 결론부에서는 경험적인 질문을 많이 던지는 것이 좋다. 실천을 촉구하는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 학생들로 하여금 배운 내용을 실천하게 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동참의 방법이 어디 있겠는가? 이 점에 있어서 결론부에 던져지는 ‘적용 질문(application question)’은 대단히 중요하다.

3. 토의에 참여시키는 그 외의 방법들

교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방법들을 익히 알고 있어야 한다. 다음에 제안하는 다양한 방법들 중 한 가지라도 활용해보면 그 결과에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이다.

학생들로 하여금 토의에 참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드는 비결은 무엇일까? 다음은 찰스 베즈가 쓴 <장년교과를 위한 토의식 교과 교수법>(한국연합회 선교부, 2004년, 104~113)에서 골라낸 몇 가지 방법들이다.

- ① 질의응답 – 학생들에게 미리 질문을 주거나 혹은 즉석에서 질문을 던짐으로 함께 토의하는 방법이다. 질의응답의 성공여부는 질문의 수준에 달려 있다.

- ② 과제발표 - 한 사람이나 반원 전체에게 교과와 관련된 서적이나 성경의 특정 범위를 미리 읽고 요약하게 한 다음 발표하게 하여 그것을 기초로 토의한다.
- ③ 전문가 대담 - 교과의 주제와 관련하여 그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고 10분 정도 인터뷰를 가진 다음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학생들의 깨달은 점과 반응을 나누면서 토의한다.
- ④ 공개토론 - 세 명 정도의 학생이 교과의 중심 내용을 간단하게 발표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발표자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토의를 한다.
- ⑤ 강의토론 - 전반부에 한 사람(교사)이 전체 내용을 강의한 후에 나머지 시간에는 함께 토의하는 방식이다.
- ⑥ 그룹토의 - 하나의 그룹 안에서 두 명 혹은 세 명씩 짝을 지어 주어진 문제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서로 토의하고 발표하는 형식이다.
- ⑦ 교과퀴즈 - 교과를 시작하기 전에 퀴즈를 준비하여 맞추도록 하면 참여를 높일 수 있다.
- ⑧ 상황제시 - 교과와 관련된 어떤 문제에 대해 가상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숙고한 다음 발표하고 토의하게 한다.
- ⑨ 이 밖에도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역할극(Role Play) 등의 방법을 활용함으로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겠다.

♣ 토의 시 직면하는 문제들과 해결법

토의식으로 교과를 진행하다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에 직면할 수 있는데 그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법을 미리 알아 두는 것이 좋다.

1. 대화를 독점하는 사람을 다루는 법

대화의 독점자를 다루는 법에 대해서는 앞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깊이 다루지 않겠다. 토의식 교과과 장점은 참여에 있다. 그러나 한 두 사람만이 대화를 독점해 버리고 나머지는 침묵을 지킨다면 강의식 교과보다 더 나을 바가 없다. 참여는 모든 반원들의 동참을 의미한다. 모든 반원들에게 골고루 기회를 주고 함께 참여하게 하는 것이 교사의 역량이다. 기타를 연주할 때 여섯 개의 줄 가운데 한두 개만 튜닝이 되어 있고, 나머지 줄들은 느슨하다면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나올 수 없는 것이다. 교사는 독점하는 사람의 말을 재치 있게 끊을 수 있어야 한다.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를 줄 수 있는 규칙을 반원들 간에 정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시간마다 같은 반원이 대화를 독점하려고 할 때에는 조용히 개인적으로 만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다.

2. 논쟁의 여지가 있는 주제를 다루는 법

토의 시 종종 발생하는 문제점 중의 하나는 토의가 논쟁으로 치닫는 것이다. 토의와 논쟁은 전혀 성질이 다르다. 토의가 논쟁으로 비화되는 경우는 대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마음의 결여에서 비롯된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게 되면 비록 나의 의견과 반대가 된다 할지라도 화를 내지 않게 될 것이다. 유대인들은 10명이 모이면 10가지의 서로 다른 의견이 제시되지만 한국 사람들은 100명이 모여도 의견이 둘로 나뉜다는 말이 있다. 흑백 논리에 강한 한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꼬집는 말이다. 물론 토의를 하다보면 의견이 나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럴 경우에 교사는 지혜롭게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 중재자로서 중립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다.

3. 어려운 질문을 다루는 법

교과토의 시간에 학생이 너무 어려운 질문을 던져 난처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그런 경우에는 다음의 7가지 방법 중 한두 가지를 적절히 골라 대처하면 된다.

(1) 시인

교사는 자신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하고,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모른다고 답하면 된다.

(2) 반문

대체로 어려운 질문을 던진 사람은 자기 자신이 그 답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교사는 혹시 질문자가 그 답을 알고 있지는 않은지 반문해 보는 것이 좋다.

(3) 질문

교사는 답을 모르지만 다른 학생들 중에서 답을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질문을 학생들에게 되물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

(4) 약속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면 대답을 연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교사가 이 문제를 연구해서 다음 시간까지 알려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이다.

(5) 초빙

가능하다면 담임목사나 그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답변을 듣자고 제안하면 학생들은 좋아할 것이다. 지금 당장 그렇게 못하더라도 기회를 만들면 되는 것이다.

(6) 숙제

이 방법은 좀 고약한 방법이긴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매우 좋은 방법이

다. 그 질문의 해답을 학생들이 찾아오도록 숙제를 내주고 다음 시간에 점검하면 좋은 해답을 얻을 수도 있다.

(7) 기도

어떤 경우에는 함께 마음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신앙이 조금씩 자라나게 된다.

4. 교과 공부를 해 오지 않은 학생들

교사들은 요즘음 저조한 예습률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연합회에서는 ‘교과 밑줄 긋기 캠페인’ 등 예습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묘안들을 내놓고 있으며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런데 예습률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꾸준히 토의식으로 교과를 진행하는 것이다. 강의식 교과는 학생들을 수동적으로 만들고, 예습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을 못 느끼게 한다. 하지만 토의식으로 교과를 진행하면 예습을 안 해 오던 학생들에게 자극을 줄 수 있다. 강의식에서 토의식으로 전환한 반들에서 예습률 100%에 가까운 결실들을 얻고 있는데, 이는 우연한 일이 아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예습해 오도록 권장하고, 토의에 동참하도록 계속 독려하면 분명히 예습률은 향상될 것이다.

제5부 | 토의식 교과를 위한
교수법의 개발



☑ 열쇠 7. 교과의 중심 주제를 파악하라

♣ 총알인가, 산탄인가?

교과를 가르칠 때 하나의 중심 주제 즉 교과를 관통하여 흐르는 하나의 핵심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나의 보석에는 여러 단면들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의 보석이듯이 교과에도 여러 주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의 중심 주제가 있는 것이다. 교사는 매 주일 교과를 통해 각각 하나의 중심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왜 하나의 중심 주제를 가져야 하는가? 그 이유는 하나를 강조할 때 힘이 집중되고 가장 오래 기억되기 때문이다. 여러 개를 강조하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강조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되고 만다. 그러므로 교사는 해당하는 주의 교과를 여러 번 읽고 묵상한 다음, 그것을 분석하고 다시 하나의 종합된 개념, 즉 강조해야 할 하나의 중심 주제로 정리해야 한다. 그 중심 주제를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문장을 여러 번 수정하여 스스로 만족할 정도로 다듬는 일이 필요하다.

사냥꾼이 새를 잡으려 할 때는 산탄(散彈)이 발사되는 공기총을 쓰지만, 큰 곰을 사냥할 때는 산탄을 쓰지 않는다. 산탄은 그다지 충격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총알(bullet)을 쏘아야만 곰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총알은

적중하기만 하면 엄청난 충격을 주는 것이다. 교과토의에서도 마찬가지다. 교사는 여러 개로 나누어진 자잘한 강조점을 갖지 말고 하나의 큰 핵심을 파악한 다음, 그것을 여러 각도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해야 한다. 그리할 때 학생들의 마음속에 그 주제와 교훈이 깊이 새겨질 것이고 삶에 변화를 가져올 만큼 충분한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교과 강목을 작성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와 같은 중심 주제를 효과적으로 강조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위함이다. 정교하게 짜여진 교수 강목은 학생의 마음 깊이까지 파고드는 수단이 될 것이다.

♣ 학습 목표의 설정

1. 학습 목표의 중요성

거듭 강조하지만 교과토의의 궁극적인 목표는 삶의 변화이다. 그런데 삶의 변화는 한꺼번에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러므로 학습 목표를 정하는 것은 한 주간의 교과 범위를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변화의 분량과 방향을 정하는 것이다. 학습 목표가 명확하면 우리는 학습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고 변화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학습 목표를 정하면 토의의 분명한 방향성을 갖게 되고 시간도 절약된다.

아쉽게도 많은 교사들이 학습 목표를 정하지 않은 채 무턱대고 교과를 가르친다. 그래서 그 교과가 잘 가르쳐졌는지 학생의 삶이 얼마나 변화되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 아예 학습 목표가 없거나 있어도 그것이 불분명할 경우에 아무리 진지하고 열성을 다해 토의를 한다 할지라도 그 성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교사는 명확한 학습 목표를 정하되 그 목표가 예측(計測) 가능하도록 구체화하여야 한다.

목표에 도달했는지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분명한 학습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의 도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들을 익

희보자.

2. 세 가지 형태의 목표와 변화의 단계

사람은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까지 심리적으로 세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먼저 지적(知的)인 단계, 그 다음은 정서적(情緒的) 단계, 마지막으로 의지적(意志的) 단계를 거친다. 각 단계에서 ‘동기 유발’이라는 특별한 자극을 통해 앞으로 나가는 것이다. 각 단계를 하나씩 살펴보자.

(1) 지성적 단계

지성적(知性的) 단계란 교과를 통해 전달된 정보와 지식을 깨닫는 단계를 말한다. 과거에 몰랐거나 어렵듯이 알았던 것을 새롭게 깨닫는 것이 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정이다. 즉 성경의 여러 사건과 인물들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깨닫는 것이 변화를 위한 중요한 기초가 된다. 이 지적인 단계에서 흡족한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인 정서적 단계로 넘어가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느낌을 일으킬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지식과 정보의 전달이 필수적이다. 이 단계에서 교사는 단편적인 사실(fact)만을 전달하기보다는 어떤 느낌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체계화된 ‘개념’(concept)을 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단순한 사실의 조각들이 아닌 그 사실들이 조직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하나의 개념 덩어리를 전달해야만 공감이 일어난다.

(2) 정서적 단계

사람은 지성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감성적 존재이다. 마음에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변화에 대해 활짝 열린 상태가 된다. 그러므로 정서적 단계는 이미 얻은 정보와 지식을 토대로 감동을 느끼는 단계이다. 즉 학습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계획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함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감동을 느끼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구속의 과

학에 대해 공부하면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작고 작은 지구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바로 ‘나’를 살리시기 위해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다는 사실에서 몽클한 감동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그분을 위해 무슨 일이라도 하고 싶다는 열망을 갖게 된다. 이것이 바로 정서적 단계에서 기대할 수 있는 변화이다.

(3) 의지적 단계

이 단계는 학습자가 지성적 및 정서적 단계를 통하여 깨닫고 느낀 바를 실행하기로 결심하는 단계이다. 변화의 최종 단계인 의지적 단계는 학습 목표를 완성시켜 주는 절정이요 결말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의지적 단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기 부여가 필요한데, 많은 교사들이 이 부분에서 실패하고 있다. 정서적으로 큰 감동을 받았다 해도 그것으로 그친다면 실질적인 삶의 변화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반드시 마음의 감동을 행동으로 연결시켜 주어야 한다. 학습자가 배운 바를 실행해 보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지금이라도 당장 달려 나가서 실행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해 주어야 한다. 교사는 의지적 단계의 목표를 정할 때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분량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변화의 단계를 종합해 보면, 먼저 머리로 이해하고(지적 단계), 가슴으로 느낀 다음(정서적 단계), 손과 발을 움직여 실천하게 하는 것(의지적 단계)이 학습을 통한 변화의 메커니즘이다.

3. 학습 목표 작성하기

학습 목표를 문장으로 써 보는 것은 매우 유의하다. 머릿속에 맴도는 생각을 글로 표현하다보면 생각이 구체화되는 것을 느끼게 된다. 교과책의 학습도우미에 나오는 대로 ‘깨닫기,’ ‘느끼기,’ ‘행하기’ 이렇게 세 가지로 학습 목표를 정할 수도 있고, 이 셋을 하나로 아우르는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세 단계 중 어느 하나에 더 치중할 수도 있다. 가령 새로운 교리나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목표라면 ‘지성적 단계’에 초점을 맞출 수 있고, 행동을 촉구하는 내용이라면 ‘의지적 단계’를 강조할 수 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이 세 단계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학습 목표를 작성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사실은, 교과와 중심 주제와 학습자의 필요가 만나는 지점에서 학습 목표가 형성된다는 점이다. 교과와 중심 진리에서 벗어난 학습 목표는 핵심을 건드리기 쉽고, 학습자의 필요와 동떨어진 학습 목표는 참된 변화를 유발시키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교사는 교과와 중심 주제를 잘 이해할 뿐더러, 학생들의 필요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어떤 측면에서 동기를 유발시켜야 할지를 알아야 한다. 교사는 반원들의 영적 결핍 부분을 알고 교과를 통해 그 부족한 영적 영양소를 공급해 줄 수 있다.

이제 학습 목표를 작성한 몇 가지 예를 비교하면서 살펴보자.

(1) 교과토의의 주제가 ‘다니엘과 동료들의 절제 원칙’(단 1:2~20)이라고 가정해 보자.

막연한 학습 목표의 예

“이 교과를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한다.”

구체적인 학습 목표의 예

“다니엘과 그 동료들이 실천한 절제의 원칙들을 배우고, 특히 그들처럼 식욕에 절제하기로 결심한다.”

(2) 가령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요 4:1~40)에 대해서 토의한다고 가정해 보자.

막연한 학습 목표의 예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 된다.”

구체적인 학습 목표의 예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으로, 동족(가족, 친지)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한다.”

(3) 혹은 ‘노아의 때와 같으리니’(마 24:37~39)라는 제목의 교과를 토의한다고 가정해 보자.

막연한 학습 목표의 예

“재림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한다.”

구체적인 학습 목표의 예

“노아 당시의 타락상과 오늘날의 죄악상을 비교해 보고, 식욕과 정욕에 방종하지 않는 반원들이 되기로 결심한다.”

♣ 교수강목 작성 요령

교사는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건축가는 건물을 짓기 위해 먼저 설계도를 가져야 하며, 여행자는 여행을 떠나기 전에 먼저 여행 지도를 펼쳐놓고 여행의 경유지를 정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은 당연한 순서이다. 설계도 없이 짓는 건물이나 아무런 계획 없이 무작정 떠나는 여행은 불안하고 위험하기까지 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사는 자신이 가르칠 교과에 대해 계획을 세워야 한다. 미리 교과 교수안을 작성하는 것은 당연한 순서이며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다.

1. 먼저 성령의 감화를 경험하라.

안식일학교 교과토의 시간은 유익하고 감동적인 시간이 되어야 한다. 교사는 감동의 전달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감동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된다. 감동과 은혜를 전달하기 원하는 모든 교사는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교사는 성경의 깊은 의미를 확실히 깨닫기 위해 자주 무릎을 꿇어야 한다.

2.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라.

교사가 교과를 잘 가르치느냐 못 가르치느냐 하는 것은 자신이 교과를 위해 얼마의 시간을 투자하였느냐에 비례한다. 충분한 시간을 바쳐야 한다. 안식일 오후 시간과 매일 새벽 혹은 저녁 시간을 떼어놓는 것이 좋다. 저녁에 가족 제단을 쌓을 때 교과를 공부하는 것을 적극 권하는 바이다.

안식일 오후 시간은 다음 주 교과의 내용을 통째로 읽으면서 전체의 흐름과 중심 주제를 파악하기에 좋은 기회이다. 그런 다음에 매일 한 과씩 깊이 있게 공부해 나가면 된다.

일주일 내내 교과 공부를 게을리 하다가 금요일 저녁이 되어서야 한꺼번에 공부하는 습관은 버려야 한다. 매일 교과를 공부하면 매일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생활 속에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 평소에 교과를 염두에 두고 생활하면 일상생활 속에서 가르칠 내용과 관련된 많은 보조 자료들을 수집할 수 있어 풍부하고 심도 있는 교과 교수를 할 수 있게 된다.

3. 교과 교수 강목 작성

교과 교수의 능력은 강목 작성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다음의 단계들을 철저히 익혀두자. 안식일학교 교사들은 자신의 가르치는 능력의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좀 더 참신한 생각과 더 좋은 방법으로 가르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을 강조한 화잇 선지자의 말을 명심하자. “교사들

은 계속적으로 향상된 방법을 추구해야 한다. 성경 교수는 우리의 가장 참신한 생각과 가장 좋은 방법과 가장 열렬한 노력으로 해야만 한다.”(부모와 교사와 학생들에게 보내는 권면, 181)

(1) 중심 주제를 파악하라.

교과 공부를 마친 다음에 학생들의 머릿속에 명료한 한 가지의 교훈이 남아야 잘 가르쳐진 교과이다. 그렇지 않고 무엇을 배웠는지 분명치 않다면 아마도 중심 주제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교사는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고 하나의 중심 주제를 잡아야 한다.

여러 시간에 걸쳐 몇 번에 나누어 교과를 읽는 것보다 한 번 앉은 자리에서 단숨에 한 주(週)의 교과를 읽게 되면 전체의 흐름이 한눈에 들어오고 핵심적인 주제가 명료해진다. 읽는 일이 끝나면 나름대로 파악한 전체 주제를 요약하여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 보라. 만족스러워질 때까지 문장을 몇 번이고 고쳐 가다 보면 어느새 가르치고자 하는 ‘중심 주제’가 명확하게 정립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2) 교과에 나오는 질문에 답을 적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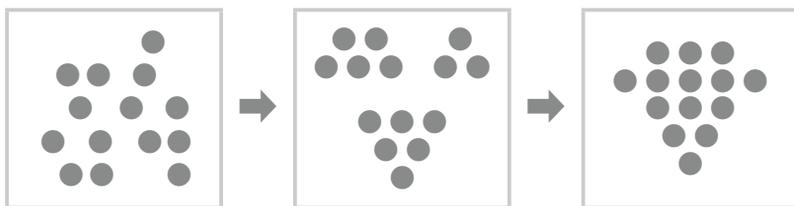
가르칠 분량을 한꺼번에 읽음으로써 전체 흐름을 파악했다면 좋은 출발을 한 셈이다. 이제는 각 요일별 교과에 나오는 질문에 답을 적어 가면서 본격적인 말씀 연구의 단계로 접어들면 된다. 질문에 답을 적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고 많은 사색과 기도가 수반되는 과정이다. 모름지기 교사는 학생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볼 줄 아는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깊이 있고 폭넓은 독서와 사색이 필수적이다. 연구 범위로 제시된 성경 본문을 여러 다른 번역으로 읽어보고, 관련된 예언의 신의 증언을 찾으며, 성경지도를 펼쳐보고, 성구사전과 성경사전을 열어보라.

대총회 안식일학교부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교과의 구성 형식을 귀

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더 많은 생각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질문들은 정해진 하나의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형편과 지식과 경험에 따라 서로 다른 답을 말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어떤 대답이든지 완전히 틀린 답은 없는 것이다.

(3) 작은 주제들을 연결시켜라.

각 요일별로 나오는 작은 주제들은 전체의 큰 주제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결국 우리가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작은 주제들이 아니라 하나의 큰 중심 주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작은 주제들은 서로서로 연결성을 가져야 하며 전체의 큰 주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하나의 다이아몬드에는 눈부신 여러 개의 면들이 있듯이, 작은 주제들이 서로 연결되어 결국은 하나의 큰 주제를 형성하게 된다. 학생들에게 전체의 아름다움을 보게 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종종 교사들은 너무 많은 단면들을 세밀히 보여 주려다가 전체의 모습을 놓쳐버릴 때가 있다. 그래서 때로는 산만한 여러 주제들을 단 몇 개의 주제로 묶어서 제시할 필요도 생기는 것이다. 아래의 그림과 같이 여러 작은 주제들을 몇 개의 주제로 묶고 그것을 다시 연결시켜 전체 주제가 드러나도록 제시해야 한다.



(4) 주의를 끄는 서론을 준비하라.

훌륭한 교사는 처음 30초에 승부를 건다. 그 시간 동안 충분히 반원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기대감을 높여 주지 못하면 나머지 30분 동안은 어떡하겠는가?

서론을 준비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서론을 위해 할애되는 시간은 2~3분에 불과하지만, 주의를 끌 수 있는 서론이 되기 위해서는 몇 배의 시간이 필요하다. 서론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내용으로 하되, 본론으로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서론부에 짤막한 예화나 비유를 곁들인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교사는 자신의 경험이나 가족생활, 천연계나 자신이 읽은 책 등에서 교과와 관련된 예화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토의 주제를 밝혀 주는 도입 질문을 던짐으로 학생들의 관심을 사로잡아야 한다.

(5) 토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질문을 만들라.

학생들을 교과토의에 적극 참여하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교수법인데,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질문 활용법이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질문을 사용함으로써 교사는 교과의 주도권을 가지게 되고, 학생들의 생각을 자극하여 주어진 주제에 대해 깊이 사색하게 한다.

토의식 교과를 위해 질문을 만드는 이 과정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에 해당된다. 교사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강의를 통해 주입식으로 전달하려 하지 말고, 좋은 질문을 통해 토의를 이끌어냄으로써 학생들이 스스로 설명하게 해야 한다. 토의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다름 아닌 '질문'이다. 잘 만들어진 질문은 학생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의 입을 열게 만든다.

(6) 주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진행 순서를 정해 두라.

지금까지 교과를 가르쳐온 전통적인 방법은 요일별로 차례대로 가르치는 것이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쯤 나가다 보면 거의 마칠 시간이 되어 뒷부분은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대충 훑고 지나가는 수가 많다. 요일별로 가르치는 교수 방식을 소위 '슬라이스' 식 교수법(slice type teaching method)라고 하는데, 마치 빵집에서 식빵을 얇게 썰어서 파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런데 '슬라이스' 식 교수법보다

는 ‘로우프’ 식 교수법(loaf type teaching method)이 더 효과적인 방법인데, 빵을 얇게 썰지 않고 한 두 개의 큰 덩어리로 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각 요일의 내용 간에 공통점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두어 개의 주제로 묶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비슷한 내용끼리 묶는 훈련을 통해 축적될 수 있는 특별한 노하우이다.

때로는 일요일 교과와 목요일 교과가 하나의 주제로 묶일 수 있고, 때로는 일요일, 월요일, 수요일 교과가 하나의 묶음이 될 수도 있다. 이 묶음을 발견하는 요령은 먼저 한 주의 교과를 전체적으로 자세히 공부한 후 그 속에 존재하는 주제의 구분점을 찾아내어 묶는 것이다. 서로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서도 확연히 구분되는 두어 개의 주제가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다.

요일별로 나누어져 있던 교과를 두어 개의 주제로 묶은 다음에 생각할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정은, 가르칠 내용의 우선순위 또는 비중을 정하는 것이다. 가령, 수요일 교과에 나오는 내용이 가장 중심적인 주제라고 판단되면 전체 교과 시간의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함으로써 큰 비중을 둘 수도 있다. 주제의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교과를 진행할 순서를 정하는 일은 반드시 강목 작성 시에 염두에 둘 사항이다.

(7) 생활 속에 적용되도록 결론을 준비하라.

결론부에서는 지금까지 토의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고, 생활에 적용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새롭게 깨달은 영적인 교훈을 말하게 하고, 한 주일을 살면서 꼭 실천하고 싶은 일을 구체적으로 결심하게 한다. 이렇게 자신들의 결심을 말하게 하는 것은 실천을 촉구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누구나 자신이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지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우리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말씀 연구는 열매 없는 과일나무와 같다 하겠다.

(8) 시청각 자료 및 보조 자료들을 준비하라.

“들은 것은 잊어버리고, 본 것은 기억한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시청각 자료가 학습 효과를 높이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잘 말해 준다. 칠판에 원을 그린다던가, 동전을 꺼내서 보여준다던가, 신문을 손에 들어 보여준다던가, 바나나를 벗긴다던가, 약간의 소품을 보여 주는 것만으로도 학습 효과는 크게 향상될 수 있다. 창의적인 교과를 위한 보조 자료를 손꼽는다면, 성경지도, 그림이나 사진, 물건, 신문, 만화, 스크랩, 도표, 녹음기, 교사의 분장 등을 들 수 있다.

(9) 연습하라.

연습과 훈련은 교수법의 향상을 위한 지름길이다. 필자가 알고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교자 한 분은 매 안식일 아침 거의 두 시간 동안 거울 앞에서 설교 연습을 한다고 한다. 어투와 발음, 표정과 제스처 그리고 강조할 점들을 점검하는 것이다. 우리 교사들도 이 정도의 열성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 열쇠 8. 학생들의 영적 상태를 파악하라

♣ 표적을 보고 활시위를 당기라

궁사(弓師)들은 표적이 가장 크게 보일 때 활시위를 놓는다. 마찬가지로 교사는 학생들의 형편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그들이 직면한 가장 중대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교사가 학생들의 형편을 정확히 알고 있을 때에 그들의 필요를 가장 근접하게 충족시켜 줄 수 있다.

교사가 학생들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할 경우에 정확한 표적을 보지 않고 활시위를 당기는 격이 될 수 있다. 학생을 아는 것은 학습

효과를 증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화살을 학생들의 마음판에 적중시킴으로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해야 한다. 그들의 품성이 성화되고 주님 만나기를 예비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 목자가 양을 알듯이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안다(참조, 요 10:14~15). 양을 진정으로 아끼는 목자가 가장 훌륭한 목자이다.

목자가 한 마리 한 마리의 양에 대해 소상히 알고 있다는 것은 그가 선한 목자임을 나타내 준다. 하지만 샅꾼은 양의 필요에는 관심이 없고 다만 자신의 편익과 유익만을 생각한다. 양들의 생명은 목자의 손에 달려 있고, 목자의 기쁨은 양들에게 달려 있다. 목자와 양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

안식일학교 교사는 학생들의 영적 멘토(mentor)가 되어야 한다. 교사는 안식일학교 교과에 나오는 지식만을 전달할 뿐 아니라, 학생들의 개인적인 형편을 알고 특히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 주어야 한다.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교사들은 저들의 학생들에게 책 가운데 있는 지식을 나누어 주는 것 이상의 일을 하여야 한다. ... 교사들은 마치 목자가 자기의 거느린 양 떼를 잘 지키고 살피는 것처럼 학생들을 보살펴야 한다. 그들은 마치 그 일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것처럼 영혼들을 돌보아야 한다”(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 65).

교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지식을 보유해야 한다. 그 세 가지 지식이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자신이 가르칠 ‘교과에 대한 지식 그리고 ‘학생에 대한 지식이다.

1. 교사가 알아야 할 첫째 지식-하나님

첫째, 교사가 하나님에 대해 올바르게 알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교사의 그릇된 관념은 학생들을 멸망으로 인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관해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고 그분을 경외하지도 않는 교사에게 학생들을 맡기는 일의 위험성에 대해 선지자는 이렇게 경고한다. “우리가 공언하는 진리의 거룩한 성격과 일치하지 않는 감화력을 가진 교사들을 늘이기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꾼들 아래 학생들의 수를 두 배로 하는 편이 더 좋다. 왜냐하면 그들의 감화력이란 도덕을 퇴폐시키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안식일학교 사업에 관한 권면, 91)

2. 교사가 알아야 할 둘째 지식-교과

둘째, 교사는 자신이 가르치고자 하는 교과에 대해 훤히 꿰뚫고 있어야 한다. 주어진 교과토의 시간에 준비된 자세로 가르치는 교사의 모습은 아름답다. 그러나 준비되지 못한 채 횡설수설하거나 교과와 상관없는 자신의 얘기를 늘어놓는 교사의 모습을 보는 일은 슬픈 일이다. 교과시간이 흥미롭고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는 열쇠가 교사의 손에 들려 있다. 교사는 자신이 가르치고자 하는 교과에 정통하기 위해 기도도와 함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한다. 주부가 정성껏 요리를 하여 가족들에게 제공하듯이 교사도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과를 가르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교사가 알아야 할 셋째 지식-학생

셋째, 교사는 자신의 학생들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학생에 대해 아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 이유는 학생들을 정확히 알 때 교과를 통해 그들의 필요를 더 잘 채워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각자 나름대로 영적 및 육적인 필요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그 필요를 채우기 원하는 마음으로 안식일학교에 온다. 그러므로 교사는 학생들의 영적인 필요를 파악하고 그곳을 겨냥해야 한다. 학생들은 자신의 영적 필요가 하나님의 말씀

을 통해서 채워질 때, 새로운 도전에 응할 준비를 갖추고 교회 문을 나서게 된다. 교사가 학생들의 필요를 알지 못한 채 교과를 가르친다면 그것은 마치 허공을 향해 포탄을 쏘는 것과 같다.

♣ 학생들을 관리하는 법

학생 관리의 일차적 책임은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교사에게 있다. 말씀의 끝이 풍성한 곳에서 양들은 안식처를 찾는다. 양들이 우리를 벗어나거나 병들거나 하는 원인은 그 무엇보다도 충분히 잘 먹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사는 학생의 영적인 필요를 파악하여 교과를 통해 실질적으로 채워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학생 관리법임을 명심해야 한다. “안식일학교 교사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즉 영혼들을 보살피며 그들이 지도하는 사람들에게 끼치는 감화에 대하여 하나님께 답변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 위치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남녀들이 되어야 한다.”(안식일학교 사업에 관한 권면, 61)

1.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는 원인

교사의 역할은 학생들에게 성경지식을 전달하는 것 그 이상이다. 교사가 학생들에 대한 애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애정을 쏟을 때 학생들은 그 사랑을 느낀다.

교회에 첫발을 들여놓은 지 1년이 채 안 된 새 신자들에게는 교사의 관심과 애정이 더욱 필요하다. 통계에 따르면 새 신자나 구도자들이 교회에 등록한지 1년 이내에 떠나가는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들은 짧게는 한 달 이내, 혹은 6개월이나 1년 이내에 교회를 떠나고 만다.

새 신자들이 이렇게 속히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이 받아야 할 만큼의 충분한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 밖에서 받던 관심과 사랑에 비해 교회 안에서의 관심과 사랑이 못미칠 때, 그들은 실망감을 느끼고 돌아선다. 영적인 어린 아이에 불과한 그들이 스스로 활동할 수 있기까지는 극진한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하며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는 손길이 필요하다. 학생들에게 관심을 둔 교사라면 이 기간에 새 신자에게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알아차릴 것이다. 한 사람이 교회를 떠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개 8~12주가 소요된다고 한다. 즉 서서히 울타리를 벗어나는 어린 양을 누군가 붙들어 준다면 잃은양의 발생을 막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일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교사이다.

2.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짐

한번은 라디오에서 자동차 판매왕과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다. 그의 성공비법은 다름 아닌 ‘고객관리’에 있었다.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고객에 대해 매우 치밀하고 자상한 관심을 표명해 왔다. 심지어 고객의 작은 가정사까지도 알아서 챙겨 주고, 축하해 주고,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었다. 고객에게는 그가 또 하나의 가족과 같은 존재였다. 감동을 받은 고객들은 비록 자신이 차를 구입하지 않더라도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가 차를 구입할 때에 그 영업사원을 강력하게 추천했다. 우리 교사들도 학생들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 관심이 있는 곳에 참신한 사랑의 묘책이 떠오를 것이다.

(1) 관찰하라.

교사는 자신에게 맡겨진 학생들을 늘 살피야 한다. 학생들의 영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찰하는 일이 필요하다. “네 양 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 떼에 마음을 두라”(잠 27:23). 교사의 임무는 교과시간에 교과를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학생들의 실질적인 필요가 무엇인지, 그 필요가 충족되고 있는지를 부지런히 관찰해야 한다. 자세히 살

피지 않으면 학생들이 어떤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2) 대화하라.

대화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관찰을 통해 문제의 기미가 보이면 대화를 하여야 한다. 물론 문제가 생기기 전에도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최소한 변화의 기미가 보일 때에는 대화를 통해 격려하고, 말씀에서 해결책을 찾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초기에 짧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오랫동안 방치해 두면 아무리 노력을 기울여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3) 확인하라.

영적으로 병들어가기 시작하는 교인의 첫 번째 징후는 교회 출석이 소홀해지는 것이다. 그 다음에 헌금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여러 가지 교회 활동에서 방관자가 되려고 한다. 학생들의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고 그들을 적절히 도와주어야 할 의무가 교사에게 있다. 학생이 한두 주일 결석을 해도 그 이유도 모른 채 무관심한 교사가 있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결석생이 발생하면 가능한 한 빨리 그 원인을 확인하고 접촉을 시도해야 한다. 그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교사는 학생들이 영적으로 병들거나 결길로 나가지 않도록 풍성한 꼴을 먹여줄 뿐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필요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채워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학생 관리는 지속적인 관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들의 영적인 상태를 관찰하고, 그들과 계속 대화하며, 그들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는 것이 학생 관리의 비법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안식일학교를 사랑의 학교, 행복의 교실로 만들어 보지 않겠는가?

에필로그



♣ 안식일학교의 부흥을 꿈꾸며

안식일학교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영혼의 목장이요, 교회의 심장이며, 하늘 가는 문이요, 선교자금의 금광인 안식일학교는 교회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에게 안식일학교는 교회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여겨질 때 마음이 아프다. 어떤 이들은 초신자들을 안식일 아침 9시 30분에 데려오기가 망설여진다고 말할 때 탄식하지 않을 수 없다.

안식일학교는 공부하는 교회이다.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고 배우느냐에 따라 안식일학교의 질이 결정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토의식 교과외의 8가지 열쇠를 하나하나 적용한다면 놀라운 결과가 따를 것이다.

우리는 안식일학교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학교로 만들 수 있다. 특히 안식일학교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교과외의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유익한 시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가르치는 방식에 변화를 줌으로 놀랍고 발전적인 변화를 목격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해 내려오던 강의식 교과는 교사 한 사람만 제외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참여의 기회가 적어 소극적인 자세를 갖게 한다. 시끄러워서

집중도 잘 되지 않는다. 토의식 교과는 모든 반원들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함께 신앙의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다.

토의식 교과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교사, 학생, 교과, 교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본서에서 다루었듯이 이 네 가지 조건들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정성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일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안식일학교의 밝은 미래를 향해 함께 도전해 보자.

끝으로 교사를 위한 33가지 조언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 교사를 위한 33가지 조언

인간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요점들을 정리해 두는 일은 때때로 요긴하다. 지금까지 제시한 것들 중에서 매주 기억해야 할 요점을 33가지로 정리한 것이다. 교사들은 이 조언들을 수시로 체크하면서 부족함을 보충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1. 교과를 준비할 때

(1) 교과 시간과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라.

교과를 준비하면서, 교사는 자기 자신의 영성과 학생들을 위해 간구하고, 이번 주 교과시간이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2) 다 안다고 생각지 말고 철저히 준비하라.

준비하지 않은 채 학생들 앞에 서지 말라. 최소한 3시간 이상 가르칠 교과를 준비하라.

(3) 학생들에 대하여 알려고 노력하라.

양떼를 보살피는 목자의 심정으로 학생들의 형편을 살피라. 그리하면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교과를 통해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4) 학습 목표를 명확히 정하라.

학습 목표란 이 교과를 통해 학생들이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1~3개의 명확한 목표를 정하라.

(5) 매일의 삶 속에서 예증을 찾으라.

교과의 주제를 더욱 드러나게 하는 기억에 남을 만한 적절한 예화는 교과를 더욱 빛나게 해 준다. 교과를 염두에 두고 일상생활 속에서 예화나 예증을 찾으라.

(6) 교과의 흥미로운 전개를 위해 명료하게 강목을 작성하라.

강목을 작성해야 한다. 도입은 어떻게 하고, 토의를 위해 어떤 질문을 던지며, 강조하기 위해 어떤 예증을 말하고, 요약과 적용은 어떻게 할지를 계획해야 한다. 그리고 각 토의 주제별로 예상되는 시간을 안배해야 한다.

2. 교과를 가르칠 때

(7) 반원들로 하여금 원형으로 앉게 하라.

효과적인 토의를 위해서는 앉는 대형이 중요하다. 강의자에 앉을 경우 의자를 두 개만 사용하여 서로 마주 볼 수 있는 형태로 둘러앉게 한다.

(8) 일어서서 가르치지 말고 앉아서 가르치라.

교사가 일어서서 가르치는 것은 강의식으로 가르칠 때 유용하다. 토의식

으로 하려면 학생들과 같은 레벨에서 진행해야 한다.

(9) 반이 너무 크면 반을 나누어 부교사에게 주라.

손님들이 오거나 장기 결석자들이 많이 와서 반원수가 8명 이상이 될 경우에는 과감하게 반을 둘로 나누어 한 반은 부교사가 가르치도록 기회를 주라.

(10) 밝은 미소를 지으라.

시작할 때 교사가 밝은 미소를 지으면, 반원들은 안도감을 갖게 되고 함께 밝은 표정을 지을 것이다.

(11) 학생들에게 골고루 시선을 주라.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눈 맞춤(eye-contact)은 대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눈 마주침을 피하지 말고 학생들에게 골고루 시선을 주라. 다른 반원들도 말하는 사람을 주목하도록 권장하라.

(12) 비판 대신에 격려하는 분위기를 만들라.

격려하는 분위기에서 토의가 가장 잘 이루어진다. 교사는 어떤 경우에도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지 말아야 한다.

(13) 역동적이고 흥미진진하게 진행하라.

토의시간이 지루한 시간이 되지 않도록 교사는 센스 있게 흐름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 종종 유머 감각이 빛을 보는 때가 있다.

(14) 혼자서 다 말하지 말고 학생들에게 말하게 하라.

학습 효과를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교사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을 학생들의 입으로 말하게 하는 것이다. 교사는 가르칠 내용을 설명하지

말고, 그것을 질문으로 바꾸어 학생들이 대답하게 하라.

(15)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하게 말할 기회를 주라.

토의시간에 한두 사람이 대화를 독점함으로써 나머지 사람들은 듣기만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아직 말씀을 안 하신 ○○집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하고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

(16) 스스로 다 알고 있다는 태도를 갖지 말라.

난해한 문제가 생겼을 때, 정확한 해답을 모르면 솔직하게 시인하라.

(17) 도입을 위한 질문(ice-breaking question)을 던지라.

도입 질문은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고 토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준다. 토의할 주제와 연결되면서 일상의 소재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질문을 던지라.

(18) 폐쇄형 질문보다는 가급적 개방형 질문을 던지라.

대답이 “예,” “아니오”로 나오는 폐쇄형 질문보다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와 같은 개방형 질문을 자주 던지라.

(19) 자주 “왜”라는 질문을 던지라.

토의 시에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 생각이 자극되고 토의가 활발해진다.

(20) 적용하는 질문을 잘 던지라.

교과를 마무리할 때는 배운 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구체적인 적용 질문을 던져야 한다.

(21) 반응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 대답을 기다리라.

질문을 했으면 답이 나오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고 기다려야 한다. 침묵이 흐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며, 질문을 쉬운 말로 풀어 줄 수 있어야 한다.

(22) 학생들이 질문하고 학생들이 대답하도록 격려하라.

토의식 교과가 잘 되면 학생들이 질문을 하게 된다. 이때 모든 질문에 대해 교사가 답할 필요는 없다. 학생들이 답을 하도록 허용하라.

(23) 듣고, 듣고, 또 들으라.

교사들의 고정관념 가운데 하나는 '말하는 것은 가르치는 것이고, 듣는 것은 배우는 것이다'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궁리하여 답을 말하게 하는 것은 가장 잘 가르치는 방법이다. 그리고 교사도 학생들에게서 배울 수 있다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하며, 경청하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한다.

(24) 사려 깊은 대답에 대해서는 칭찬해 주라.

모든 대답을 미소로 받아들이라. 학생이 틀린 답을 말하여도 일리가 있으면 칭찬해 주라. 학생의 대답에 대해 “감사합니다.” “참 좋은 생각이네요.”라고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라.

(25) 토의가 논쟁으로 가지 않게 하라.

학생들로 하여금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말하라. 그러나 부득이하게 논쟁으로 발전했을 때는 교사가 한쪽 편을 들지 말고 끝까지 중립을 지키라.

(26) 주제에서 벗어나지 말라.

교사는 교과의 전체 흐름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토의가 주제에서 너

무 빛나갈 때에는 재치 있게 되돌려 놓아야 한다.

(27) 주요 요점을 차트나 스케치북에 적어서 보여 주라.

눈으로 본 것은 기억의 창고에 더 오래 저장된다. 문구점에서 스케치북을 하나 사서 거기에 주요 요점을 적어서 보여 주라.

(28) 공부한 내용을 다시 요약해 주라.

공부가 마칠 무렵에는 배운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주라. 이것은 의외로 좋은 효과를 거둔다.

(29) 다음 주 교과와 주제를 소개하라.

교과를 마칠 때 다음 주 교과에 대해 예고해 주고 예습을 해 올 것을 독려하라. 그러면 학생들은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30) 필요하면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주라.

필요한 경우에 특정한 주제에 대해 과제를 내주는 것도 좋은 일이다. 그러려면 교사가 그 다음 주 교과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3. 교과를 마친 후에

(31) 교과시간이 끝난 후에 자신을 평가해 보라.

계속적인 발전을 위해 교사는 스스로 평가하기를 두려워해선 안 된다. “잘 된 점은 무엇인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고쳐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32) 교과시간 후에 학생들에게 무엇을 배웠는지 대화해 보라.

점심시간이나 혹은 주중에라도 학생들과 이야기할 기회를 만들어, 과연 공부한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고 기억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라. 괜찮다면 자신의 교수방법에 고칠 점은 없는지 솔직하게 말해 줄 것을 요청하라.

(33) 그 다음 주를 위한 교과 준비를 일찍 시작하라.

교과를 가르치기 위한 준비는 일찍 시작할수록 좋다. 안식일 오후에 한 주일 교과를 다 살피고, 날마다 매일의 분량을 깊이 있게 연구해 가라.

토의식 교과의 열쇠

2011년 1월 24일 인쇄

2011년 1월 31일 발행

발행인 : 김 대 성

저 자 : 윤 재 성

인쇄소 : 시 조 사

발행처 : 한국연합회 안교·선교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66번지

☎ (02)3299-5233 Fax, (02)3299-5250

[정가 : 7,000원]

ISBN : 978-89-6375-040-8 03230